Chŏngnyŏn saenghwal

조선근로자들은 단결하라!

청년생활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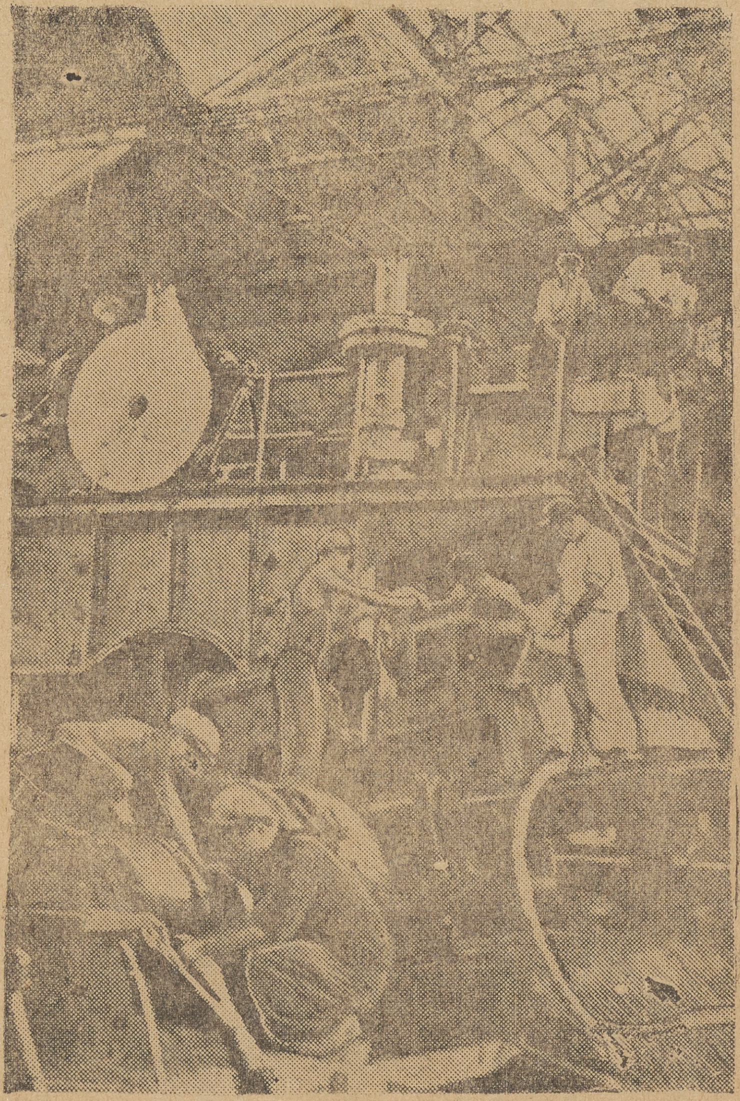
1954

조선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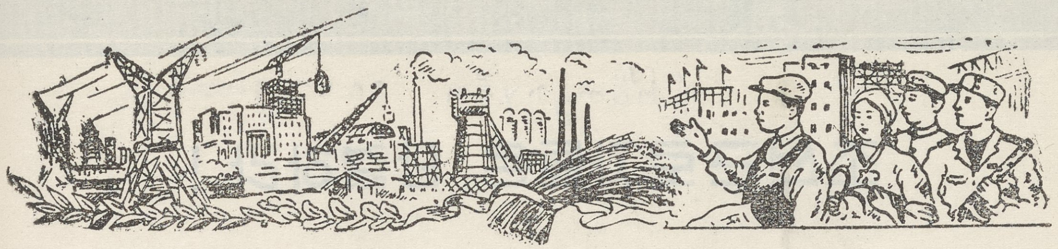
청년생활

제 9 호

1954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기관 잡지



청년생활 제九호

사 설

기술 기능 수준 제고는 三개년 인민 경제 계획 실행에서 청년들의 첫째가는 애국적 임무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 투쟁에서 빛나는 성과를 쟁취하며 우리 나라 인민 민주 제도를 공고히 하며 인민들의 물질적 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가 결정적 문제로 나선다。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는데 있어서는 선진 기술의 도입、보급과 나라의 주인인 로동 대중의 창의 창발 운동이 가장 주되는 고리로 된다。

우리 나라 공장、기업소들은 최신 기술로 장비되고 있으며 농촌 경리에도 선진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이 기계와 설비들을 능숙히 운영할 수 있는 기술 인재—문화 기술적으로 발전된 젊은 기술 기능자들을 보다 많이 보다 빨리 보다 높은 수준에서 양성하는 문제는 우리 조국의 현실과 인민 경제 복구 건설의 속도 자체로부터 출발한 가장 긴급한 국가적 요구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六차 전원 회의에서 이미 『전후 인민 경제를 복구 건설함에 있어서 기술 문제는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나서고 있다』고 하시면서 『선진 과학과 선진 기술을 잘 소유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인민 경제를 복구 발전시키는 사업에 있어서의 승패를 결정하는 관건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장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의 하나로 되는 것이다』라고 간곡히 교시하였다。

경애하는 수령의 호소를 받들고 청년들은 자기의 기술 기능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군중적 운동을 전개하여 이미 귀중한 성과들을 쟁취하고 있다。창의 창발 운동은 대중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인민 경제 각 분야에 활발히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양두석이 민청 위원장으로 공작하는 공장 한춘찬 청년 작업반은 호상 동지적 방조와 꾸준한 열성과 기사들과의 창조적 협동으로써 각자의 기술 기능 급수를 계통적으로 제고하여 자기의 년간 계획을 이미 지난 六월 一七일에 완수하고 년말까지 생산 계획을 一九○%로 달성할 것을 목표로 힘찬 경쟁을 전개하고 있다。

성진 제강소 압연 직장 리주환 청년 작업반원들은 금년도 첫 四개월 간에 자기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현저히 높임으로써 二九一·六%의 새 기준량을 창조했으며 용해 직장 젊은 로동자들은 종전에 九시간 걸리던 용해 시간을 五시간 二○분까지 단축시킨 성과를 쟁취했다。

온성 탄광 젊은 굴진공 리석로는 三대공 발파법을 적용해서 많은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굴진 능률을 五배로 제고시켰으며 회천 자동차 부속품 공장 선반공 리진구는 전기사장 김병수의 방조하에 쏘련의 꼴레쏘브 강력 절삭법을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三○○% 이상의 로동 생산 능률을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선진 작업 방법에 공장 청년들의 九○% 이상이 인입되여 생산에서 전변을 일으켰다。

중앙 제一 건설 트레스트 벽돌공 최성수 영웅은 꼴레로브 五인조 작업 방법을 적용하여 하루에 六、○○○여매의 벽돌을 쌓게 되였으며 안주 기관구 젊은 기관사 최명찬을 포함한 많은 젊은 기관사들은 기관차의 수명을 연장하며 석탄을 절약하기 위한 애국적 운동으로 자겸 자수 운동、세잡 투탄법 등을 적용하여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방직 부문에도 고영숙、당운실 등의 다기대 운동자들과 김봉례、신복순 등 다추 운동자들의 대렬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증산 경쟁의 불길 속에서 이루어진 이와 같은 귀중한 성과들은 로동을 더 헐하고 기쁘게 하며 작업 공정을 기계화하며 새롭고 높은 기준량을 창조하여 인민 경제 복구 발전에 큰 기여로 되였다。

경험은 매개 로동 청년들과 민청 단체들이 기술 기능 수준 제고를 위하여 자기 앞에 지여진 유리한 조건、충분한 가능성、혁신자들의 산 경험들을 옳게 활용하고 그를 배우기 위해 인내성 있게 성실히 힘쓴다면 기술의 요새는 시시 각각으로 전취되며 생산 및 건설 속도는 더욱 비상히 촉진되며 제품의 질은 제고되고 원가는 저하된다는 것을 명백히 뵈여 주고 있다。

그러나 기술 기능 급수 향상을 위한 우리의 사업에는 아직 허다한 결함들이 계속 발로되고 있다。

말로써만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술을 습득하자고 떠들면서 실질적 조직 사업이 극히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민청 일꾼들에게나 로동 청년 자신들에게 있어서나 기술을 적용하고 보급할 대신에 『작업 시간의 연장』 등으로써 생산 능률 향상을 기대하는 락후한 경향이 있다。

적지 않은 기업소 민청 단체들은 청년들의 기술 기능 제고를 위한 사업을 자연 발생적 상태에 방임해 두고 있으며 그들의 창의 창발성을 묵살하고 있다。

부분적 청년들은 기술 습득을 위한 완강성과 정력적 노력이 부족함으로써 로동 생산 능률을 향상시키지 못하여 기계 사고를 빈번히 야기하며 제품의 질을 저하시키며 오작품을 생산하고 높은 생산 능력과 고도의 정밀성을 가진 기계 설비들을 되는대로 취급하는 등 참을 수 없는 현상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인민 경제 복구 건설에 해독을 주는 이러한 부정적 현상에 결정적 타격을 주어야겠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 인민 민주주의적 경제 체제는 최신 기술의 적용과 그의 부단한 개선에 대하여 무제한한 앞길을 열어 주고 있다。

우리에게는 또한 선진적 기계들로 장비된 기계 시설이 많으며 기술 서적들이 있으며 쏘련을 비롯한 형제적 우방 국가 기술자들의 직접적 방조가 있으며 지난 시기의 기술 기능 소유와 창발 운동에서 고귀한 경험이 있다。이는 모두 기술 소유

예서 아주 유리한 조건과 가능성이 있다는 실증이다.

문제는 동맹 단체들의 능숙하고 구체적인 조직 정치 사업 여하에 달렸으며 매개 청년들의 열성 여하에 의존한다.

전국 청년 열성자 대회에서 우리 나라 청년들은 경애하는 수령에게 『서로 배우고 가르침으로써 급속한 시일내에 현재보다 한급 높은 기능 수준에 도달』할 것을 맹세하였다. 수령 앞에서의 이 엄숙한 맹세를 청년들은 도처에서 어김 없이 실철함에 정력과 재능과 애국적 헌신성을 더욱 발휘해야 할 것이다.

동맹 단체들은 우선 직장내 개인 담당 기술 전습 사업에 깊은 주목을 해야겠다. 우수한 기술 기능자들은 몇명의 견습공들을 담당하고 어떤 기술을 어떤 방법으로 어느때까지 몇급 기능공으로 양성하겠다는 구체적 계획 밑에 전습 사업을 진행하며 민청 단체들은 기사, 기수와 숙련공 등을 이 사업에 적극 인입하여 그들의 사업 조건을 보장해 주며 방조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동맹 단체들은 이 사업의 진행 정형을 수시로 검열 총화하고 우수한 경험들을 찬양 보급하며 국가 규정에 의한 표창을 받도록 관심을 돌려야 한다. 개인 담당 기술 전습 사업과 함께 기술 전습회에 청년들을 빠짐 없이 참가시켜 성실히 기술을 배우도록 일상적 지도 방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개인 담당 기술 전습 사업과 기술 전습회 사업은 지도자와 전습자 호상간의 책임성과 동지적 협조 정신이 중요한바 서로 배우며 가르치는 미풍이 생산 활동 행정에서 고도로 발양되여야 한다.

생산 혁신자들과의 사업을 특별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혁신자들의 선진 기술, 작업 방법, 성실한 로력 태도를 제때에 지지하여 군중적으로 보급하는 사업을 강화하며 뒤떨어진 로동자들을 선진 로동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에로 이끌어 올려 주어야 할 것이다.

혁신자들의 귀중한 제의와 사업 성과를 귀담아 듣지 않거나 『보잘것 없는 것』으로 묵살하거나 또 혁신자들의 경험을 동일한 작업 내용을 가진 작업장, 기업소에 널리 보급시키는 군중적 운동에 무관심한 현상들을 더는 용허하지 말아야 한다.

민청 일군들은 부단히 혁신자들의 창의 고안, 선진 작업 방법을 연구 체득하며 강연, 선전, 벽보, 기술 도해, 견학, 전습, 경험 교환회, 기술 협의회 등 각종 수단과 방법을 활용하여 그의 보급에 노력할 것이다.

기본 건설, 공장, 탄광, 광산, 림산, 수산업, 야금 공업 분야에서 특히 생산의 합리화를 위한 운동에로 청년들을 고무해야 할 것이다.

동맹 단체들은 생산 기술 협의회 사업에도 부단히 고려를 돌려야 하는 바 이를 통하여 재것을 민감히 섭취하며 낡은 것과 적극 투쟁하는 청년들의 특성을 발양시키고 그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제고함에 자극을 주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직장내 기술 기능공 양성 기관—로동자 학교, 직공 학교는 젊은 기술 일군들의 후비 양성에서 지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 학교들에 고상한 학습 기풍을 수립하도록 방조하며 학생들이 무단 결강 혹은 중퇴하는 현상을 퇴치하고 그들의 학업 실력 제고에 적극 방조해야겠다.

민청반 단위로 학과 토론회 등을 수시로 조직하여 매일 배운 지식을 그날 완전히 료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습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청년 교원들에 대한 지도 방조 사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직장내 기술 기능자 양성 기관 사업에 대한 국가적 배려와 함께 각종 기술 전문, 자연 과학 계통 대학들의 사업에 동맹 단체들은 항상 깊은 관심을 돌리지 않으면 안된다. 청년들의 기술 기능 수준 제고를 위한 사업에서 기술 일군들과 청년 로동자들 간의 창조적 협동과 련계를 긴밀히 조직하는 사업이 아주 중요하다.

젊은 과학 기술 일군들은 자기의 과학 연구 사업에서 얻은 성과를 민첩하고 정확하게 생산자들에게 전달하여 그들을 친절히 방조하며 로동자들 속에서도 꾸준히 배움으로써 그들의 경험을 리론적으로 종합하는 사업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다른 편으로 생산 로동자들은 과학 기술 일군들과의 련계를 강화하고 그들에 대한 요구성을 높이며 선진 기술을 대담히 섭취 적용함에 기술자들에 많이 의거하여 성실히 배워야 할 것이다.

신입 로동 청년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급속히 제고시키는 것이 현시기 특별히 중요한 과업으로 나선다.

동맹 단체들은 신입 로동 청년들 속에서 로동 법령, 직장 내부 규정, 교대 인계 인수 절차, 기자재의 명칭, 기계 사용법, 기타 필요한 작업 기술을 초보부터 알기 쉽고 친절하게 해석해 주며 그들이 로동 계급 사상으로 무장하고 흥미와 기쁨을 가지고 직장에 안착하여 일하도록 방조해 주며 그들의 작업 조건, 생활 문제 등에 세심한 고려를 잊지말아야 한다. 청년들의 기술 기능 수준 제고를 위한 투쟁은 애국적 증산 경쟁 운동의 행정에서 전개되여야 하며 가장 주되는 경쟁 의무 조항으로서 간주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된다. 표준 조작법의 준수, 오작품의 퇴치, 사고 방지, 원자재의 애호 절약과 원가 저하, 로동 생산 능률의 향상과 새 로력 기준량의 창조 등을 위해서 애국적 경쟁의 불길을 높이는 것은 기술 기능 수준의 향상과 밀접히 관련되여 있다.

끝으로 기술 기능 수준 제고를 위한 투쟁은 생산 문화 수립을 위한 투쟁과 분리할 수 없다. 작업에서의 정연한 규률과 질서를 확립하며 작업 환경의 깨끗한 정리 등을 일상 생활 습성으로 삼아야 하며 또한 문화 기술적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우리는 고도의 생산 문화를 실질적으로 수립해야겠다.

당과 정부와 경애하는 수령은 우리 젊은 세대들의 문화, 기술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심중한 배려와 온갖 유리한 조건들을 지여주고 있다.

우리는 기술 습득을 위한 대중적 행군을 조직하는 행정에서 항상 위대한 쏘련을 향하여 배우라는 수령의 교시에 충직해야 한다. 동맹 단체들과 민청원들은 낡은 기술, 낡은 경험을 청산 못하는 온갖 보수주의와 낡아빠진 침체적 현상들을 견결히 반대 투쟁하며 급속한 시일내에 전체 청년들이 자기의 기술 기능 급수를 한급씩 높이도록 애국적 운동을 인내성 있게 용감하고 성실하고 열정을 기울여 조직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생산 기술 인재 양성에 대한 당과 수령의 배려에 보답할 수 있으며 우리 나라 장래 공업화를 위한 기술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으며 三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 및 초과 완수함에 우리 민청원들과 청년들이 모범적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

청년들이여! 미래 조선의 믿음직한 주인공이 되려거든, 인민 경제 계획 실행에서 승리자가 되려거든 과학과 기술의 요새를 향하여 모두다 힘차게 앞으로!

승리의 기록

—조국 해방 전쟁 기념관에서—

사진 • 리 종 록
글 • 박 근

조국 해방 전쟁 기념관 입구에 들어서면 누구나 우미한 조각과 화려한 각종 모양과 전등으로 장식된 등탑과 승리의 문과 그 뒤에 독수리를 밟고 성조기를 짓누른 강철의 조선 인민군 용사가 월계수를 들고 선 커다란 조각을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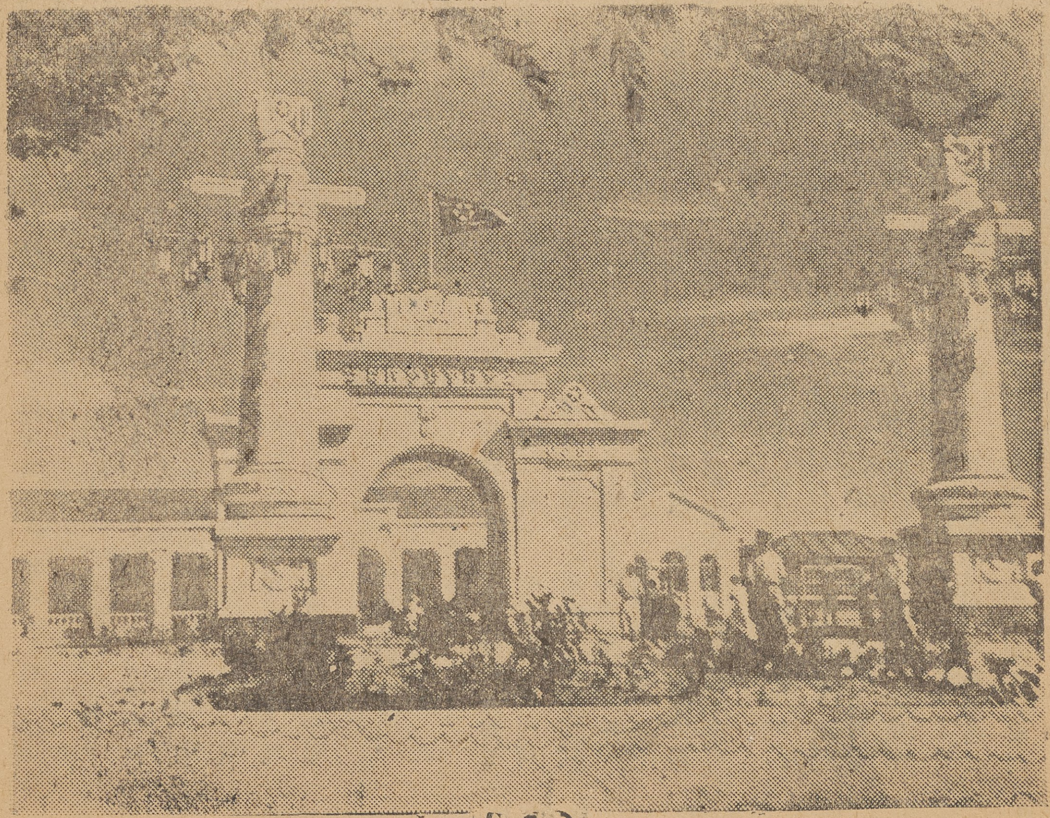
승리의 문 위에는 무진장한 힘을 자랑하는 승리한 조선 인민의 자부이며 기개인 양 공화국 깃발이 八월의 창공 높이 휘날리고 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자랑스러운 광경에 황홀해지면서 영웅관에서 작전관으로 발길을 옮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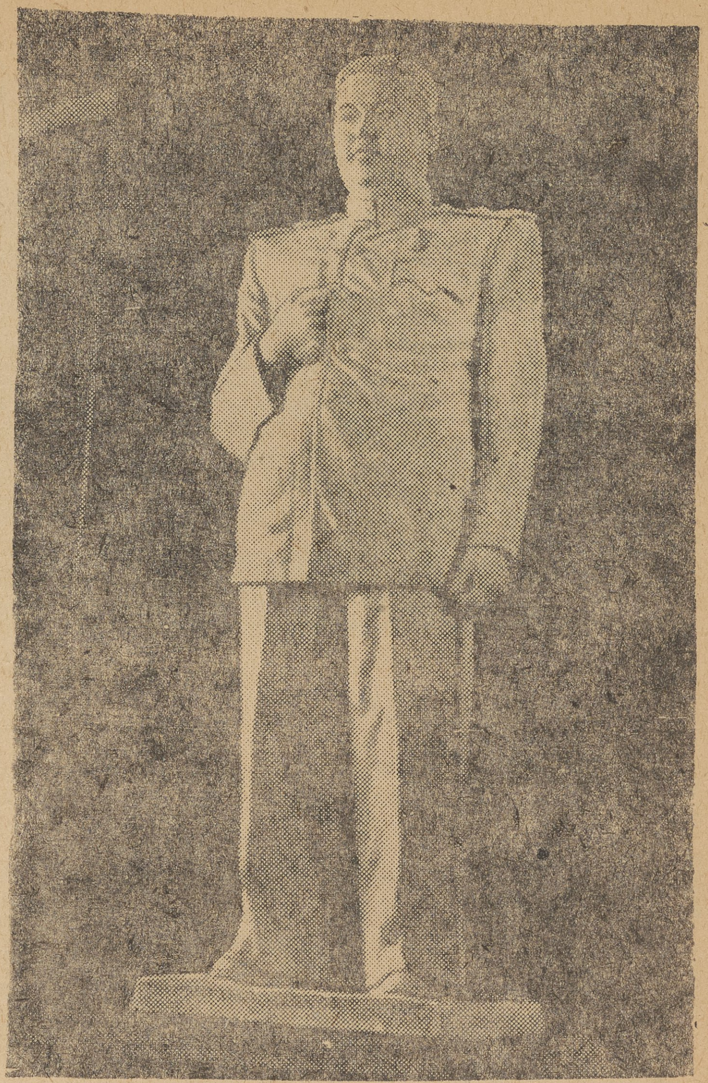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에서 미 제국주의 침략 도배들의 유생 력량 一〇九만을 소탕케 한 최고 사령관 김일성 원수의 위대한 작전 예술에 다시금 탐복하면서 당 정치 문화 사업관에 들어선다

『조선 로동당은 조선 인민군의 창건자이며 교양자이다』라는 커다란 표어판 앞에 서면 첫째로 우리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것은 피 묻은 당증과 맹원증들이다. 전투 승리를 보장한 당 정치 사업의 전모를 이야기하여 주는 이곳을 지나면 형제적 중국 인민 지원군관 및 항공관, 해군관 등 기타 각 병종관들을 참관하게 된다

영웅관에서

영웅관에는 김일성 원수의 항일 유격 투쟁 시대와 해방 후 공화국





☆ 김일성 원수의 립상 ☆

창건 시기 및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시기의 거대한 투쟁 업적들을 형상화 한 수다한 미술 작품, 사진, 조각, 사판들이 있으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二중 영웅 방호산, 리학문, 백사순, 김기우, 백명기 외 四七六명의 공화국 영웅들의 사진과 그들의 사적을 전시한 회화, 조각 및 각종 유물들이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의 지난 시기를 이야기하여 주는 수령실에 들어서면 먼저 김일성 원수의 립상 조각을 보게 된다 한 가운데는 김일성 원수의 고향인 만경대 사판이 있고 주위에는 수령의 소년 시절을 이야기하는 사진들과 두만강을 금시에 넘으시려는 수령의 소년 시절을 형상화 한 유화와 수령께서 다니시던 중학교 교사와 교실을 촬영한 사진은 청년들에게 맑쓰—레닌주의를 선전하는 수령의 청년』 시절을 형상화한 유화가 있다

항일빨찌산 투쟁 시기의 김일성 원수에 관한 모든 전시품, 일제 강점배들을 전률케 한 보천보 전투 및 기타 수 많은 전투들에 관한 사판과 그를 직접 지휘하고 계시는 김일성 원수의 모습을 그린 유화들은 특히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격동시킨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전설적 영웅이신 영광스러운 우리의 수령 김일성 원수의 거대한 위업들에 깊은 감명을 느끼며 민족적 긍지감을 더욱 높이게 된다

다시 전투 영웅들의 전투 사적을 전시한 방으로 걸음을 옮기면 맨 처음 강호영 영웅을 형상화 한 조각에 강한 충동을 받게 된다 두 다리와 바른 팔을 잃고 왼 팔을 부상당한 강호영 영웅이 수류탄을 입에 물고 적진에 뛰여 들어 갈려는 장렬한 최후 순간을 형상화 한 조각이다

그는 동지들이 후송될 것을 권고하였을 때 『나에게는 아직도 한 팔과 입이 남아 있다 전우들과 나의 고지를 두고서 나는 일보도 떠날 수 없다 나는 아직도 싸울 수 있다』라고 웨쳤다

이와 같은 해설자의 설명을 듣는 수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구슬같은 이슬이 맺

히는 것이였다

주먹으로 뜨거운 눈시울을 닦고 시선을 옮기면 피끓는 가슴으로 적의 화구를 막은 신기철 영웅의 수첩에 씌여진 수기에서 더욱 높은 충동을 받는다

「나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장군의 충직한 아들이 되련다

조국의 독립— 이것은 인민의 희망 화선의 동무들! 사랑하는 전우들! 미제 침략자들과 리승만 도당들을 용서치 말라! 만일 내가 죽으면 나의 피 묻은 당증을 우리 당 중앙 위원회에 잘 싸웠다고 전해 달라!」



☆ 수류탄을입에물고 적진에뛰여들려는 강호영영웅

「이 고지는 나의 고지이다 조국의 고지는 많으나 내가 물러설 고지는 없다」

이렇게 고지에서 한 발자욱도 물러서지 않은 한계렬 영웅의 장한 모습을 형상화한 유화도 보게 된다 그와 나란히 조선 전선에서 영세 불멸의 공훈을 세운 중국 인민 지원군 五四명의 영웅들의 초상 및 그들의 전투 자적을 형상한 유화와 사진들이 있다

이곳 각 진렬장들에는 수많은 전투 영웅들과 모범 전투원들이 남긴 유물— 피에 젖은 군복, 젊은 심장의 피로써 물든 수첩, 미제의 공중 강도배들 一二대나 추락시킨 二중 영웅 김기우 동지가 쓰던 중기 등 하나 하나 격동되는 흥분을 금할 수 없는 수 많은 물품들이 진렬되여 있다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머리 숙여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그들이 남긴 영세 불멸의 업적과 위훈에 다시 더 한번 심장에서 솟구치는 감사를 드디며 사람들은 다음 칸으로 발길을 옮긴다



☆ 신기철 영웅

그 이름 빛나라 一·二一一 고지

一·二一一 고지 전투는 조국 해방 전쟁의 어느 전투장보다도 가장 가렬하였다 하루에도 수천 수만발의 적의 포탄과 폭탄이 작렬하여 고지의 초목은 물론 흙

과 바위 마저 불타 버렸다

발길을 옮겨 一·二一一 고지 용사들의 생활을 소개하는 실로 찾아가면 누구나가 「과연 영웅들이다!」라는 찬사 한마디에 말문이 막힌다 수척 지하에 차려진 그들의 병실이며 취사장, 생활 필수품을 자기들의 손으로 제작한 야장깐, 목욕탕, 건조실, 전국실, 기계망, 콩나물 공장 등이 있다



☆ 1,211고지에서의 최후의 섬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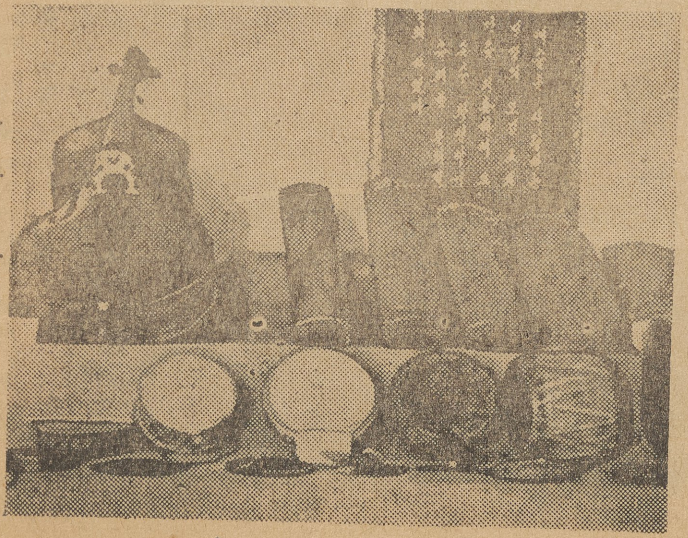
그들은 一·二一一 고지에 흔한 참나무 껍질을 리용하여 노전을 짰으며 그것으로 벽을 장식했고 구호판, 전투 소보판 등을 만들었다 또한 종이가 그리웁던 전투 시기에는 봇나무 껍질로 정치 상학 노트, 전투 소보, 벽보 등을 만들었다 그들은 하나에서 열까지 자체 해결이였다

그들은 그렇게 가렬하던 지난 전투 시기에도 문화적인 생활을 지극히 사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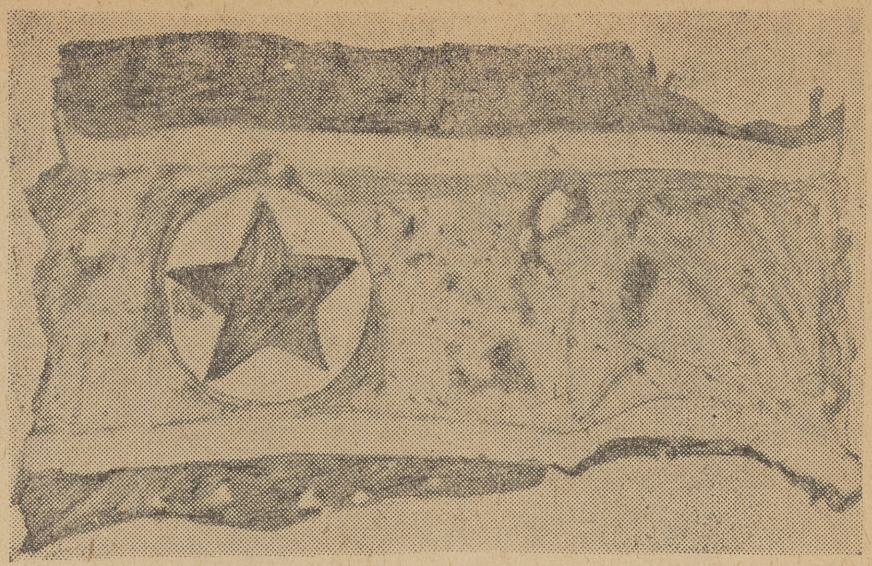
그들은 식기, 꽃병, 담배 재털이, 수저, 책상 등을 나무로 파서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일시적 요구에 충족시킨 것이 아니라 훌륭한 공예품들이다

그들은 유쾌하고 명랑한 생활을 사랑했다

그들은 적의 포탄 깍지, 쌕쌔기의 날개쪽지, 적의 통신선, 一·二一一 고지에 흔히 있는 오동 나무, 소나무, 박달 나무 등을 리용하여 훌륭한 화선 악기들을 만들었다 북, 장단, 바이오링, 첼로, 만도링, 가야금, 해금, 피리 등은 훌륭히 자기들의 오락을 즐길 수 있는 악기들이다 이와 같은 그들의 첫 봉화는 전 인민군적으로 퍼졌으며 부대내 군중 문화 교양 사업 발전에 일대 선풍을 일으켰다 그들의 이와 같은 생활은 조선 인민군의 불패의 영웅성과 완강성 그리고 고상한 도덕적 품성과 문화적 소양을 똑똑히 보여 주고 있다



☆ 화선 악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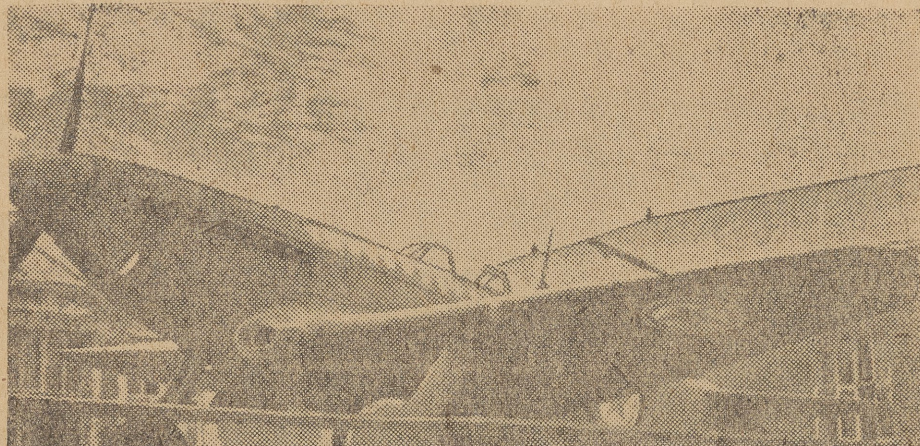
☆ 一二一一고지에 휘날리던 공화국기

항공관, 해군관에서

항공관에 전시된 모든 것들은 조국 해방 전쟁 행정에서 조선 인민군 항공력이 얼마나 장성 강화되였는가를 보여준다 관내에는 우리 항공 부대가 가지고 있는 최신예기들의 모형들, 우리 매들이 위훈 세운 수많은 공중전에서 가장 통쾌한 장면들을 그린 유화, 용감하고 능숙한 고등 비행술을 뵈여 주는 쳇트들이 진렬되여 있다

우리의 용감한 매들은 공중전에서 『비二一九』 九대를 비롯한 적들의 『최신예기』들인 에프 八六、에프 八四 등 전투기를 포함한 一四七대를 격추 격상하였으며 구축함 四척을 비롯한 각종 비행기 二八二대와 기타 수 많은 목표물들을 폭파하였다 특히 一九五〇년 六월 三〇일에 진행한 수원 비행장 폭격 전투는 호언 장담하던 놈들을 전률케 하였으며 공화국 영웅 김기옥 비행사는 추격기로써 三〇여차에 걸치는 전투를 진행하여 미제의 공중 비적 『비 二九』 二대를 포함한 각종 전투기 一一대를 격추시켰다

해군관에는 임진 조국 전쟁 시기의 리순신 장군의 영용한 모습과 四척의 어뢰정으로 적순양함을 격파한 적군을 어뢰정대의 매우 무용한 모습을 그린 유화가 있다



☆ 김기옥 영웅이 조종하던 수뢰기

중국 인민 지원군관에서

중국 인민 지원군 용사들은 조선 인민군의 진정한 전우이다 중국 인민 지원군관은 조선 전선에서 발휘한 그들의 영웅성과 용감성 그리고 고상한 도덕적 품성을 남김 없이 뵈여 준다

지원군 용사들은 조선 전선에서 실로 평양에서 북경에 이르는 거리에 해당하는 一、二五〇키로 메터의 갱도를 굴설하였고 만리 장성의 二・五배에 해당하는 참호와 교통호를 굴착하였으며 一립방메터의 뚝으로 쌓으면 지구를 한바퀴 반을 도는 각종 엄폐부를 설치하였다 이와 같이 영용한 중국 인민 지원군의 전투를 전형적으로 대표하는 상감령 전투는 우리에게 더욱 깊은 감명을 준다

원쑤들은 소위 『금화 공세』를 떠벌이면서 전선의 참패를 회복하기 위하여 一九五二년 一〇월에 새로운 공세를 취하였다 놈들은 불과 四평방 메터밖에 안되는 이 고지에 六만의 대군을 투입하고 백대 이상의 비행기와 대구경포、땅크 등을 동원하였다 놈들은 하루에 三〇만발의 포탄을 퍼부며 발악하였으나 四三일간에 二만五천四백 여명의 유생 력량을 소멸당하고도 고지의 一각도 얻지 못하였다

국제주의 정신으로 고수한 자랑의 봉우리 상감령 용사들과 전체 중국 인민 지원군 용사들의 이름은 조선 인민과 함께 영생 불멸하리라!

※ ※



☆ 중국 인민 지원군 용사들의 상감령 전투

이외에도 조국 해방 전쟁 기념관에는 미 제국주의 침략 군대로부터 로획한 수 많은 군사 기재들이 진렬되여 있다

영용 무쌍한 우리 용사들은 지난 三년여의 기간에 적 땅크 三七四대、자동차 九、二三九대、장갑차 一四六대、비행기 一一대、각종포 六、三二一문、기타 수 많은 전투 기재들을 로획하였으며 땅크 二、六九〇대、자동차 四、一一一대、각종포 一、三七四문을 격상 격파하였으며 적 함선 一六四척을 격침하고 九三척을 격파하였다

또한 적기 五、七二九대를 격추하고 六、四八四대를 격상하였다 조선 인민군의 이와 같은 승리의 기록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것 없이 놈들이 자랑하던 소위 기술적 우세와 호언장담하던 『세계 최강』의 신화는 산산히 부서졌다는 것을 더욱 똑똑히 알게 된다 이 모든 전람품을 관람한 군중들은 조선 인민 군대의 고상한 도덕적 품성과 정신 상태에 더욱 감개 무량하여진다 사람들은 찬란한 승리의 기록에 더욱 높은 민족적 자부와 공지를 지니며 공화국기 찬란히 휘날리는 승리의 문을 나선다

인민 위원회는 진정한 인민 정권 기관이다

김 상 현

조선 인민과 청년들은 높은 민족적 긍지감으로 영광스러운 자기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창건 六주년을 기념한다.

조선 인민과 청년들은 자기의 모든 열정과 지혜와 애국적 충성을 영광스러운 자기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륭성 발전을 위하여 바치고 있다.

그것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조선 인민의 행복의 상징이며 투쟁의 기치인 까닭이다.

근 반세기 동안 조국을 잃고 식민지 노예의 쓰라린 고통과 신음을 체험한 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에게 있어서 조국—이것이야 말로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하고도 고귀한 것이다.

인민 공화국의 창건 전후를 불문하고 우리 나라에 수립된 인민 정권은 조선 인민의 지도적 향도적 력량인 조선 로동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가 제시하는 정확한 로선을 따라 인민의 복리 향상과 부강한 조국을 건설하기 위한 제반 정책을 실시하여 빛나는 업적을 거두었으며 대외적으로 쏘련을 위시한 전 세계 자유 애호 인민들과의 외교 및 경제 문화적 관계를 설정하고 세계 평화와 민주 진영의 튼튼한 일원으로서 자기의 위신을 제고하고 있다. 특히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 무력 침공자들을 반대하는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에서 조선 인민들이 쟁취한 위대한 승리는 우리 공화국의 위신을 더욱 제고시켰다.

영광스러운 우리 공화국은 진정한 인민의 나라이다. 우리 나라에서 주권은 인민에게 속하고 있다.

우리 조국의 정치적 기초는 인민 위원회들이다.

인민 위원회들은 모든 국가 기관들의 체계에서 그의 골간으로 되고 있다.

인민 위원회들은 당과 수령의 옳바른 지도에 의하여 그 인민성과 전투적 기능이 제고되였으며 루차의 민주 선거에 의하여 일층 공고화 되고 민주화 되였다.

(一) 인민 위원회의 성격과 특징

그러면 인민 위원회들은 어떠한 성격을 가진 정권 기관이며 그의 기본적 특징은 무엇인가?

인민 위원회들의 성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인민의 정권 기관이라는데 있다.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정권 기관들은 근로 대중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것은 극 소수의 대 자본

가 및 지주들과 그들의 졸도들로써 구성되여 있다.

그러나 우리의 각급 인민 위원회들은 조선 인민의 절대 다수인 로동자, 농민, 근로 인테리 및 소 자산 계급을 포함한 광범한 인민들이 자기의 대표를 선출하여 조직한 진정한 인민의 정권 기관이며 수백만 근로자들의 정권 기관이다. 그런데 이 정권에서는 조선 인민 가운데서 가장 선진적 계급인 로동 계급이 령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로동 계급 령도 하의 로동 계급과 근로 농민과의 확고 부동한 동맹이 그 기초로 되고 있다.

우리의 인민 위원회들은 친일과 및 기타 제국주의 주구 민족 반역자들과 또한 제국주의의 세력을 부식하려는 지주 및 예속 자본가들에게 한하여서는 독재를 실시하며 인민 자체에 한하여서는 민주 제도를 실시한다.

우리의 인민 위원회들은 로동 계급 령도 하의 확고 부동한 로농 동맹에 기초를 두고 있는 전체 인민들의 정권 기관으로서 그는 조선 근로 인민 대중의 전투적 선봉대인 조선 로동당의 지도 하에 있다.

조선 로동당은 우리 나라의 지도적 향도적 력량으로서 우리 나라의 모든 국가적 사회적 조직들을 지도한다. 김일성 원수가 교시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국가 기관은 우리 당의 총 로선의 집행자이며 그 정책을 실시하는 수단』이다.

그런데 조선 로동당의 모든 정책은 그 어느 것을 막론하고 인민의 리익을 반영하며 그것을 옹호하는 것이다. 맑쓰—레닌주의 새 형의 당으로서의 조선 로동당은 백전 백승의 맑쓰—레닌주의의 리론과 객관적 경제 발전 법칙에 대한 심오한 지식에 기초하여 사회 발전의 요구와 인민의 근본적 리익을 반영하는 정책을 세우고 그것으로써 조선 인민의 투쟁의 앞길을 밝혀 주며 조국의 통일 독립과 인민의 자유, 행복을 위한 인민 위원회들의 투쟁 방향을 가르쳐 준다.

이리하여 인민 위원회들은 조선 로동당의 지도 하에 조국의 완전 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그리고 인민의 자유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진정한 조선 인민의 정권 기관이다.

우리의 인민 위원회들은 진정한 조선 인민의 정권 기관으로서 그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이 정권은 인민 자체가 자기 손으로 조직한 정권 기관이다.

자본주의 국가들에 있어서는 정권 기관들은 인민 대중에 의하여 조직되는 것이 아니라 극 소수의 지주, 자본가 등 착취자들에 의하여 조직되며 국가 정권 기관들은 인민들의 선거에 의하여 조직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죠아 정부에 의하여 임명된 관료들로 구성된다. 특히 지방 관리들은 거의 전부 임명제이다.

만약 선거에 의하여 정권 기관들이 조직된다 하더라도 그들의 선거 제도는 극히 비 민주주의적이며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선거권을 박탈 당한다.

례를 들어 미국에서는 재산 정도, 거주 년한, 지식 정도, 종교 및 신앙 등 등에 관하여 五〇여종의 각종 제한을 붙여 근로자들의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다. 이리하여 一九五二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二천 五백만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선거권을 박탈 당하였는바 이것은 전체 유권자의 四분의 一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인민 위원회들은 우리 인민의 자유 의사에 의하여 선거된 것이며 이 선거는 가장 민주주의적인 선거 원칙 즉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 원칙에 의하여 비밀 투표로써 선거된 정권 기관들이다. 매회의 인민 위원회들의 선거에는 유권자의 거의 一〇〇%가 참가하였으며 투표자의 거의 전부의 찬성 투표를 받은 대의원들로써 우리의 인민 위원회들은 구성되여 있다.

인민 위원회의 각 부서들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것들은 인민들에 의하여 직접 선거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인민들에 의하여 선거된 인민 위원회에서 조직한 기관들로써 그에 의하여 지도되며 그 앞에 책임을 지는 기관들이다.

둘째로, 우리의 인민 위원회들은 각계 각층의 광범한 인민의 대표들로 구성되여 있다.

자본주의 국가들에 있어서는 만약 정권 기관들이 선거에 의하여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공민들의 선거권은 백방으로 제한되여 있을 뿐만 아니라 피 선거권은 그보다도 더 잡다한 조건으로 제한되여 있다.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에 있어서는 정권 기관들의 선거에 있어서 립후보자로 등록되기 위하여서는 많은 세금을 바치며 막대한 금액의 보증금을 낼 수 있는 자 즉 지주나 자본가라야 한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은 도저히 립후보로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정권 기관들은 지주나 자본가들에 의하여 독점되며 거기에는 근로자들의 대표는 전혀 없거나 혹은 거의 없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선거권이 있는 모든 공민들은 피선거권이 있으며 어떠한 주권 기관에든지 피선될 수 있다. 그 결과 우리의 각급 인민 위원회들은 조선 인민의 각계 각층 특히 광범한 근로 인민의 대표들로 구성되여 있으며 이것이 또한 우리 인민 위원회들의 기본적 특징 중의 하나이다.

세째로, 우리의 인민 위원회들은 인민에게 복무하며 인민 앞에 책임을 지는 정권 기관이다.

자본주의 국가들에 있어서 정권 기관들은 인민의 머리 위에 서서 인민을 지배하면서 인민에게 명령하고 호령하는 기관이며 그 대의원들은 선거자들 앞에서 자기 사업에 대하여 보고할 의무가 없으며 그 앞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선거자들은 자기들이 선출한 대의원을 임기 전에 소환할 수 없으며 그들의 사업을 감독할 권리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대의원들은 선거자들 앞에서 자기 사업 활동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그 앞에서 책임을 진다. 인민들은 선거자로서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그 신임을 잃은 경우에는 임기 전에 소환할 수 있다.

네째로, 우리의 인민 위원회들은 자기 사업에 광범한 인민 대중을 직접 간접으로 참가시키면서 사업한다.

자본주의 국가들에 있어서는 정권 기관들의 일상적 사업에 인민 대중이 참가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한다. 그러나 우리의 인민 위원회들은 자기 사업에 광범한 인민 대중을 직접, 간접으로 참가시키면서 인민 대중 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 사업하는 정권 기관이다. 우리 나라 헌법 제八一조는 『각급 인민 위원회는 자기 임무를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항상 지방 인민들을 광범히 참가하게 하며 그들의 창발력에 치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조선 로동당에 의하여 지도되는 인민 위원회들의 모든 정책은 그 어느 것을 막론하고 모두 인민의 리익을 반영하는 것인 것만큼 인민 대중은 인민 위원회의 모든 정책을 지지하며 그 사업을 적극 방조하면서 그 사업에 참가한다. 인민 위원회들은 인민 대중의 적극적인 방조가 없이는 자기 사업을 성과 있게 수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민 위원회들은 항상 인민에 의거하여 사업하며 조국 전선과 그 산하에 망라된 직업 동맹, 농민 동맹, 민청, 녀맹 등 각종 사회 단체를 통하여 방역 위원회, 현물세 판정 위원회, 리 지방림 관리 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통하여 그리고 또 인민반을 통하여 최대 한도로 많은 인민들을 자기 사업에 참가시킨다.

二、인민 위원회들은 인민의 리익의 충직한 옹호자이다

우리의 인민 위원회들은 인민의 리익의 충직한 옹호자로서 당과 수령의 옳바른 지도 하에 조국의 완전 독립과 인민의 자유 행복을 위한 거대한 혁명적 창조적 사업들을 수행하여 왔다.

인민 위원회들은 조선 인민의 극악한 적인 친일파, 친미파, 민족 반역자들과 지주 및 예속 자본가들의 반항을 진압하면서 토지 개혁, 중요 산업 국유화를 비롯한 제반 민주 개혁을 실시하고 그 기초 위에서 루차의 인민 경제 계획의 완수 및 초과 완수를 보장하였다. 그리하여 인민 위원회들은 인민의 물질 문화 수준을 급격히 향상시켰으며 우리 조국 북반부에 조국의 완전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튼튼한 정치, 경제적 토대를 구축하여 우리 조국 북반부를 철벽의 민주 기지로 전변시켰다.

이리하여 『쏘련 군대에 의하여 조선이 해방된 후 미제국주의자들의 조종 하에 전쟁을 도발한 리승만 도당의 무력 침공이 시작되기까지의 기간은 조선 력사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기간이였으며 실로 길지 않은 황금 시대였다.

해방된 조선 인민은 五년 동안에 물질적, 정신적 복리를 지난 수천년간 보다 더 많이 누리고 있었다』(김일성)

조선 인민을 다시 식민지 노예로 만들려는 미제와 리승만 도당들의 무력 침공이 시작되자 인민 위원회들은 전체 인민들을 무력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영웅적 투쟁에로 고무 추동하고 조직 동원하였으며 그리하여 조선 인민이 쟁취한 위대한 민주 개혁의 제 성과들과 민주 기지를 적들의 침해로부터 수호하였다.

인민 위원회들은 자기의 거대한 생활력과 확고 부동한 견고성을 유감 없이 발휘하면서 어려운 전쟁 조건 하에서도 군수 생산을 보장하여 전선의 수요를 충족시켰으며 인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며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였다.

전후 시기에 있어서 인민 위원회들은 민주 기지 강화를 위한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에로 전체 인민을 조직 동원하고 있으며 벌써 거대한 성과들을 달성하였다. 인민 위원회들은 전쟁으로 인하여 파괴된 인민 경제를 급속도로 복구 건설하고 있으며 인민 생활을 안정 향상시키고 있다.

현 단계에 있어서 조선 인민의 최대의 희망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며 부강한 민주주의 자주 독립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 단계에 있어서 인민 위원회들의 기본 임무는 조국 전선 산하 국내의 전체 애국적 민주 력량을 자기의 주위에 집결하여 가지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인민 경제를 급속히 복구 발전시키며 우리 나라의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며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안정 향상시키며 조선 인민이 쟁취한 인민 민주 제도를 일층 강화 발전시키며 민주 기지를 튼튼히 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민 위원회들이 제시한 모든 과업들은 그 어느 것을 막론하고 모두가 조국과 인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것을 자각적으로 실행하여야 하며 그 사업을 백방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그 사업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당과 수령과 인민 정권 기관들의 지도 하에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 계획을 완수 및 초과 완수함으로써 민주 기지를 강화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위업을 달성 하여야 할 것이다.

담화자료

유일 관리제란 무엇인가

남 춘 화

一、유일 관리제란 무엇인가?

유일 관리제는 사회주의 및 인민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국가 기업 및 국가 기관의 기본적 지도 방법이다。

유일 관리제에 의하여 지도되는 기업 및 기관 지도자는 국가가 그에게 위임한 사업에 대하여 국가앞에 개별적 책임을 진다。 또한 유일 관리제 기업 및 기관 일군들은 유일 관리 책임자의 지도에 복종하여야 하며 그의 사업에 간섭하지 못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는 유일 관리제의 본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유일 관리제란 무엇인가、유일 관리제 ― 이것은 무엇보다도 지도자의 수중에의 전 관리 계통의 집중을 의미하며 위임된 사업에 대한 개별적 책임성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 관리제의 본질은 사업을 관리、조직、통제하며 옳은 지시를 주며 결산 및 보고를 요구하며 사업에 있어서의 무책임성과 비조직성과 비규률성을 제거함에 있습니다』

김일성 원수의 교시에서 명백한 바와 같이 유일 관리제는 무엇보다 지도자의 사업상 엄격한 책임성을 요구한다。

국가는 유일 관리제 책임자에게 국가 재산을 위임하고 그에게 생산 및 건설 계획과 행정적 과업의 실행을 책임지웠다。 유일 관리제 책임자는 자기가 위임 받은 재산과 국가 과제를 일군들을 추동하여 실행하는바 여기서 사업의 성과는 지도자의 역할 여하에 크게 관계된다。

그러면 유일 관리 책임자들의 사업상 엄격한 책임성은 무엇으로써 판정되는가。

그것은 유일 관리 책임자가 국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며 국가 계획을 어떻게 실행하며 국가와 인민에게 얼마나 리익을 주는가로써 판정된다。 때문에 책임성 있게 사업하려는 지도자는 응당 생산 및 경리 기술을 알며、 기업 및 기관의 정형에 정통하며、 정확한 계획을 세우고、 매개 부서들과 간부들에게 분공을 옳게 주고 검열하여야 하며 당단체들과 근로 단체들에 의거하여 근로

자들의 애국적 열성을 발동시켜야 한다。

유일 관리제는 책임자의 사업상 엄격한 책임성과 함께 책임자의 지시에 대한 일군들의 엄격한 복종성을 요구한다。

유일 관리 책임자에 대한 일군들의 복종성은 우선 직장에서 고상한 규률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어떠한 사회를 막론하고 그 사회의 생산 관계를 반영하는 로동 규률이 존재한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이루어지는 계급 사회에서의 로동 규률은 소수 착취 계급이 피착취 계급에 대하여 강요하는 규률이다。 쏘련 및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는 계급 사회와는 판이한 새로운 로동 규률이 존재하는바 이 새로운 로동 규률은 자각적인 규률로써 특징된다。

이와 같은 자각적인 로동 규률은 저절로 또한 일조 일석에 창조될 수 없다。 이 새로운 로동 규률은 지주와 자본가들의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선진적 근로자들의 자발적 참가와 협조 하에 당과 국가의 체계적인 해설과 설복의 방법으로써 창조된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로동 규률의 창조가 아무런 강제 없이 이루어 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태만분자、절도、사기한들에 대하여 국가는 징벌 기타 강제적 방법도 사용하여 그들을 새로운 규률의 길로 인도한다。

새로운 로동 규률을 위하여서는 혁명의 리익에 충실하며 당과 국가적 립장에 튼튼히 선 선진적 근로자에 의거하면서 근로자 대중을 국가 과제의 정확한 수행을 책임진 유일 관리 책임자의 지도에 복종시키는 질서가 엄수되여야 한다。

이 질서가 보장되는 경우라야 국가 계획은 정확히 실행될 수 있으며 상부의 지시를 하부에서 깔아 없애거나 제멋대로 처리하거나 사업에서 일군들이 태공하며 과오를 범하는 일을 근절할 수가 있다。

유일 관리제는 지도에서의 집체성과 지도자와 대중의 산 련계、대중의 생산 관리에의 적극적 참가、 생산 및 관리 사업에 대한 당 단체의 당적 지도를 부인하지 않는다。 유일 관리제 책임자는 기업 및 기관 사업의 성과적 보장을 위하여 선진적 근로자에 의거하며 그들을 사업에 적극 인입하고 그들의 창의 창발성을 자극하며 특히 당 단체들의 당적 지도에 충실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 일군들은 자기를 군중의 위에 선 혹은 자기는 마치 군중과 보통 일꾼들의 사회적 통제로부터 해방된 인물인 것처럼 자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二、유일관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무엇이필요한가?

이상에서 우리는 유일 관리제란 무엇인가를 대체로 알았다。 이 유일 관리제 없이는 사회주의 기업 기관을 질서 정연하게 지도해 낼수 없으며 로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할 수 없으며 사회 재산을 효과적으로 책임성 있게 리용하고 그를 증대시킬수 없는 까닭에 쏘련은 그의 정권이 창건된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의 강화를 위하여 투쟁하였다。

조선 인민은 인민 정권의 수립과 민주 개혁의 결과 인민의 소유로된 국영 기업을 급속한 시일 내에 복구 발전시킴에 있어서 유일 관리제를 강화할데 대한 김일성 원수의 교시에 충실하여 왔다。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의 장엄한 투쟁은 우리의 산업、운수 부문에서 유일 관리제를 가일층 강화할데 대한 과업을 제기하고 있다。

김일성 원수가 로동당 중앙 위원회 三월 전원회의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일부 생산성 및 국들과 기업소들에서는 아직 유일관리제가 잘 준수되지 못하고 무질서와 무규률 상태가 흔히 지배하고 있다。 그것은 지도자의 지시가 중간에서 변경 의곡되며 지어 그것을 깔아 없애고 자의대로 처리하는데서와 자기가 책임진 사업에 대한 책임 회피와 전가가 허용되는 사실들로써 실증된다。

앞으로 이와 같은 현상들을 근절하고 유일 관리제를 일층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을 위하여 무엇보다 유일 관리 책임자의 맡은바 사업에 대한 책임성과 지도 수준을 높이는 문제가 중요하다。 유일 관리제 책임자들은 자기가 맡은바 사업에 정통하여야 한다。

그와 함께 사업에서 난관과 책임을 두려워하지 말며 특히 책임 회피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유일 관리제의 강화를 위하여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대중 속에 엄격한 로동 규률을 확립하는 것이다。 지도자의 사업상 지시와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며 로동에서 성의와 자기의 능력을 다하는 고상하고도 강철 같은 로동 규률을 조성함이 없이는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내부 자원의 동원、물자의 애호 절약、기업소의 수익성 제고 등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유일 관리제는 집체적 협의제를 배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적은 문제일찌라도 집체적 총명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고상한 작풍을 유일 관리자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직장들에서 많은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민주기지 강화를 위하여 자기의 노력과 지력을 다하고있다。

우리 나라의 민주 발전 속에서와 특히 전쟁의 불길 속에서 육성 단련된 수 많은 청년들이 오늘 기업소와 국가 기관의 지도 간부로 등용되고 있다。 우리는 이 젊은 세대를 건설과 로력에서 로동자들 속에서 모범이 되도록 더욱 힘 있게 교양하여야 할 것이다。

三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청년들 앞에는 다른 모든 중요한 과업과 함께 직장에서 유일 관리제를 강화할 것이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된다。

그 과업의 실현을 위하여 청년들은 직장에서 엄격한 규률과 생산 질서를 확립함에 있어서 선구자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직장 내 민청 단체들은 당 단체들의 지도하에 직맹 단체들과 협력하여 자기 맹원들속에 로동당 중앙 위원회 三월 전원 회의에서 진술한 김일성 원수의 교시를 더욱 깊이 해석 침투시키고 그의 실천을 위하여 총 력량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매개 민청원들과 민청 단체들은 유일 관리 책임자의 사업상 지시에 충실하며 그의 사업을 창의 창발성을 다하여 협조 보장할 것이다。 이와 같은 청년들의 자발적 참가 없이는 진정한 유일 관리제의 확립은 기대할 수없다。

공훈과 영예

쏘련 二중 영웅 상대장 웨 • 이 • 추이끄브

공훈이란 무엇인가? 나는 공훈과 영예에 대하여 희망치 않는 젊은 사람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이는 매개 사람들에게 있어서、특히 청년 시대에 있어서 모두 자연적으로 공상케 된다。

그러나 진정한 공훈을 무엇으로 이루어야 하는가를 매개 사람들 자신이 명백하게 말하지는 못한다。

고대 희랍에 게로쓰뜨라뜨란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아무것도 뛰여난 것이 없었고 역시 능력과 재능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영예롭게 되기를 열렬히 희망하였던 것이다。 그래 바로 이 희랍인은 어느날 밤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불질러 다 타버리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게로쓰뜨라뜨는 명성 높게 되였다。

그러나 그후 어떻게 되였는가? 오늘날까지도 그를『미치광이 게로쓰뜨라뜨』라고 부르고 있다。 사실 그의 행동은 미치광이 같은것 이였다。 왜냐하면 게로쓰뜨라뜨는 인간에게 리익을 가져다 줄 대신에 능숙한 기술자들의 손으로 건축된 전물을 불살라 버림으로써 그들에게 해독을 끼치였기 때문이다。

동무들은 물론 막씸 고리끼의 소설 단꼬에 관한 훌륭한 절설을 기억할 것이다。 이 전설에서는 캄캄한 밀림과 유독한 늪 속으로부터 출로를 찾은 사람들에 관하여 이야기 되고 있다。

암흑 속에서 그들은 길을 찾지 못하였다。 바로 이때에 단꼬란 소년이 자기의 가슴에서 심장을 꺼 내였는바 심장은 횃불과도 같이 그들에게 길을 밝혀 주었다。 비록 소년 단꼬는 죽었으나 사람들은 태양이 있는 광명한 세상에 나올수 있었다。 단꼬는 자기의 심장으로써 수백만 사람들의 심장들이 약동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진정으로 감동한 인민들은 그의 영웅적 공훈에 관한 전설을 만들었다。

이상에서 인용한 두가지 실례는 참다운 공훈과 진정한 영예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영예롭게 되려고 노력한다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인류와 인민과 조국에 대한 사랑、그리고 위대한 사상에 대한 충실성이 이를 낳게 하는 것이다。

만일 인간이 고상한 도덕적 품성들을 갖춘다면 어느때 어떠한 곤난이라도 그를 돌연히 장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장래 공훈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쓰딸린그라드 방어에 용감하게 나선 조국의 충직한 아들들인 쏘베트 병사들의 위훈은 나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최고 사령부의 명령은 다음과 같은 간단한 몇자였다. 『쓰딸린그라드를 적들이 강점함을 용납하지 말고 그것을 방어하시요—』

이때에 도시의 방어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볼가강 뒤에는 우리들이 한 걸음도 더 후퇴할 땅이 없다. 결사적으로 수호하자!』

쓰딸린그라드 사람들은 하루에 몇회나 적의 공격을 받았던가? 고 가끔 묻는 사람들이 있다. 십회나 이십회라고 말하여도 정확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한시도 그칠줄 모르는 가렬한 전투였다. 대지는 역시 포탄과 수류탄의 작렬과 폭탄 울림에 진동하였다. 철근 콩크리트 건물들이 파괴되였으며 엄폐부들이 무너졌다. 포연과 흑연은 낮을 밤과도 같이 어둡게 했고 광채를 잃은 태양은 가렬한 전장을 약하게 비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쓰딸린그라드의 근위병들은 도시를 사수하였으며 승리하였다.

전사로부터 장관에 이르기까지의 매개 병사들의 거대한 사기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대한 공적을 그들은 수행하였다.

여기에서는 쏘베트 인민들의 대중적 영웅주의와 그들의 훌륭한 품성들—집단주의적 감정, 동지적 우애, 호상원조, 확고 부동성 및 강의한 정신이 표현되였다.

다음과 같은 실례를 들어 보자—

어떤날 아침 파시스트들은 주밀한 준비하에 대 병력을 집결하여 우리의 박격포 중대의 전투 서렬을 공격하였다. 드디여 적들은 우리의 방어선을 뚫을 수가 있었다. 적에게 포위된 중사 류또브의 소대는 위협 당하게 되였다. 소 대장 대리인인 중사 류또브가 죽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대대 공청 위원회 비서인 아화 나쩨브가 이곳 화력진지로 달려 왔다. 그는 전투의 폭음을 뚫고 박격포 병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웨쳤다.

—전 세계는 우리를 주시하고 있소… 공청원들이여! 용감성과 강인성의 모범이 되시요!

그 자신도 직접 박격포병들과 함께 계속 공격하여 오는 히틀러 도배들을 사격하였으며 원형 방어를 조직하였다.

—『항복하라!』고 파시스트들은 그에게 소리쳤다.

—공청원들은 결코 포로로 되지 않는다—고 아화 나쩨브는 대답하였다.

공청원들은 쓰딸린그라드 부근 작전에서 이렇게 싸웠다. 즉 쏘베트 병사들은 위대한 조국 전쟁의 전 전선에 걸쳐서 이렇게 싸웠던 것이다.

위대한 조국 전쟁 시기에 나는 실로 참다운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을 여러번 목격할 수 있었다. 나는 그들 중 그 어느 한 사람에게서도 공포와 동요를 보지 못하였다. 가장 귀중한 자기의 쏘베트 조국—자기 부모, 형제, 자매들을 수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어려운 전투적 과업을 용감하게 집행하였던 것이다. 공산당과 공청은 그들에게 과감성, 용감성, 대담성, 그리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가장 고통스러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준비성들을 배양시켜 주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항상 공훈을 세울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또 이러한 사람들이 승리한 것은 당연하다—

『어떻게 자신의 공훈을 준비할 것인가? 자기의 의지를 어떻게 배양할 것인가?』—고 젊은 사람들은 질문할 것이다. 이것에 관해서는 준비된 조언이 없다. 나의 생각에는 다만 몇가지 의견을 내놓는 것이 좋을것 같다.

생활에서는 무엇이나 스스로 오지 않으며 또 로력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용감성은 어린 시절부터 배양하여야 하는바 그때엔 다만 그것이 흔히 말하듯이 『인간의 혈액속』에 있게 될 것이다. 만일 남녀 청년들이 약하게 자라나며 단련되지 못하고 곤난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그는 온상내 식물과 같이 도저히 용감하고 대담한 인간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용감성, 대담성, 과감성과 같은 그런 품성들을 자신이 배양함에 있어서 육체적 단련은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것 한가지만으로써는 안된다. 힘센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용감한 사람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용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힘있는 것도 필요하다. 이것은 공훈을 세우는데 그를 방조한다.

진정한 영웅은 응당 비상한 정신력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한다.

때문에 육체적 기질과 함께 도덕적 품성인—정직성, 고결성, 의무에 대한 충실성 및 대담성들을 발전시키며 완성시켜야만 하는 것이다.

물론 어떤 사람이나 본능상 어느 정도의 공포심은 다 가지고 있다. 그것은 자위적 본능으로부터 산생된다. 모든 문제는 사람들이 공포심을 어떻게 이겨내며 극복해 내는가에 있다.

—탄환은 용사들을 두려워하며
총창은 용사를 찌르지 못한다—

전쟁 시기에 알려진 노래에서는 이렇게 불리여지고 있다. 이 구절들은 우연히 인민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은 아니다.

이 구절들은 실질적 생활에 의하여 확증된 것이다.

나는 공민 전쟁 시기의 에피소드 하나를 다시 상기하게 된다. 백파군들은 우리의 방어선에 『정신적』 공격을 진행하였다. 뜻밖에 전투원들의 심장은 공포로 압축되게 되였다. 붉은 군대 기관총수는 아무리 애써도 그의 손이 떨리기 때문에 탄떠를 맞출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은 순간에 그가 만약에 사격을 개시하였다면 공연히 탄약만 랑비하였을 것이다.

즉 그때 적은 멀리 있었던 것이다. 이때 이것을 본 지휘관은 천천히 기관총 방수포를 깔고 앉아 막담배를 말아 피우기 시작하였다. 여기서의 그의 침착성은 주위의 전투원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결과 그들은 가까이 접근한 백파군들을 기관총 사격하여 전멸시킬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지휘관은 공포를 느끼지 않았다고 생각하겠는가? 물론 그도 느낀 것이였다. 그러나 의무감은 그가 타인들에게 침착성과 확신성을 주입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그에게 암시하였던 것이다.

침착한 용감성의 모범처럼 그 무엇이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단결시키지는 못한다.

그때 나는 一九세였다. 나는 련대장으로 있으면서 폭탄에 『굴복하지 않는 것을』 배워 주었다. 만약 자신이 옳게 행동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자기 손아귀에 틀어 쥘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지도자인 지휘관의 주요한 임무이다.

고통스러운 시련의 순간에 있어서 용감성과 정신의 견고성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정신적 품성들은 짧은 순간에 갑자기 표현된다. 그러나 이 품성들은 과거의 모든 인간 생활에 의하여 배양된 것이 표현된다.

일부 청년들은 용감한 것으로 이름을 날리는 것이 대단히 쉽다고 생각하고 있다. 즉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대선배들에게 란포하게 대하며 염체없이 말함으로써 자기가 강하고 지어는 철면피한 인간의 모양을 부리면 된다

고 한다。

이러한 젊은이들이 자라게 되면 그들은 술에 만취되여 거리에서 추태를 부리거나 혹은 싸움질을 시작하는 그런 특별한 멋을 가진 용감성을 찾아 내기 시작한다。이것은 가상적인 허위적 용감성인 것이다。파렴치한 자들과 호언 장담자들은 결정적 모멘트에 가서 비겁분자로 전락되는 것이 대단히 흔하다。그러나 심중하고 침착하고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실질적으로 용감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용감성이라고 해서 모두가 공훈을 세우는데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란포성과 무원칙한 용감성은 뚜렷한 목적과 엄밀한 타산과 승리에 대한 굳은 신념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여 있는 진정한 용감성과는 아무런 공통성도 없는 것이다。참다운 용감성—그것은 우선 규률이며 명령을 정확히 기한 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기능이다。규률은 용감성의 첫째가는 벗이며 해이성은 그의 첫째가는 적이다。오직 특출하게 되기 위하여서만 자기 가슴으로 탄알을 막는 그런 사람은 한푼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공훈은 눈을 꾹 감고 죽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을 타승하는데 있다。

나는 군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군인들의 용감성을 많이 말하였다。그러나 불멸의 위훈과 영웅주의는 전장에서와 전쟁 시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영예는 평화 시기 즉 매일 매일의 어려운 로동에서도 사람에게 돌아온다。일부 우울한 『랑만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진정한 용감성과 대담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가 멀리 지나간 것이 아니다。

엄한과 비 속에서 늪이 마를 정도로 무더운 더위 속에서 그리고 『소용 없는』 땅에서 풍작의 곡물을 재배하는 것—이것이 실로 공훈이 아니겠는가? 또한 장래 지하철도를 위하여 지하에 턴넬을 관통하는 것—이것이 실로 공훈이 아니겠는가。

여기에서 사람은 물기가 많은 진흙 또는 얼음 같이 찬 지하수와 투쟁하면서 화강암들을 뚫고 있다。우리의 건설자들은 이와 같은 용감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그들은 맨 처음으로 밀림 속에 와서 앞으로의 훌륭한 건물을 세우기 위한 터를 닦고 있으며 공장과 제조소를 건설하며 수력 발전소와 철도 및 교량들을 설치하고 있다。

식료품과 가장 필요한 물품들은 밀림 속으로 힘들게 운반하게 되였으며 편리한 생활은 급속히 이루어 지지 않았다。그러나 아무르 강변의 꼼쏘몰쓰크、마그니또고르쓰크、드네쁘르 수력 발전소、볼가—돈 건설자들의 영웅적 로력은 쏘베트 인민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

금년 봄에 전 국가는 새로운 영웅들을 알게 되였다。수천명의 공청원들이 처녀지와 황무지 개간에 가겠다고 서명하였다。그들은 고통스럽지 않을 것인가? 물론 고통스럽다。심지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그러나 그들은 쏘베트 사람의 용감성을 발휘하면서 굴하지 않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아직 개척되지 않은 전야와 미지의 골짜기 및 산들 그리고 탐구되지 않은 깊은 바다들은 젊은 영웅들을 기다리고 있다。공훈—그것은 당신이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일한 모든 것—즉 소맥의 어린 모 한 폭을 심든가 하나의 보섭을 만들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써 이루어 진 것이다。

『스메나』 一九五四년 九호에서

(김 경 식 역)

우리 조국의 지도 앞에서 (제三회)

박 상

함 경 북 도

一、지리적 조건

면적 함경북도의 면적은 二만 평방키로 메터인바 이것은 조선의 총 면적의 九·二%에 해당한다。

행정 구역은 三시、一九읍、二二군으로 구분되여 있다。

지형 지형은 전도에 걸쳐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해안선에 이르기까지 높은 산들과 고원들로써 펴져있는 것이 특징이다。

서쪽에 남북으로 뻗은 마천령 산맥은 높이가 약 二、〇〇〇메터이며 그 중간쯤에서 동북쪽으로 우리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지대를 이룬 二천 수백 메터에 달하는 함경산맥이 도의 중심부를 달리고 있다。

함경 산맥에는 우리 나라에서 백두산의 다음가는 높은 산으로서 높이 二、五四一메터 되는 관모봉과 기타 고산들이 있다。

이러한 산들은 동해안 쪽으로 급한 비탈을 가지고 뻗어 있으며 다만 북쪽 두만강을 향하여도 경사가 느려서 무산 고원이라는 고원 지대를 이루고 있다。

함경북도의 특수한 지형으로서 마천령 산맥의 동쪽에 백두산에서부터 남으로 길게 뻗은 화산암 지대가 있다。이 지대의 북쪽 해안 가까운 곳에 솟아 있는 기묘한 화산암으로된 칠보산(九〇六메터)은 명승지로 유명하다。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 三개년 계획에는 이 경치 좋은 칠보산에 휴양소를 건설할 것이 예견되여 있다。

다른 특수한 지형으로 칠보산과 마천령 산맥 사이에 땅이 길게 홈처럼 들어간 길주—명천 지구대가 있다。

이 길게 뻗은 저지의 남쪽에 있는 길주는 지금으로부터 三六〇여년전 임진—조국 전쟁때에 애국자인 정문부를 대장으로 한 수 천명의 우리 의병 부대가 왜적의 대군과 영용한 전투를 진행한 력사적 유적지이다。

길주—명천 지구대의 서쪽에는 온천지가 많고 이 온천 지대는 북쪽으로 유명한 주을 온천에까지 뻗쳐 있다。주을 온천은 우리 나라의 여러 온천들 중에서도 물이 가장 덥고 또 량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하 함경북도의 강들은 높은 산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산맥들이 해안 가까이 까지 뻗어 있는 관계상 모두 짧고 물이 급히 흐른다。오직 북쪽 국경

에 우리 나라에서 세째로 긴 두만강이 흐르며 류역 저지에는 탄광 및 철광의 채굴과 제재업으로 발달한 소도시들이 많다. 그중 무산、회령、온성、경원、경흥 등은 옛날(리조 시대)『녀진』의 침공에 방비하여 六진을둔 곳으로서 유적들이 많으며 회령에는 운두성(오국성이라고도 한다)이라하여 四방 四○리 되는 옛날 돌로 싼 큰 성이 있다.

두만강 다음가는 강으로는 六七、四○○메터의 길이를 가진 수성천이 청진만으로 흘러 동해에 들고 있다. 그 하구에는 동북 지방의 제일 큰 도시이며 함경북도의 도 소재지로서 우리 나라의 중요한 항구중 하나인 청진이 있다.

청진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해안 저지에 있는 경성은 옛날 二○○여진을 통수한 관북(함경북도)의 요새지로서 일찌기 발달한 력사적인 성곽 도시이며 지금으로부터 八四○여년 전인 一一○七년 고려 시대에『녀진』을 격파한 기념으로 세운 원수대가 있다.

평야는 도내에서 비교적 크다고 하는 것으로서 수성천 일대의 수성 평야와 농성 평야가 있고 그외는 적은 강들과 해안선을 따라서 생긴 좁은 평지들로 되여 있다.

해안

해안선은 굴곡이 비교적 적고 단조하나 경사가 급한 지형상 관계로 수심이 깊으며 북쪽에서부터 웅기만、라진만、경성만、김책만 등 항만과 우리 나라의 중요한 항구들인 청진、웅기、김책시 등 큰 항구들이 집중하여 있다. 그중 김책시는 근래에 공업 도시로써 급속하게 발전한 항만 도시이다.

이러한 큰 항구들은 어항을 겸하여 있으며 해안선에는 도내 제일의 어항인 어대진을 비롯하여 해안선의 도시、농촌마다 어항 아닌 곳이 없고 각곳에 수산물 가공 공업이 발달되여 있다.

그리고 각 해안 도시와 대소 항구들은 배로써 뿐만 아니라 해안선을 따라 놓인 철도로써 련락되는데 라진과 웅기 사이에는 우리 나라에서 제일 긴 三、八五○메터의 장라 턴넬이 있다.

또한 동해안은 가는 곳마다 경치가 아름답다.

二、자연 부원

지하 자원

함경북도는 우리 나라에서 특히 철과 석탄의 중요한 산지이다. 북쪽 두만강 류역에 있는 우리 나라 제일의 무산 철산은 一三억톤 이상의 세계적인 매장량을 가진 대 자철 광산이다. 이곳에 묻혀 있는 철광의 량은 우리 나라의 전체 철 수요량을 이 한곳에서만 파내여 쓴다하여도 수백년 동안 갈 수 있는 것이다. 무산 철광을 원료로 하여 청진에 제철、제강 공업이 발달하고 있다.

도내의 철광 채굴과 선철 생산의 발전 전망은 三개년 인민 경제 복구 발전 계획에 의하여 一九五六년에 이르러 철광 채굴 四○만톤、선철 생산 一八만톤으로 제고될 것이다.

함경북도는 우리 나라의 석탄중 유연탄인 갈탄의

九○% 이상을 가지고 있다. 갈탄의 주산지로는 두만강 중류 일대、회령、경원、경흥、온성 등지에 큰 탄광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일대를 함북 탄전이라고 총칭한다. 유명한 아오지、유선、고건원 등 대 탄광들은 모두 이곳에 있다.

이곳에서 나는 갈탄은 특히 인조 석유 원료로서 적당하여 아오지에서는 해방 후 이 갈탄을 원료로 하여 인조 석유를 만들어 내였다. 이 일대의 석탄 총 매장량은 약 四억톤 이상이다.

이 밖에 도의 남쪽에 길주—명천 탄전이 있다.

함경북도 남부인 김책군과 길주군에는 우리 나라 四대 광물중 하나인 흑연이 풍부히 묻혀 있으며 김책군 부근은 또 대리석 산지로 유명하다. 그리고 경성、주을 일대는 고급 도자기 원료로서 특히 질이 좋은 고령토가 풍부히 묻혀 있는 곳으로 대 요업 공장이 있다.

또 김책군과 길주군에는 성냥 제조 공업과 린산 및 과린산 비료 원료로 되는 린회석과 칼리 장석이 풍부히 묻혀 있고 길주군 및 삼사군 일대에는 유색 경금속 광물로서 여러 방면에 쓰이는 귀중한 마그네슘의 원광인 마그네싸이트가 풍부히 묻혀 있다. 특히 이 마그네싸이트광은 그 질과 량에 있어서 세계 제일이다.

그리고 김책군、부령군 에는 특수광인 크롬광이 많이 묻혀 있다.

금 산지로는 청진 북쪽에 청암 광산이 있고 금、은、동광으로는 부령군의 락산 광산이 유명하다. 또한 길주군에는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큰 운모 산지로서 표수、림동 광산이 있고 유색 금속 광물인 하석(카리、소다 원료로서 중요한 것)이 무진장으로 묻혀 있다. 이외에도 함경북도에는 여러가지 귀중한 지하 자원들이 많은바 공업 지대로서의 발전에 풍부한 전망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전반적 인민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수력 자원

함경북도의 강들은 그 지형상 관계로 경사가 급하여 물살이 빠르다. 그러므로 수력을 리용하여 전기를 일으킬 수 있는 곳이 지금까지 조사된 것만도 도내에 대략 一七개소나 된다. 현재 완성된 수력 발전소로는 부령 발전소가 있다. 앞으로 두만강의 지류인 서두수에 三○만 키로왓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대 규모의 수력 발전소를 건설할 것이다.

농산 자원

함경북도의 지리와 기후적 조건은 농사에 있어서 감자와 콩을 재배하는데 적당하고 이밖에 조、모밀、강남콩、완두 등 잡곡들이 잘 된다.

도내 농업 생산의 전망은 三개년 인민 경제 계획에 의하여 一九五六년에 가서 알곡 총 수확량이 二五○、五○○톤、저류가 一四一、四○○톤에 달하게 될 것이다. 특히 해안 지대에서는 알이 크고 껍질이 얇고 품질이 좋은 우량품의 팥이 많이 난다.

어랑、길주 지방에서는 과수가 많이 재배되고 있는

에 一九五六년에 가서 과수원 면적은 九六五정보에 달하게 될 것이다。

축산업

한편 함경북도의 기후와 기타 조건은 목축업을 얼마든지 발전시킬수 있는 유리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면양 목축업에 적합하다。 공화국 정부에서는 이미 수년전부터 목축업에 유리한 미개발의 광대한 초원 지대를 개척하여 거대한 국영 목장을 설치하여 발전시키고 있다。 동시에 목축업에 적합한 지대들은 맥주 원료인 호프와 사탕무 재배에도 가장 적당한 곳으로서 앞으로 그의 전망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

림산 자원

함경북도의 많은 산 지대와 고원 지대는 천연의 삼림 지역을 이루고 있다。 특히 백두산 산록 지대와 두만강 류역、무산 고원 일대、함경산맥의 동쪽 사면은 광대한 림야를 이루어 본도는 함경남도、자강도 등과 함께 우리 나라 목재 생산의 무진장한 보고를 이루고 있다。 목재 생산의 발전 전망은 三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一九五六년에 가서 원목을 九五만 립방메터 생산할 것이다。

수산 자원

함경북도의 연해는 세계 三대 어장의 일부에 속하며 과거 우리 나라 수산 총액의 약 三〇%를 차지하리만치 수산 자원이 풍부한 지방이다。 해안에는 주로 북에서 한류가 흐르고 연해는 물이 깊어서 어족들이 모여들기에 적당하므로 한류성 어족이 많은 편이며 그중 특히 명태、청어、대구 등이 가장 많이 잡힌다。

三개년 인민 경제 계획에 의하여 본도의 어획고는 앞으로 一〇만 一、五〇〇톤을 생산하게 될 것이며 수산업과 동시에 해운업의 발전을 위하여 년간 九〇척의 조선 능력을 가진 청진 조선소가 복구 건설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쏘련의 원조에 의하여 청진에 해어 통조림 공장이 새로 설치될 것이 예견되고 있다。

함경북도는 우리 나라의 공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함 경 남 도

一、지리적 조건

면적

함경남도의 면적은 三一、九〇〇 평방 키로메터인바 이것은 조선의 총 면적의 一四•五%에 해당한다。 행정 구역은 二시、三〇읍、三二군으로 구분되여 있다。

지형

지형의 특징은 개마 고원이 주체가 되여 대부분은 산지 또는 고원 지대이고 해안에는 좁고 긴 해안 평야 지대가 펴져있는 것이다。 그 지형상 특징에 의하여 함경남도는 다시 지리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즉 개마 고원 지대、부전령 남쪽 해안 지대、영흥만 지대로 나눈다。 부전령 산맥은 병풍과 같은 단층 산맥인데 그 남쪽이

좁은 해안 지대로 되여 있다。 부전령 산맥 중에는 황초령(一、二〇〇메터)、부전령(一、四四五메터)、후치령(一、三三五메터) 등 높은 고개가 있다。

개마 고원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높고 넓은 고원 지대이다。 고원은 남쪽이 더 높고 북쪽이 낮으므로 이 일대에 근원을 둔 허천강、장진강、부전강 등 압록강의 지류들은 모두 북쪽을 향하여 흐르며 허천강 류역에는 삼수、갑산、풍산 등 산간 분지가 있고 장진강 류역에는 장진 분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지도 다른 지방에 비하여는 훨씬 높은 곳에 있다。 례로써 산간 분지인 풍산은 해발 一、〇〇〇메터 이상의 높이에 있다。

고원면은 대체로 산골짜기가 적고 비교적 평탄한 면이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원 지대에는 고산 식물로서 자양 음료의 원료로 되는 〃들쭉〃이 아름다운 숲을 지여 퍼져 있다。

이러한 고원 지대는 백두산과 압록강 류역 일대와 더불어 오랜 시기에 걸쳐 우리 인민의 애국적 반일 혁명 투쟁지로 되여 왔다。 북쪽 백두산 산록에는 一九三七년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께서 직접 일제 기관들을 습격 소탕하고 빛나는 승리를 거둔 보천보가 있고 남으로 내려와서 삼수、갑산 일대는 一九〇七년 이래 애국자 홍범도를 지도자로 하는 의병 부대가 근 一〇년에 걸쳐 피어린 반일 유격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또 그 남으로 있는 단천은 一九三〇년에 일제의 야만적 착취와 폭행을 반대하여 一만여명의 애국적 농민들이 일제의 무장 탄압을 박차고 영용한 항쟁을 전개한 곳이다。

개마 고원의 남쪽은 보통 고원면보다 五〇〇메터나 높은 산들이 마치 물결 모양으로 늘어져 있는데 그중 북수백산은 二、五二二메터로서 우리 나라 세째가는 높은 봉우리이며 차일봉은 네째번 가는 二、五〇六메터의 높이를 가진 산이다。

개마 고원은 또한 대 수력 발전소와 더불어 높은 고원면 위에 부전、장진 등 두개 큰 호수가 생기고 경치가 아름다운 곳으로서 우리 인민 정권은 해방 후 이곳에 근로자들의 즐거운 휴양소를 설치하였다。

강하

동해안으로 흘러드는 강들은 지형상 관계로 모두 길지 못하고 물살이 급하게 흐른다。 그중 북으로부터 처서 단천 남대천(一六一、四〇〇메터)、북청 남대천(六六•五〇〇메터)、성천강(九八、六〇〇메터)、금진강(四四、七五〇메터)、룡흥강(一三四、八〇〇메터) 등이 비교적 큰 강들이다。

성천강은 부전령 산맥에서 남으로 흐르는데 그 하류 삼각주에는 넓고 기름진 함흥 평야가 벌어져 있다。 그리고 이 평야에는 함흥、흥남 등 큰 도시가 있다。 함흥과 흥남의 일대에는 옛날 성벽과 경흥전 본궁 귀주사 등 력사적 명보 고적이 있다。

룡흥강 류역에는 영흥 평야가 벌어져 있고 그 중심지로서 영흥이 있다。 영흥은 옛날 『쌍성』이라 하여 오

랫동안 『원』 나라가 침입하여 있던 것을 고려、리조 시대에 걸쳐 여러 차례 우리 선조들이 『원』과 싸워 그를 물리치고 후에 영흥부로 하였다。 영흥에는 또 一八八八년에 리조 봉건 통치의 악정을 반대하는 농민 폭동과 一九二七년 일제 하에서의 흑연 광산 파업과 一九三一년 영흥 탄광 로동자들의 파업 투쟁 및 一九三〇년대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일어난 농민 운동 등 근로 인민들의 애국적이며 혁명적 투쟁이 수다히 전개된 곳이다。

해안

함경남도의 해안선은 동해안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매우 단조하고 대체로 물이 깊으나 도의 남쪽에 활모양으로 크게 굽어든 동 조선만과 함흥만이 있어 수심도 그다지 깊지 않고 해안선의 변화로 경치가 좋다。 특히 함흥만 북쪽에는 서호진이 있는데、흥남、함흥 공업 지대의 외항으로 되여 있고 해수욕장이 겸해 있는 해안 명승지로 유명하며 휴양소가 있다。

그리고 북으로 따라 올라가면서 려호와 톱날 같이 고불고불한 해안선이 길다랗게 휘여든 퇴조와 "문바위"의 경치가 있고 운룡과 홍원 부근에 이르러서 송도의 절경이 있고 그것을 지나 마양도를 앞에 바라보는 명태 잡이로 유명한 신포와 경포 등 아름다운 해안 풍경을 수다히 볼 수 있다。

二、자연 부원

지하 자원

함경남도에는 각종 귀중한 광물들이 지하에 많이 묻혀 있다。

도내 철의 산지로 유명한 리원 철산이 있다。 그 매장량은 五、〇〇〇만 톤이고 철분 함유량은 六〇%내외의 우량한 성분을 가지고 있다。 광석의 일부는 김책시에 있는 제강소에 보내고 일부는 직접 리원에서 제철한다。

철은 이 밖에도 단천、금동、북청、풍산 등지에서 난다。

석탄 산지로는 함흥 탄광(유연탄)이 있으며 고원 탄전에서 무연탄이 난다。

함경남도에는 함경북도와 잇달린 마천령 산맥 일대에 귀중한 마그네숨의 원료로 되는 마그네싸이트가 역시 무진장으로 묻혀 있으며 함경 북도의 것과 함께 그 품질과 광량에 있어서 세계 제일을 자랑하고 있다。 이 마그네싸이트의 함경남도쪽의 매장지는 단천군、광천군과 갑산、덕원 등지에도 묻혀 있다。

또 단천에는 신풍리에 과린산 석회 비료의 원료로 되는 품질 좋은 린회석광이 있다。

함경남도에서 금、은 광의 채굴은 오랜 력사를 가지고 있다。 즉 력사 자료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이미 五四〇여년 전인 一四一一년에 단천에서 금、은 광을 채굴하였으며 一七三四년에는 덕원에서 은광을 채굴하였다。

지금 금、은、동、연、아연을 캐내는 광산은 도내 도처에 있으며 그중 큰 것으로는 검덕、단천 광산이 특히 유명하고 금산지로서 영흥、신흥、장진 등、구리 산지로서 갑산 등이 알려져 있다。

그리고 류산과 류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유화철이 허천군과 혜산군에서 산출되고 토산 흑연의 산지로 영흥이 유명하다。

이 외에도 함경남도 일대에는 장진군의 탕크스텐、함흥 중심의 형석을 비롯하여 각지에 코발트、운모、하석、기타 등 여러가지 귀금속과 희유 금속광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외에 본도에서는 화학 공업에 의한 비료 생산이 크게 진행되여 우리 나라의 농촌 경리 발전에 거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바 三개년 계획을 완수하는 해인 一九五六년에는 화학 비료 생산을 六一、五〇〇톤에 달하게 발전시킬 것이다。

수력 자원

수력 자원이 풍부한 것은 함경남도의 자랑으로 되는 특색의 하나이다。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본도는 그 지형상 유리성으로서 수력에 의하여 발전이 가능한 곳이 三三개소나 되고 발전량은 적어도 九六만 키로 왓트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즉 우리 나라에서 가장 많은 발전 능력을 가지고 있다。

개마 고원에 근원을 두고 북으로 향하여 흐르는 허천강、부전강、장진강은 수량이 풍부하고 경사가 급하여 강들은 풍부한 수력 원천으로 되여 거대한 수력 발전소의 건설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리한 발전소들로부터 발전된 전력은 가까운 흥남 지방을 비롯하여 각 도시 중요 공업 지대에 보내여 공업에 동력을 보장하며 민가에 보내고 있다。

한편 부전강、장진강、허천강 상류에는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따라 높은 산중에 큰 호수가 생기여 경치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이 호수(발전 저수지)들은 양어장으로도 리용될 수 있다。

본도의 수력 자원은 아직도 개발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

전후 三개년 인민 경제 복구 발전 계획에 의하여 본도의 전력 생산은 一九五六년도에 가서 二〇억 六、〇〇〇만 키로 왓트시의 자기 과제를 달성함으로써 웅대하게 일어서는 우리 나라 공업과 인민 생활에 더욱 많은 전력을 보낼 것이다。

농산 자원

전도에 걸쳐 함흥 평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원 지대이고 높은 산들이 많으나 넓은 고원 지대를 밭으로 리용하고 있으므로 경작 면적에 있어서는 우리 나라 제二위에 간다。 그리고 동해안에서 제일가는 함흥 평야는 우리 나라 동북 지방에 있어서의 곡창이다。

함흥 평야는 성천강 하류 류역에 三각 형으로 벌어져 있으며 땅이 기름지다。 그리고 성천강은 풍부한 수량을 가지고 이 평야의 중심을 흐르고 있어서 관개 용수를 충분히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기름진 땅과 풍부한 관개 용수는 벼 농사에 매우 적합하여 이곳에서 쌀이 많이 생산된다。

그리고 하류까지에는 상류로부터 밀려 내려온 모래와 흙으로 이루어진 섬들이 많은데 이 섬들은 야채 재배지로 리용되고 있다。

또 부근 일대에는 사과가 잘 되여 우리 나라 유수의 사과 산지이다。

함흥 평야 이외의 해안선을 제외한 지대들은 기후와 토질로 보아 함경북도와 같이 조、감자、콩 등의 재배에 가장 적당하다。

그리하여 조와 콩의 산출이 많고 단천 콩은 품질이 대

우 좋은 것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감자, 피, 수수의 경작 면적은 제一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특용 작물로 아마 재배에 있어서 으뜸간다。특히 개마 고원은 기후가 차고 서늘하여 토양이 부식토로 되여 있어 감자, 귀리, 삼, 아마, 호프 등의 재배에 적당하며 그중에서도 감자는 가장 품질이 좋고 부전 고원에서는 사탕무를 심는다。

三개년 인민 경제 계획에 의하면 본도의 알곡 생산은 一九五六년에 가서 四二四、九〇〇톤, 그중 벼가 一二四、三〇〇톤, 저류가 一二九、九〇〇톤에 달하게 될 것이다。그리고 본도의 과수원 면적은 一九五六년에 이르러 五、八三五정보로 확장될 것이다。

특히 공화국 정부에서는 잡곡 생산이 많고 쌀 생산이 적은 이 도에 쌀 생산을 많게 하기 위하여 이미 진행하고 있는 정평 관개 공사를 계속함으로써 三개년 계획 기간에 三、一六三 정보의 로지에 관개를 실시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축산업

함경남도는 일찍부터 축산업이 상당히 발전하여 소와 말 등 가축이 많을 뿐만 아니라 면양의 방목은 앞으로 더욱 유망하다。그리고 본도는 풍토상 관계로 남부 각지에서 양잠업을 많이 하는데 그중 특히 영흥 지방이 유명하다。

림산 자원

함경남도는 림야 면적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첫 자리를 차지한다。본도의 림야 면적은 二七〇만 정보로서 도 전체면적의 八三%를 점하고 있다。특히 개마 고원 지대의 갑산, 풍산, 풍서, 량림, 삼수, 장진, 부전, 신흥 등 각 지역에는 아름다운 삼림이 울창하게 퍼져 있다。

함경남도는 함경북도, 자강도와 함께 우리 나라 림산 자원의 광대하고 무진장한 보고를 이루고 있다。

본도의 림산업은 공화국 정부의 옳바른 시책 밑에 앞으로 더욱 광활한 전망이 열리고 있는바 一九五六년에 가서는 三개년 인민 경제 계획에 의하여 원목 七四만 三、〇〇〇립방 메터를 생산 및 초과 생산하는데까지 도달할 것이다。

수산 자원

함경남도의 해안은 함경북도의 해안과 함께 세계 三대 어장의 일부를 이루는 곳으로서 우리 나라의 가장 큰 어업 지대에 속한다。

함경 남도 연해에서 잡히는 바닷 고기들 중 가장 많고 이름 있는 것은 명태, 고등어, 대구, 청어, 가자미, 오징어 등이다。특히 동해의 대표적 어족인 명태는 본도의 첫째가는 특산으로서 전국 총 생산액의 八五%가량이 이곳에서 잡힌다。

서호진, 퇴조, 전진, 신포, 차호, 군선 등의 근해는 이 명태의 풍어대인데 그 중에도 중심 어항으로 되는 곳은 신포항이다。

그러나 이 풍부한 수산 자원을 우리는 아직 완전히 리용하지 못하고 있다。

수산업은 앞으로 더욱 발전의 전도가 양양하며 그에 따르는 수산물 가공 공업과 그를 원료로 한 유지 기타 각종 공업의 발전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그리하여 三개년 인민 경제 복구 발전 계획을 완수하는 一九五六년에는 본도에서 우선 어획고는 三五만 七、二〇〇톤에 달하게 될 것이며 어획물을 원료로 한 비누 생산은 三、九〇〇톤에 달하게 될 것이다。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 三개년 계획의 성과적 실천에 의하여 함경 남도는 우리 나라의 우수한 공업 지대로서 더욱 더 거대하게 발전할 것이며 농촌 경리도 부유하고 풍족한 지대로 발전할 것이다。

엄숙한 맹세 견결한 실천

년간 계획의 기한전 완수를 위하여

민청 황해 제철소 위원회
위원장 장 학 명

전국 청년 열성자 대회는 민청원들과 전체 청년들에게 인민 경제의 어떤 분야에서나를 물론하고 자기의 일간, 월간, 분기간, 년간 과제를 품종별로 량적 질적으로 초과 완수하는 모범적 민주 역군이 될 것을 호소하였다。

대회 호소 실천을 위한 우리 제철소 민청 열성자 회의에서 민청원들은 한결같이 금년도 년간 계획을 一〇일간 단축하여 一〇四•九%로 초과 실행할 것을 결의하고 자기들의 구체적인 증산 경쟁 의무 조항을 내놓았다。

제강 직장 용해공 서정록 동무는 용해 시간을 단축하여 금년도 강괴 생산 계획을 一一월말까지 一一八•八%로 초과 수행할 것을 결의하였다。

선반 직장 박정옥 동무는 선진 작업 방법인 꼴레쏘브 강력 절삭법을 습득 도입하여 월간 생산 실적을 一五〇%이상 높임으로써 조강 직장 조업을 九월중에 개시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기계 부속품들을 지체없이 보장할 것을 결의하였다。

제철소 민청은 이와 같이 앙양된 청년들의 증산 열의와 창발적 제의들을 옳게 조직 동원하며 선진 기술과 선진 작업 방법을 적극 습득 도입하여 작업 공정을 기계화하며 창의 고안 운동을 광범히 전개하는 투쟁을 강화하였다。

제강 직장 민청 초급 단체에서는 八월분 강괴 생산 계획을 자기들이 내세운 경쟁 의무 조항보다 六•五%를 더 초과하여 一二六•五%로 넘쳐 실행하였다。

그들의 이와 같은 새로운 성과는 오래전부터 연구하여 오던 용해 시간 단축에 성공함으로써 얻은 것이다。

이때까지 평로에서 한번 용해하고 출강하려면 一八시간이 필요하였으며 따라서 강괴 생산능률을 높이지 못하였다。

용해 시간 단축을 위하여 선진 작업 경험을 연구하여 오던 젊은 용해공들 속에서 창발적 의견들이 나왔다。

용해공 고창호 동무는 로 보수 작업을 출강이 완전히 끝난 후에 착수하던 작업 방법을 개선하여 출강을 시

작하면서 동시에 로 보수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의하였다.

용해공들은 고창호 동무의 제의를 심중히 토의하고 로 보수 작업에 실지 적용하여 보았다.

출강을 하면서 동시에 로 보수 작업을 하려면 一、六〇〇도의 열을 보유하고 있는 평로 앞에서 작업하게 되므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였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고 로 보수 작업을 진행한다면 로 보수 작업의 시간은 더 단축될 뿐만 아니라 로의 온도를 보유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였다.

평로 내 젊은 용해공들은 브리가다원들과 함께 고창호 동무의 로 보수 작업 경험을 실천에 옮기는 투쟁을 강화하였다.

이리하여 로 보수 작업은 종전에 비하여 一五분—二〇분 더 단축하게 되였으며 一회의 출강 시간을 五시간이나 더 단축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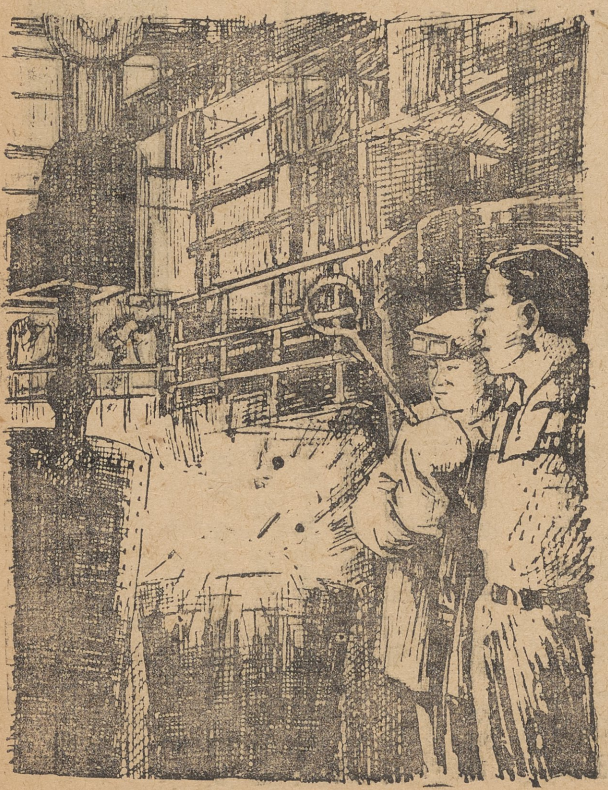
초급 단체 위원회는 때를 놓치지 않고 고창호 동무의 로 보수 작업 경험을 일반화 하였다.

그리하여 평로에서의 강괴 생산은 일간 계획을 평균 一二〇%이상 넘쳐 실행하게 되였다.

기계 직장 초급 단체는 선진 작업 방법인 끌레쏘브 강력 절삭법을 적용하기 위한 기술 전습 사업을 광범히 전개하였는바 제품 가공에서 창발적 작업 방법들이 속출되였다.

종전에는 매개 선반공들이 "포금 메다르" 가공에서 세개의 바이트를 사용함으로써 선반기의 회전 속도를 높이지 못하였다.

그러나 청년 작업반장 박정옥 동무는 끌레쏘브 강력 절삭법에 필요한 바이트를 개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박정옥 동무는 "포금 메다르" 가공에서 한개의 바이트로 자상、절삭、겜 등 세가지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여 선반기의 회전 속도를 二배로 높이였으며 매일 자기 계획을 평균 二一〇% 이상 초과 실행하였다.

제철소 민청은 박정옥 동무의 창발적 작업 방법을 일반화 하기 위하여 五四명의 젊은 선반공들의 참가하에 경험 교환회를 조직하였다.

기계 직장 내 전체 선반공들에게는 박정옥 동무의 작업 방법이 급속히 보급되였다.

그들은 조강 직장 복구에 필요한 "포금 메다르" 제작에서 일간 계획을 평균 一八九%로 초과 실행하였다.

차량 직장 민청 초급 단체에서도 창의 고안 사업들이 진행되였다.

위원회는 이 사업에 기술적 방조를 주기 위하여 행정과 토의하고 기사 고홍기 동무를 파견하였다.

리광훈 동무는 데리끼 창안에 착수하였다.

데리끼 장치에는 "우인치" 짐보리끄、와이야、철주 등이 많이 요구되였다.

초급 단체 위원회는 데리끼 장치에 요구되는 부속품들을 해결하여 주기 위하여 유휴 자재를 회수하도록 민청원들을 동원하였다.

그리하여 짐보리끄 三六개、베아링 二〇개、삔 三〇개를 갱생하여 데리끼 장치에 리용하였다.

데리끼 장치는 리광훈 동무의 인내성 있는 노력에 의하여 성공되였다.

결과는 등짐으로 상하차하던 락후한 작업 방법을 기계화 하였으며 상하차 로력 二〇명을 절약할수 있게 하였다.

한편 제철소 민청 위원회는 금년 一〇월 말까지 二〇〇명의 무기능공을 기능공으로 양성하며 七七二명의 五급 및 六급공들의 기능 급수를 한급씩 제고하기 위하여 기술、전습회、기술 강연회、개인 담당제 사업을 강화하는데 심중한 주목을 돌리였다.

매개 쩨호에서는 매주 금요일을 전습회 날로 정하고 기술 전습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금 제철소 내 청년 작업반과 브리가다들에서는 기능공 양성을 위한 개인 담당제 사업이 옳게 진행되고 있다.

전국 청년 열성자 대회 호소 실천을 위한 二개월 간의 투쟁 행정에서 四一명의 청년 무기능공을 기능공으로 양성하였으며 五五명의 기능공들의 기능 급수를 한급씩 높이였다.

이와 같이 전국 청년 열성자 대회、호소 실천을 위한 투쟁에서 로동 청년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맹세한 경쟁 의무 조항들을 어김 없이 실천하는 강한 책임성、선진 작업 방법의 부단한 도입、작업 공정의 기계화、기술 기능 수준의 제고 등은 전 공장적으로 八월분 생산 계획을 一三一%로 초과 실행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와 같은 성과들은 우리들에게 금년도에 내 세운 생산 목표를 기한전에 초과 완수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그러나 우리 제철소 민청 위원회 사업에는 아직도 실무적 지도 수준이 미약하며 대회 호소 실천을 위한 정치 조직 사업들이 불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이런 결점들을 시급히 퇴치하고 대회 호소 실천을 위하여 청년들의 앙양된 증산 의욕을 계속 보장하기 위한 정치 조직 사업을 급속히 개선하여 대회의 호소를 어김 없이 실천할 것이다.

조국에 더 많은 식량을!

대동군 금천리 시산동 농업 협동 조합
민청 초급단체 위원장 김 종 세

전국 청년 열성자 대회는 농업 협동 조합내 청년들에게 국가에 더많은 식량과 공업 원료를 주기 위하여 선진적 영농 기술을 광범히 적용하여 단위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투쟁과 당면한 중경 제초、풀베기、하기 작물 현물세 납부에서 모범적으로 로력하며 협동 경리의 우월성을 더욱 발휘할 것을 호소하였다。

지난 七월 三〇일 우리 초급 단체는 대회의 호소 실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고 지난 날의 사업을 검토한 후 새로운 투쟁 목표를 세웠다。

금년도 우리 조합에서는 농작물의 정당 수확고를 벼 정당 四・一톤、밭 알곡 一・九톤 이상을 높일 것을 결의하였는바 민청 위원회는 수확고의 제고를 위하여 매개 작업반 내에서 청년들의 역할을 높이는 동시에 당면된 제초의 회수를 증가하며 청초를 더 많이 베여들일 것을 결정하였다。

우리는 례년보다 논과 밭의 제초를 한번씩 더하며 八・一五 기념일을 계기로 四개의 풀베기 돌격대를 조직하여 一四〇여톤의 풀을 더 베여 운반키로 하였다。

한편 우리는 수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미 진행하던 제방 수축 공사 작업을 五일간 기한 단축할 것을 결의하였다。

초급 단체 위원회는 민청원들과 청년들의 열성을 더욱 고무하기 위하여 선동 사업을 강화하였다。

우선 초급 단체 열성자들과 선동원들을 동원하여 「전국 청년 열성자 대회 호소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문제로써 쎄미나르를 진행한 후 八개의 작업반에서 선동 사업을 진행하였다。

단위당 수확을 높이는 첫걸음으로 매개 작업반들에서는 민청 반장이 책임지고 중경 제초 작업을 중간 총화하고 새로운 대책을 세웠다。

작업반 내 청년들은 제초 작업 방법의 경험을 수시로 교환하며 로동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해 쪼이는 날과 비가 내리는 날의 작업 시간을 효과있게 조직하며 매개 민청원들이 작업 정량을 엄격히 실천하는 규률을 확립함으로써 작업 능률이 높아졌다。

특히 조석호 모범 농민이 창안한 제초기는 제초 작업 능률을 높이는데 큰 방조로 되였다。

제五작업반 내 김길원외 一二명의 작업 반원들은 새로 만든 제초기를 사용하여 매일 一四〇%의 능률 (매인당 기준량 一五〇－二〇〇평)을 내였다。

이들은 매일 작업 총화에서 자기들의


☆돌피 뽑기에 바쁜시산동 농업협동조합 민청원들☆

작업 방법을 수시로 토의하며 나타난 결함들을 제때에 비판함으로써 민청원들의 높은 자각성과 공동 로력에서의 책임성을 제고시켰다。

결과 이 작업반 내 청년들은 논 五회 제초를 예정 날자보다 八일이나 단축하여 八월 五일에 완수하고 지금은 돌피 뽑기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선진 농민들의 경험을 본받아 제초 회수를 례년보다 밭에 一회、논에서 二회 더하였다。

제초를 완전히 끝마친 우리는 자급 비료 증산을 위한 풀베기 작업에 분발하고 있다。 四개의 청초 채취 돌격대에 망라된 청년들은 「퇴비 무지는 쌀무지」라는 구호 밑에 풀베기 경쟁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

매개 돌격대들에서는 八월 一일부터 一五일까지 기간에 매개 민청원들이 매일 기준량 三〇〇키로 그람에서 五〇〇키로까지 벨 것을 계획하고 그 실천을 위한 토의를 진행하였다。

분공된 과업은 매개 민청원들과 청년들의 능력과 활동에 알맞는 과업들이였다。 례를 들어 풀을 베는 조、묶어서 중량을 다르는 조、운반하는 조로 구분하여 진행했다。 매개 돌격대들은 경쟁 기간에 매일 부락에서 二—三키로메터 되는 순화강 강변에서 풀을 벴다。

해 쪼이는 날에는 아침 새벽부터 일제히 풀을 베고 점심 시간에는 모두다 독보회와 노래와 춤으로써 유쾌하게 휴식하였다。

오후 작업은 평균 四시에 착수하였다。

특히 운반조 내 청년들은 작업에서 많은 창의성을 발휘하였다。

이들은 풀단을 합하여 "떼"를 무어 퇴적장 현지까지 운반했다。

운반한 풀은 八월 一五일 현재 벌써 一六개의 퇴적장에다 四一〇여톤이나 저장했다。

초급 단체 위원회는 선전원 김명옥으로 하여금 돌격대와 돌격대、반과 반 경쟁 그라프를 풀베기 현장에다

정확히 게시하여 三일에 一차씩 경쟁 정형을 총화하여 결함들은 제때에 폭로하고 경험들을 일반화하도록 하였다。

풀베기에서 김준호 작업반은 달밤을 리용하여 야간 작업으로써 매일 一六五%의 작업 성과를 올렸다。

이러한 결과 조합내 청년들은 八·二五까지 경쟁 기간에 자기 책임량을 一六〇%로 초과하여 一四七톤을 더 베였다。

우리들은 지난 八월 一七일 풀베기 경쟁을 중간 총화하고 이에서 나타난 결함을 분석 비판하고 계속되는 풀베기 경쟁에서 보다 높은 열성을 발휘하고 있다。

조합 내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조기 작물 현물세를 기한전에 우량곡으로 납부한 투쟁 경험을 살려 지금 만기 작물 현물세 실수확고의 정확한 판정 사업을 협조하면서 현물세 납부 준비에 적극 참가하고 있다。

제二작업반 내 민청원들은 판정 위원회 사업을 적극 협조하여 필지별, 곡종별 파종면적 확인 사업을 거의나 끝마치고 예상 수확고 판정 사업을 도와주고 있다。

한편 녀성 청년들은 치, 평애기, 저울, 기타 용기 등을 재검토하여 앞으로 칠수확고의 정확한 판정을 보장하기 위한 준비 사업을 갖추고 있다。

제四작업반 내 민청원들은 조 추수를 위한 낫을 비롯한 여러 도구들을 준비하면서 八월 二〇일 현재로 벌써 매개인들의 기능에 맞는 로력 조직을 끝마치고 공동 탈곡장을 二개소로 나누어 만들고 있다。

그들은 또한 포장용 가마니 기타 새끼 등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수축하던 제방 공사 작업에서도 높은 열성을 발휘했다。

옛날부터 우리 마을에 수해를 주던 "양산" 앞 동뚝 一七〇메터의 제방은 민청원들의 연 七일간에 걸친 눈부신 돌격 작업으로 수축되였다。

이리하여 二〇五 단보의 논을 금년도 수해로부터 방비하였다。

지금 전야에는 밀, 보리후작으로 파종한 가을 소채, 모밀 등이 벌써 싱싱하게 자라고 있으며 벌써 그의 一회 제초도 거의 끝마치게 되였다。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래년도의 다수확을 위한 준비 사업의 하나로 인분뇨 수집에 발동되고 있다。

지난 七월 중순부터 벌써 一二〇여톤의 인분뇨를 운반하여 분토를 만들고 있다。 또한 가을 칠 밀, 보리파종을 제때에 실시하기 위하여 종자를 소독하여 장만하고 작업반들에서는 기술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가 금년도에 땀 흘린 전야에서는 현재 작황으로 보아 벼는 정당 四·三톤(개인농 때보다 一二九% 증가), 조는 정당 二톤 一二〇키로(개인농 때보다 一三五% 증가), 수수도 一〇六%로 각각 단위 면적당 수확고가 증수될 것이 예견되고 있다。

초급 단체 위원회는 매개 민청원들이 조합 규정을 철저히 엄수하게 하며 작업반 단위로 조직된 매개 민청반들에서는 부분적 청년들이 주인답게 일하지 않는 경향들과의 비판 사업을 강화하면서 그들의 작업에서 열성을 더욱 높이는데 힘쓰고 있다。

르뽀 체르끄

로력은 행복을 창조한다

김 광 준

『명절밤의 쓰딸린 거리를 마음껏 거닐어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난 윤성희는 온 가족과 함께 우야 골목길로 돌아 모란봉 밑에 나섰다。 성희는 거리의 전경이 눈앞에 펼쳐지자 그만 자기도 모르게 환성을 질렀다。

위대한 八·一五 명절의 밤의 쓰딸린 거리는 마치 그의 가슴 속에 수만축 밝은 등불을 안겨주는 것만 같았다。

남녀 로소가 가로등이 금빛 꽃보라를 뿌리는 거리를 물결치며 거닐고 있다。

성희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면서 생각하였다。 『조선 인민의 불굴의 상징 민주 수도의 장엄한 건설은 비단 영웅적 평양 시민들에게 있어서만 행복스러운 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선 인민의 크다란 기쁨이며 행복으로 된다。

바로 이 행복을 위하여 우리 건설 대학생들은 자난날 평양시 복구 위원회 결정을 받들고 한결 같이 민주 수도 건설에로 일어 섰던 것이다。 그런데 다름아닌 그 보람찬 로력이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훌륭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던 것이다』

녀동생 성자는 깊은 생각에 잠기고 있는 성희의 손목을 끌어 당기며 불빛 환한 준공된 자기 학교를 가리켰다。

그리자 옆에 섰던 남동생 석천은 이번 웅장하게 복구 건설된 자기의 四인민학교가 제일이라고 뻐겼다。 다섯살난 성애는 그 누구에게서 들었는지 높이 솟은 애국 렬사 유자녀 학원을 가리키면서 종알거렸다。

『엄마! 성앤 애국 렬사 유자녀 학원이 제일 좋아! 저기 가서 이쁜애들 하고 같이 놀테야』

아버지와 어머니는 애들의 말에 가슴이 너울거렸다。 폭 四五메터의 넓은 쓰딸린 거리에서 마치 온식구가 두둥실 떠서 흘러가고 있는 듯하였다。

『아! 정말 행복스러운 세상이로구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렇게 입속말로 부르짖었다。

성희는 종시 눈시울이 뜨거워 멎지 않았다。 가슴이 메여질듯 끓었다。

보도에 깔린 브록크 한장, 고층 건물을 이룬 벽돌 한장이 모두가 제각기 그러나 꼭 같은 말로 이 거리를 지나는 행복한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것 같았다。

그리고 이 거리에 아로 새겨진 영웅적 평양 시민들의 가지가지 헌신적 로력 위훈들을 이야기 해 주는 것 같았다。

× ×

성희는 쓰딸린 거리 건설장에 동원

된 후 보름만에 휴일을 맞았다。 그런데 아침 일찌기 집에 다녀올 작정으로 기숙사를 나선 성희의 발길은 웬일인지 집이 있는 설수동으로 향하지 않고 쓰딸린 거리로 옮겨졌다。

비록 휴일이였지만 성희에게는 바야흐로 자기들의 로력의 열매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 이 거리를 단 하루라도 보지않고서는 그대로 지나 갈수 없을 것만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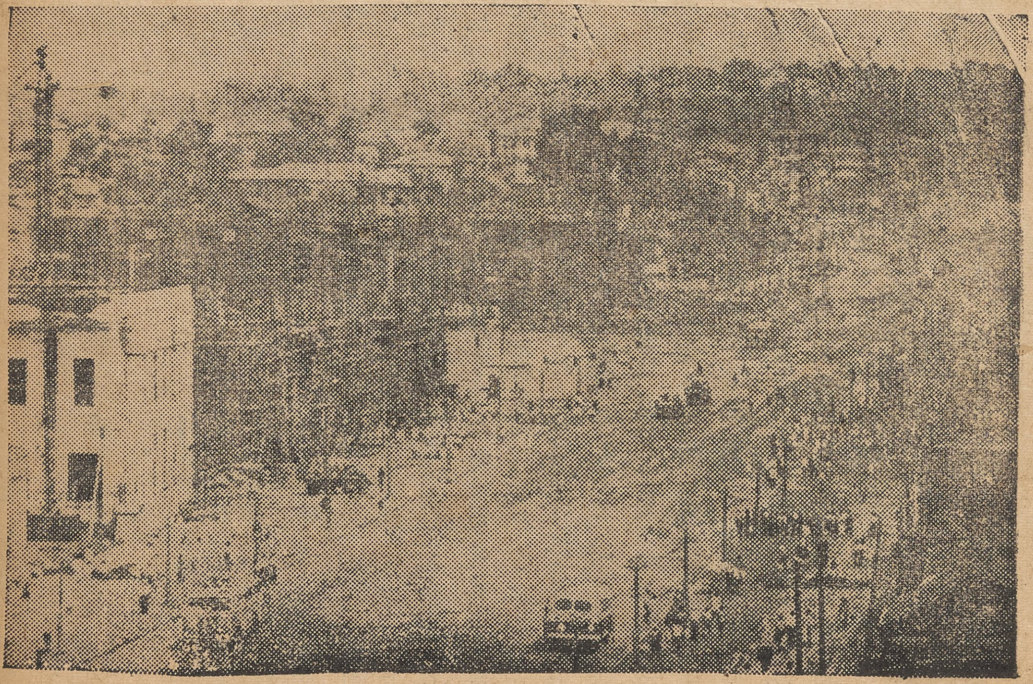
휴일인데도 건설장에는 빈틈 없이 시민들로 차 있다。 간단 없이 꼬리를 맞물고 질주하는 트럭들은 제각기 자기들의 건설장으로 자재들을 실어 나르고 있다。

성희는 자기네 건설 대학생들의 경쟁자인 음악 대학생들의 일터에 들렸다。 학생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나 그 무엇에 놀란 성희는 그만 발주춤을 하고 말았다。

『야나 하루 밤 사이에 이렇게 달라지는 법이 어데 있담…』 성희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어제 저녁 형편을 생각했다。 하루의 작업이 끝나자 현장 기술자도원은 그날 작업%를 알려 왔는데 그때 음악 대학생들은 건설 대학생들보다 五○%가 뒤졌던 것이다。 그랬더니 하루 밤 사이에 그 산데미 같았던 흙무지가 사라지고 말았다。 분명 밤 일을 하였음이 틀림 없었다。

『그러구보니 우리들보다 작업 속도에 있어서 이틀동안은 앞선 셈으로 되였구나』 성희는 더 자기 집으로 발길을 옮기구 싶지 않았다。 곧 대학 민청 위원회에로 달려가고 싶었고 그길로 질통을 지고 쓰딸린 거리로 되돌아오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은 공연한 자기의 조바심에 지나지 않는다고 억지로 마음을 누르고 총총 걸음으로 집을 향하였다。

오래간만에 성희를



☆ 복구건설된 쓰딸린 대통로 ☆

복구건설장에서

맞은 집안 식구는 깜짝 놀랐다。 『애가 정말 깜둥이가 되여 버렸구나』 어머니는 딸의 건장한 모습을 대하자 회색이 만면하였다。

동생들은 조르르 달려와 성희의 못박힌 굳세인 손아귀를 쥐여 흔들며 마치 자기가 민주수도 건설에 참가한 것처럼 요란을 부렸다。

흐뭇한 행복감을 느끼면서 성희는 학생모를 벗었다。

성희는 랭수로 목쉬염을 하고 나서 지난 보름 동안에 있은 여러가지 일들을 이야기 하기 시작하였다。

『처음 질통을 지고나서 허벅 다리에 힘이 빠져 그만 몇 걸음 걸어가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다。 그때 남 학생들은 〃아무렴 녀자가 무엇을 한다구〃하고 웃어댔다』 그러나 그런 웃음의 말도 이내 사라졌다。 일주일이 좀 지났을 때에는 성희는 그 어느 남학생에게도 지지 않았다。 질통을 지면 제비처럼 가볍게 날아 다니는 듯 하였다。 성희는 더욱 일에 신바람이 났다。 이런 때 녀장부로 알려진 三중대 윤묘숙은 흙운반 작업에서 보통 一○메터 거리를 하루에 一二○회정도 나르던 것을 一六五회나 운반하여 또한번 명성을 떨치였다。

이 소식에 윤성희가 속한 二중대 성원들 허리띠를 졸라매고 대들었다。 며칠 후 이들은 작업에서 새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이미 그때에는 그보다 더 굉장한 기록적 성과가 거두어져 있었다。

『一중대 一소대 안병기 분대에서는 수중 굴착 작업에서 五四○%의 성과를 쟁취!』 성희는 그만 맥이 풀릴 지경이였다。 이 이상 더 힘을 내여 그들을 이겨낼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분대장 문석규는 태연 하였다。 『무열 그렇게 서두는 겨야、래일이면 우리의 실력을 알아 볼텐데!』

이튿날 성희와 그의 분대 성원들은 날이 채 밝기 전에 건설장으로 나왔다。

하루의 눈부신 작업이 끝났다。

저녁에 대대 벽보판에는 『문석규 분대 콩크리트 치기 작업에서 五四一・九%의 성과를 달성!』하는 속보가 나붙었다。

성희는 분대원들 속에 끼워 춤까지 추면서 좋아했다。

성희는 이 보름 동안에 해 놓은 일에 대하여 생각하였다。 건설 대학생들은 실로 一五일 동안에 일개월간의 공사 계획을 수행하였다。 성희는 오늘처럼 건설 대학생으로서의 영예와 긍지를 크게 느껴 본 일이 없었다。

三년전 성희가 녀 고중을 졸업하였을 때 그의 부모들은 건설 공학 계통을 지망하는 그에게 〃녀자가 어떻게 건설장에서 일할 수 있겠는가?〃하는 단순한 생각으로써 반대하여 나섰다。

그러나 그의 부모들은 이내 성희의 그렇듯 열렬한 희망과 정당한 의견을 들어 주지 않을 수 없었다。

성희는 영예로운 건설 대학생으로 되였다。

성희는 대학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모든 과학 지식과 기술들은 그를 미래의 보람찬 건설자로 키워주고 있다。 이제 곧 로력의 넓은 무대는 그

의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실상『건축 구조』、『건축사』、『건축 설계 기본』、『건축 구성론』등— 이 모든 과목들의 강의 시간은 다름 아닌 성희 자신의 조국을 위하여 복무하려는 불타는 념원을 이루어 주고 있는 것이였다.

六월도 거의 다 가고 있었다. 때로 멍텅구리 동남풍이 검고 탁진 구름을 몰아와 민주 수도 건설자들에게 장마가 멀지 않았음을 예고하고 있었다. 건설 대학생들은 자주 하늘을 치여보면서 격정의 말을 주고 받았다. 『장마전에 기본 공사를 끝내야 할텐데』 어 격정은 비단 건설 대학생들 속에서만 있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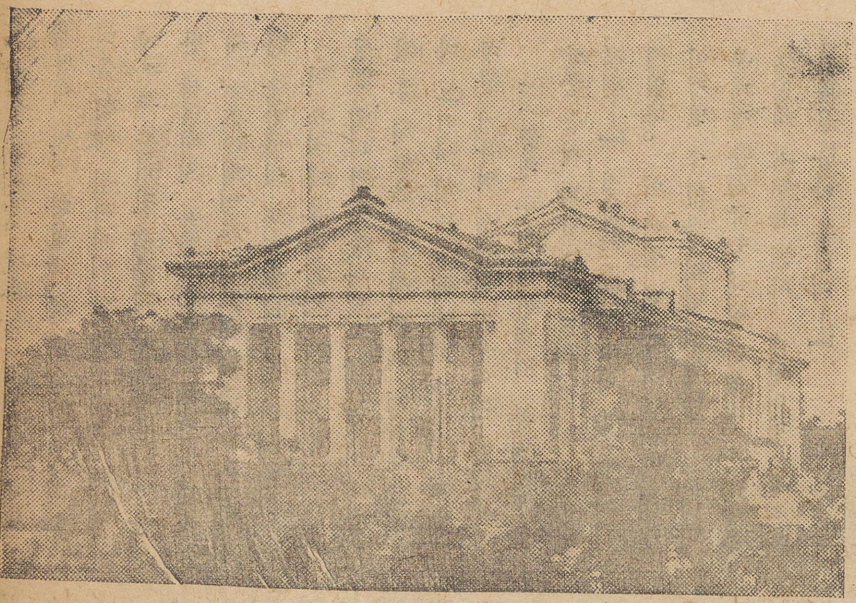
김일성 종합 대학생들은 우기를 앞두고 작업 능률을 더 한층 높이면서 한편 작업 동원 기간을 一五일간 더 연장할 데 대한 자기들의 결의를 각 대학생들에게 호소하였다. 이 호소가 곧 열렬한 지지와 호응을 받은 것은 두말 할 것 없다.

건설 대학생들은 로력 조직을 더욱 합리화하면서 작업 대렬을 재 편성하였다.

성희는 二중대 三소대 홍금철 분대에 배치되였다. 이날 저녁 민청 초급 단체들에서는 총회가 진행되였다. 성희는 총회에서 맨 먼저 토론에 참가하였다.

『이번 건설 과제는 우리 자신들의 애국주의적 헌신성과 로력적 기개를 시위 검열하는 계기로 될 뿐만 아니라 당과 수령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을 위하여 베풀어준 행복의 터전을 우리 자신들이 닦고 있다는 거기에 더욱 커다란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토론하는 성희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열성적이였다.



☆ 모란봉 극장☆

그 이튿날 저녁이였다.

학생들은 제각기 야간 작업을 할 차비를 하였다. 그런데 녀학생들이 이 대렬에 나섰을때 남학생들은 이를 만류하였다.

二중대 三분대장 신충근은 성희 앞을 딱 막아 섰다. 『녀학생들은 이 야간 돌격대에 참가할 자격이 없단 말이요』

『그건 또 누가 그렇게 지시했어요』

『지시는 무슨 지시…생리학적으로 보아 녀성들은…』 성희는 이말을 가로 챘다. 『천만입니다. 나는 그런 의학적 론증을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희가 제아무리 우겨대여서도 종내 뜻을 이룰수 없었

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숙사에서 나온 성희는 뜻하지 않은 일에 부닥치였다.

당원인 김순자、남죽순 두 녀학생이 작업장에서 도라오고 있었다. 순자는 성희가 너무나도 나무래는 바람에 『너를 찾으려고 하였었는데…어더 몰래 나가는 판에 그럴 겨를이 있었니』하고 위로의 말을 던져 주는 것이였다. 성희는 마음 속 생각해 보았다.

『로동당원이란 바로 이런 사람들이로구나—그들은 일상 생활에 있어서나 이와 같이 힘든 로동에서도 항상 우리의 거울이로구나!』

『당원들의 모범을 따르자!』 이런 맹세가 성희의 마음 속에 굳게 다져졌다.

저녁에 성희는 순자며 죽순을 따라 건설장으로 나갔다.

이제는 그 누구도 처녀들의 뜻을 더는 꺽지 못하였다. 그들을 가리켜 학생들은 『옆치기 선수』라고 불렀다.

홍금철 분대에서는 얼마 후 관집합 작업에서 七四五%라는 기적인 작업 성과를 올렸다. 하루는 전쟁 시기에 적기 七대를 격추한 영예 군인 윤충형 동무가 성희와 함께 일하면서 쉬는 짬을 리용하여 이런 롱말을 건니였다.

『비행기를 떨구는 덴 나도 한다한 선수였는데 작업에 들어선 성희 동무한테 꼼짝 못하겠구려、달같이 아름다운 처녀에게서 어떻게 그런 무서운 힘이 솟아나온담』

七월 중순에 들어서면서 학생들의 열의는 더욱 높아 갔다. 성희는 토관 가락지조에 인입되였다. 四명의 가락지 조원들은 로력의 합리적 조직과 쾌활한 작업 분위기로써 六시간에 一、〇〇〇미리관 가락지 六七개를 만들어 냈다. 八시간에 한사람이 三개의 가락지를 만드는 것이 책임량이였었는데 그들은 이 책임량을 여섯배 이상으로 넘쳐 실행하였다.

건설 대학생들은 마지막 공사의 중요한 고리의 하나로 되는 관부설 작업을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학생들의 마음은 몹시 흥분되고 있었으나 작업 속도는 매우 지지하였다. 작업 마감날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학생들의 마음은 안타까웠다. 별별 방법을 다 써보아도 작업 능률은 역시 오르지 않았다. 이런때 학생 유석주에 의하여 새로운 관 결합틀이 창안되였다.

밤이 어지간히 깊었는데 석주가 관 결합틀을 들고 홍금철에게 달려갔다.

『금철동무! 일어나라구 내가 관결합틀을 창안했어』 금철은 이말에 펄쩍 깨여 났다. 보니 그럴듯하게 만들어졌다.

금철은 당장 건설장으로 나가고 싶었다. 그는 이것을 성희가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 생각하면서 위선 성희를 찾아갔다. 성희는 아직 잠들지 않고 책을 들여다 보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용기 백배하여 밤중에 쓰딸린 거리로 달려갔다.

모닥불을 피워 놓고 작업은 시작되였다. 새벽 동틀 무렵까지의 작업에서 그들은 종전보다 五배 이상의 작업 능률을 올렸다.

성희는 밤 작업의 고달픔도 잊어 버리

고 분대원들과 함께 몇번이고 환성을 올렸다。『이틀이면 이 작업도 끝날 수 있다』 생각할수록 성회의 가슴 속엔 기쁨이 북바쳐 올라왔다。

성회는 보다 행복한 앞날을 그려보며 새벽 안개 가시여간 쓰딸린 거리에서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다。

성회의 시원한 눈길이 길게 뻗은 거리를 따라 모란봉위 해방탑에 이르렀을 때 바로 그때 눈부신 아침해가 솟아 올라 왔다。

아침해는 머지않아 개통될 쓰딸린 거리를 그 부드러운 빛발로 감싸주는 것이였다

생산혁신자들의 작업방법

구상 흑연 주철 제조법이란 어떤 것인가?

주철이란 것은 쇳물을 주형에 부어 넣어서 만든 것이다

그러나 주철에는 적지 않은 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질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부서지는 것이다

그러면 주철은 왜 쉽게 부서지는가?

주철 속에는 탄소가 二·五%이상 四%까지 포함되여 있는데 그의 일부는 철과 화합하여 세멘찌트란 것을 구성하고 나머지 일부는 그라휘트(흑연)형태로 남아 있다

그러므로 주철은 철、흑연、베르디트가 모여서 구성된다

이와 같이 각이한 성분의 매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철은 질긴 성질을 가지며 흑연은 부서지기 쉬운 성질을 가지며 베르티트는 굳고 강한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세가지 성분의 배합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주철의 강도는 결정된다

그런데 주철이 잘 부서지는 원인은 흑연 성분이 편상(넙적하게) 발달하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흑연 성분이 편상으로 발전 못하게 하고 구상으로 발전케 함으로써 주철의 강도는 높아질 것이다

때문에 오래전부터 주철의 강도를 높이기 위하여 니켈 또는 크롬 등을 배합하여 왔으며 용해 작업도 용선로에서 하지 않고 전기로에서 진행하여 강도가 높은 주철을 만들어 왔다

이것은 일찌기 쏘련에서 많이 리용되여 왔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이 방법이 지금 많이 리용되고 있다

그러면 구상 흑연은 어떤 우점을 갖고 있는가?

그것은

一、주철의 질이 강하여짐으로 강재 대용으로 쓸 수 있다

二、마모률이 아주 적으므로 베아링구 등에 쓸 수 있다

三、구상 흑연 주철은 고온 속에서도 그 마모률이 보통 주철의 三분의 一 이하로 되므로 금형 제작에 좋은 자료로 된다

실례로 알미늄 주조형을 보통 주철로 만들었을 때에는 한개 형으로 一、五〇〇개 이상 주조하지 못하지만 구상 흑연 주철로 만들면 一〇、〇〇〇개까지 만들 수 있다

四、구상 흑연 주철은 보통 주철과 달라서 어느 정도 단조할 수도 있다

구상 흑연 주철을 만드는 방법은 보통 마구네슘 또는 쩨리야를 첨가하여 이루어지는 용선을 주물형에 부어 넣어서 만든다 우리 나라에서는 보통 마그네슘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 야금 공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구상 흑연 주철 방법의 내용은 이상과 같다

민성 생활

기술 전습회는 기술 습득의 중요 방법

남포 제련소 공무 직장
제二 청년 작업 반장 림 진 섭

나는 한권의 기술 전습장을 가지고 있다。

나의 기술 전습장에는 작업반원들의 기술 습득을 위한 七개월 간의 투쟁 정형이 수록되여 있다。여기에는 반원들의 기술 전습 계획과 매일 매일의 로동에서 이루어진 기술적 성과、반원들의 기술 급수、그리고 기술 전습회에서와 기술 강연회、기타에서 배운 제목들과 간단한 내용들이 기록되여 있다。

기술 전습장에 수록된 모든 것을 통하여 나는 새 기술을 전습하면서 장성하여 가는 반원들의 믿어운 변모를 보며 작업반장으로서의 남다른 긍지를 느끼게 된다。

지난 七개월 간에 우리 작업반에서는 一二명의 무기능공들이 五급、六급、七급공으로 되였고 나머지 五명도 공작기계들을 자립적으로 조종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게 되였다。

기술 수준의 장성과 함께 七개월 간에 로동 생산 능률이 四五%나 제고되였다。

공장에 들어 온지 一년도 못되는 김태화는 현대적인 선반기 『끼로브』를 능숙하게 조종하고 있다。그의 생산 실적은 一五〇%를 넘는다。

반년전 까지만 하여도 농촌에서 김매는 처녀였던 윤정실도 제법 기대의 핸들을 잡고 가공물을 바이트에 먹이고 있다。그는 자기 고향 동무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나는 반년전 동무들과 작별하며 걱정하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그때 우리는 경험 없이 어떻게 공장에 가서 일할 수 있을까 고 근심들 했었습니다。그러나 정작 공장에 와보니 농촌에서 생각하던 것과는 딴 판입니다。인민의 공장은 나로 하여금 짧은 기간에 기계공이 되게 하였습니다。특히 기술 전습회는 나의 훌륭한 학교였습니다』

나의 기술 전습장에는 지난 七개월 간 二九회의 기술 전습회를 가진 간단한 내용들이 기록되여 있다。

여기에서 반원들은 二〇여가지의 기술을 전습하였다。

우리가 년초에 조직하였던 몇번의 기술 전습회는 성과가 극히 적었다。

『선반기의 절삭 속도와 절삭 능률』, 『기계 제작 공업의 지위』 등의 제목을 가지고 기술 전습회를 조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목은 우리들의 준비 정도에는 알맞지 않았다.

반원들중 一一명은 농촌에서 갓 들어왔거나 로동 경험이 퍽 어린 동무들이였다. 그러한 동무들에게 공작 기계 일반에 대한 리론은 흥미를 주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작업에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초급단체 위원회는 이러한 결함을 제때에 발견하고 시정 대책을 세웠다.

『대상의 수준에 알맞게 체계적이며 구체적으로 기술 전습회를 진행할 것이다』 二월초에 소집된 초급단체 총회는 이렇게 결정하였다.

그후 우리는 반원들의 광범한 토의를 거쳐 『선반기의 성능』, 『작업 준비』, 『가공물 설치』, 『핸들 조종』 등 제목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금방 선반 작업을 배우기 시작한 신입 로동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그들은 하루의 작업에서 체험한 지식과 의문되는 것들을 회상하면서 기술 전습에서의 강의를 주의 깊게 들었다.



☆남포제련소 공무직장 제2청년작업반에서의 기술전습회☆

기술 전습회 지도자는 기대 앞에서 표준 조작법에 근거하여 제강을 해설하였다. 특히 지도자는 수준이 어린 동무들의 요구에 의하여 어려운 문제들은 실지 작업 동작으로 시범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렸다. 동시에 청강자들도 전습회에서 제강에 근거한 동작 실습을 하였다.

무기능공들에게 있어서 작업 동작 실습은 작업 방법을 체득하는 아주 좋은 방법으로 되였다.

그러나 기술 전습 시간 내에(二시간) 전체 청강자들이 다 실습할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 전체 청강자들에게 실습을 보장하여 주겠는가? 여기에서 개별 담당 지도제가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

우리 반에서는 기능공들이 무기능공들을, 기능 급수가 높은 동무들이 급수가 낮은 동무들을 한명씩 담당 지도하는 사업이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있다.

지도하는 동무는 자기가 책임진 동무를 표준 조작법과 특히 기술 전습회에서 취급된 문제를 중심으로 작업 행정

을 통하여 친절히 배워 준다.

친절한 개별 담당 지도를 통하여 기술 어린 동무들은 기술 전습회에서 배운 리론을 생산에 적용하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기술 전습회가 기계에 경험 없는 신입 로동 청년들을 대상하는 것만큼 간단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체계 있게 복잡한 기술 문제들을 취급하였다. 동시에 초기에는 특히 개별 지도를 강화하여 신입 로동 청년들로 하여금 기대 조종에 속히 익숙하여지도록 도와 주었다.

너달이 지났다. 七명의 동무들이 표준 조작법을 알고 공작 기계 한대씩을 조종할 수 있게 되였다.

특히 기술 전습회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여 충실히 배우며 개별 지도를 받은 리경숙은 기능공이 되였다.

금년 五월부터 우리는 더 높은 수준에서 기술 전습회를 진행하게 되였다.

너달 동안 적지 않은 것을 배운 청강자들은 한걸음 전진을 요구하였다.

기술 전습회는 보다 흥미 있고 복잡한 기술 문제들을 취급하게 되였다. 례를 들어 『치차 계산법』, 『바이트 가는법』, 『빠스 사용법』, 『심 잡는 법』 등등. 이때부터 우리는 목요일을 기술 전습일로 정하였다. 이날이면 반원들은 작업을 마치자 자각적으로 한 기대 앞에 모여 앉았다. 다소 수준이 높아진 청강자들은 보다 우수한 지도자를 요구했다. 이제까지의 기술 전습회는 주로 내가 지도했다.

그러나 이제와서 나에게는 청강자들의 요구에 원만히 수응할만한 지식이 부족하였다.

초급당과의 협의하에 기사들을 기술 전습 지도자로하였다.

그리하여 五월부터 기술 전습회는 나와 김찬룡 기사와 직공장이 교대로 지도하게 되였다. 기사는 주로 리론적인 문제들, 직공장은 그보다 다소 쉬운 것을, 나는 주로 표준 조작법들을 가지고 기술 전습회에 출연했다.

기술 전습회에서 취급되는 모든 문제들을 작업상 현실적인 문제와 밀접히 련결시키기에 힘썼다. 六월 초에 선반공 윤은진은 주라사보트의 오작품을 생산했다.

나는 그의 기술적 원인을 기사들과 함께 깊이 연구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갖춘 나는 『기대의 철저한 점검과 강도 보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술 전습회를 지도하였다.

여기에서 나는 박영숙이 오작품을 내게 된 원인을 기술적으로 해명하면서 그의 예방 대책을 강구하였다.

오작품은 선반 기야가 공전하는 순간 브랏씨의 속도가 감축되기 때문에 생긴 것이였다. 이러한 오작품은 항상 선반기를 철저히 점검하면서 각 부분의 라사를 튼튼히 죄워 기대의 높은 강도를 보장한다면 근절될 수 있다. 청강자들은 기술 전습회를 통하여 주라사보트의 오작품을 근절하는 방법을 과학적으로 해명하게 되였다.

그들의 얻은 지식은 곧 작업에서 효과를 얻게 되였다。 기술 전습회는 항상 새 기술、새 작업 방법의 전취를 중요한 과업으로 자기 앞에 내 세운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끌레쏘브 강력 절삭법을 연구해 왔다。

여러 동무들이 그의 적용을 위해 투쟁하면서 좋은 경험을 쌓아왔다。 젊은 기자들도 함께 연구하여 왔다。 기술 전습회에서는 모든 동무들의 경험이 종합되였다。

드디여 기술 전습회는 리상택으로 하여금 끌레쏘브 강력 절삭법의 적용에 성공케 하였다。

그의 경험은 다시 기술 전습회를 통하여 전체 동무들에게 보급되고 있다。 반년도 못되는 기간에 기술 전습회는 전체 반원들에게 많은 기술을 배양시켰다。 그러나 우리의 사업 행정에는 새로운 결함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일정한 한도의 기술을 소유한 몇몇 동무들이 자기의 자소한 기술을 과신하면서 자만하게 되였다。 七급공 리상운은 때때로 기술 전습회에 빠지군 하였다。

『전습회에서 더 배울 것이 없어…이만하면 어디로 가든지 제 노릇을 할 수 있어…』하고 더 배우려 하지 않았다。

당 세포 위원회는 제때에 우리 작업반의 기술 전습회가 가지고 있는 결함과 그의 시정 대책을 가르쳐 주었다。 기술 전습회에서 취급되는 문제는 반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대의 조작법에 관한 것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다소 수준이 높아진 동무들이 흥미를 덜 가지게 되였던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세포 위원회가 지시한대로 사업을 개선하였다。 이따금씩 기술 전습회에서는 쏘련의 우수한 기술들을 연구했다。 『쏘련의 고속도 선반기들』、『쏘련의 기계 공업의 발전』、『현대적 기계학』등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이와 류사한 문제들이 기술 강연회에서도 취급되였다。

기술 전습회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토의될 때에는 반드시 해당 부문 기사들이 참가하였다。

반원들은 선진 기술에 대한 새로운 의욕을 가지게 되였으며 선진、과학 기술을 전망하는 시야를 훨씬 넓히게 되였다。 지금 전체 반원들은 기술 전습회에 더욱 열성적으로 참가하여 선진 기술을 배우고 있다。 로동자들의 기술 수준 향상은 새 기준량을 창조하게 된다。 五월에 우리는 작업반에 맡겨진 국가 계획을 一一七%로 초과 실행하였다。

七월에 작업반 기준량은 六월에 비해 三〇%나 높아졌지만 우리는 이것도 一一三%로 초과 실행하였다。

날로 상승하는 생산 실적은 반원들의 기술 장성을 말하여 주는 뚜렷한 증거이다。

우리 제련소에는 쏘련으로부터 이미 많은 기계들이 수입되였다。 앞으로 보다 우수한 공작 기계들을 쏘련의 벗들로부터 우리는 받게 된다。 반원들은 로동과 기술 전습회를 통하여 보다 우수한 기계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종할 수 있게 준비되여 가고 있다。

얼마 안되여 전체 반원들이 자기의 기술 수준을 한급씩 높이게 될 것이다。

초급단체 총회에서 생산 문제를 어떻게 토의할 것인가

민청 중앙 위원회
조직부 부부장 정 동 식

오늘 전체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앙양된 로력적 열성으로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 三개년 계획의 첫 상반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고 금년도 년간 계획을 초과 완수하기 위한 치렬한 증산 경쟁 운동에 나서고 있다。 그들은 로동당 중앙 위원회 三월 전원회의에서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의 교시를 명심하고 전국 청년 열성자 대회 호소에 호응 궐기하여 지난 날의 결함들을 현저히 개선하면서 애국적인 증산 경쟁 운동에 광범히 참가하여 로력적 위훈을 세우고 있다。

민청원들과 청년들의 이와 같이 앙양된 정치적 열성과 로력적 적극성은 공장、기업소 내 민청 초급 단체들의 사업을 더욱 높은 계단으로 시급히 개선 발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따라서 초급 단체 총회의 정치 사상적 수준을 제고하며 조직적 및 동원적 기능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초급 단체 총회는 당과 정부의 정책과 국가의 경제 계획 실행에서의 민청원들의 구체적 과업들을 토의하며 민청원들을 그 실천에로 고무 추동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여야 한다。

초급 단체 총회가 높은 정치적 수준에서 진행되며 민청원들의 진정한 학교로 되기 위하여서는 회의에서 민청원들의 생산 활동 정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그들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과업들을 깊이 인식시킴으로써 스스로 자기의 임무에 대하여 자각하며 생산에서 주인이 되여 온갖 창발성을 발휘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오늘 생산 직장 내 초급 단체 총회들은 이 요구에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그리고 보편적인 결함의 하나는 초급 단체 총회에서 문제 토의가 아주 막연하게 형식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즉 민청 단체들과 매개 민청원들이 국가 생산 계획을 완수 및 초과 완수하기 위한 증산 경쟁 운동에 어떻게 참가하며 따라서 자기의 경쟁 의무를 어떻게 실행하며 기술 기능 수준 제고를 위하여 어떻게 노력하며 오작품 퇴치、기계 애호、생산 규률과 질서의 준수 등 구체적 문제들에 대하여 세밀하게 평가하며 생산 과제를 실행하지 못하는 원인들을 철저히 규명하며 그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이 광범한 창조적 의견에 의하여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다수 경우에 "어느 달 사업 총화와 다음달 사업 계획에 대하여"、"증산 경쟁 운동을 강화할 데 대하여"、"로동 규률을 강화할 데 대하여" 등 극히 막연한 구호를 내 놓고 만세를 부르는 형식으로 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실례로 평북도 북중 기계 제작소 가

공 제二분 초급단체는 금년 一월부터 五월까지 五회의 총회를 진행하였는데 一월에는 "조선 로동당 지도 기관 결산— 선거와 동맹 창립 八주년 기념을 높은 증산으로 맞자", 二월에는 "一월중 사업 총화와 二월중 과업에 대하여", 三월에는 "二월중 사업 총화와 학습 총화 사업을 여하히 할 것인가", 四월에는 "세계 청년 주간을 높은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자", 五월에는 "三월 전원 회의에서의 수령의 교시에 대하여" 등을 토의하였다。 문제 토의가 이렇게 막연하였기 때문에 민청원들의 생산 활동에서 구체적인 정형이 심오하게 분석 평가되지 못하였음은 물론 민청원들이 자기가 생산에서 얼마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 행정에서 결함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노력하여야 하겠다는 것이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곳 초급 단체 총회에서는 민청원들의 광범한 창조적 토론이 제기되지 않았고 날카로운 비판과 자아 비판들이 전개되지 못하였으며 회의가 초급 단체 위원장이나 몇몇 열성자들의 연설로써 그치게 되였다。 이러한 총회는 민청원들을 그들의 생산, 계획을 초과 완수하도록 교양 훈련하는 학교로 될 수 없으며 그들의 적극성과 창조적 열성을 불러 일으키는 수단으로는 될 수 없었다。 초급 단체들이 총회를 충실하고 내용 있게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들이 반드시 고려되여야 한다。

그것은 첫째로 총회에서 어떠한 문제를 토의하며 무엇을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회의에서 토의할 문제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은 회의의 성과를 크게 좌우한다。

총회에서 토의할 문제는 그 초급 단체가 사업하는 직장의 현실적인 조건을 구체적으로 타산하고 민청원들의 생산 활동 정형을 세심히 분석한 토대 위에서 가장 절실한 것, 민청원들에게 그가 생산 계획을 초과 완수하는 투쟁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을 선택하여야 한다。 또한 그 문제를 토의함으로써 어떠한 것들을 민청원들에게 교양해야 하겠다는 명확한 목적과 지향을 가지고, 문제를 설정하여야 한다。 례를 들면 민청원들이 증산 경쟁 운동에 참가하여 자기의 경쟁 의무를 달성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로되였을 때 총회에서 월간 민청원들의 증산 경쟁 의무 실행에 관한 총화를 토의할 수 있으며 더 구체적으로는 어느 동무가 증산 경쟁 의무를 어떻게 실행하였는가 하는 문제를 토의할 수 있다。 또한 민청원들 속에서 새로운 창의 고안이 발생하였다면 총회에서 그 동무가 창의 고안을 하기 위하여 어떻게 노력하였는가에 대하여 문제를 설정하고 본인을 사전에 준비시켜 보고케 하고 전체 민청원들이 그를 모범 받게 하는 방향에서 총회를 진행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일 것이다。 특히 동맹 교양 사업과 민청원들의 동맹 조직 생활에 대한 문제들을 토의함에 있어서도 민청원들이 학습에 태공한 결과 생산에서 락후한 현상과 학습에 열성적인 민청원이 자기의 생산 계획을 넘쳐 질행하는 모범을 결부시켜 토의할 수 있으며 동맹 생활에 충실한 민청원과 동맹 규률을 위반하는 민청원이 각각 자기의 생산 투쟁에서 발로한 결과들을 결부시켜 토의함으로써 민청원들의 학습과 동맹 조직 생활에

구락부의 밤

독자들 편지에서

처음으로 우리 공장을 찾아 오는 손님들은 정문에 들어서면서부터 누구나 오른쪽 말쑥한 건물에 눈이 쏠리군 한다

이른 봄날 우리 공장 민청원들의 힘으로 세워진 구락부가 있기 때문이다

하루 해가 저물어 간다

사람들이 들어 앉기 전에는 패 넓어 보이는 구락부이건만 어둠이 슬며이 깃들 무렵부터는 좁아진다

젊은 로동자들이 삼삼 오오 어깨를 겯고 구락부로 모여 들기 시작한다

오늘의 생산 도표를 보려온 사람들, 노래와 춤으로 즐기려온 젊은 로동자들, 바둑, 장기들 놀려 온 사람들로 구락부는 홍성거린다

빨간 선이 줄곧 위로 뻗어 올라간 생산 도표를 보고 있던 완성공 김영재는 저도 모르는 재 웃음어린 얼굴을 짓고 있였다

『오늘도 영재 동무는 一二〇%이구만…』하고 뒷켠에서 있던 고태경 동무는 영재 동무의 생산 책임량 넘수를 축하해 주며 래일의 더 빛나을 증산 경쟁을 서로 언약하는 것이였다

『이번 달 안으로 우리 보미가다에서는 탈곡기를 만들어 농촌으로 보낼 계획이라네』

『그래 우리들의 손으로 만든 탈곡기로 탈곡하는 것을 볼때는 참으로 기쁠거야』

김영재 동무와 고태경 동무는 자기들의 보람찬 재 로력의 열매 맺을 날을 그려 보는 것이였다

휘황한 전등불보다 구락부 안은 노래와 웃음소리로 하여 더욱 밝고 명랑하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 보다 래일이 더 아름다워질 새 생활의 웃음과 노래 소리가 쨍쨍 밤 구내를 울려 퍼져 나간다

무대 위에는 六〇여명의 청년 합창단에 망라된 민청원들의 늠늠한 얼굴들이 줄 지여 노래를 불렀다

『다음은 김영재 동무의 키타 독주입니다 곡목은』

소개가 끝나자 김영재는 키타를 타기 시작했다

이 키타는 목공반에 있는 허직 동무가 창의 고안해 낸 것이다

베니야 널판자와 그리고 미국놈들로부터 로획한 전화선으로 만든 키타이다

김영재 동무는 키타 소리에 장단을 맞추어 가면서 어깨 춤까지 추는 것이였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 공장 구락부에서는 여러가지 새로운 노래들과 춤을 추고 있다

가끔 시도 읊으며 때로는 조용히들 쏘련 화보들과 신문 독보회를 가지군 한다

얼마 전에 김영수 동무가 창작한 "스켓취" 즐거운 휴식 시간"은 대인기를 끌며 공연한 바 있었다

영예로운 로동을 하고 있는 우리 공장 로동자들의 문화적 휴식을 무대 위에 잘 나타내였다

예전 해 미제와 리승만 통치 시대에는 우리의 로동이 천한 고 착취받는 것이였지만 공화국 품에 안긴 이후 우리들의 로동 생활은 참으로 영예롭고 영웅다운 일로 되였다

오늘 우리들의 로동은 부강하고 통일 독립된 조국을 건설하며 민주 기지 강화를 위한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 三개년 계획의 완수 및 초과 완수에로 이바지하고 있다

실로 우리들은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의 따뜻한 배려 밑에 일하며 배우며 노래 부르며 춤을 추고 있는 향기 높은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

어느듯 흥겨운 구락부의 밤이 깊어간다 우리들은 래일의 보다 높은 생산 성과를 마음속에 다지며 오늘밤을 즐겁게 보낸다

개성시 농기구 종합 공장
민청 초급 단체 **한 주 현**

대한 충실성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다. 총회에서 토의할 문제를 설정할 때에는 그것이 몇몇 위원들의 의견에 의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광범한 열성자들의 창발적 의견을 종합하여야 하며 당 단체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둘째로, 총회에서 토의할 문제를 정확하게 설정한 다음에는 총회의 성과는 그 준비 여하에 많이 달려 있다. 회의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의에 제출할 보고 준비이다.

초급 단체 총회의 보고는 장황한 문장을 만들어 연설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보고에는 매개 민청원들의 생산에서의 활동 정형과 자기 계획을 완수하지 못한 원인과 그것을 시정하기 위한 과업 등 생생하며 구체적인 내용이 반영되여야 한다.

다음으로 총회의 보고는 이미 결정한 과업들의 실행 정형이 정확히 총화되여 실행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 구명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오작품, 기계 파손, 원료와 자재의 랑비, 로동 규률의 위반 등에 대하여 그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구명함으로써 민청원들이 그 사실에 대하여 정당한 판단을 하게 하여야 한다. 그와 반면에 자기의 생산 계획을 넘쳐 실행한 모범적인 민청원들은 높이 찬양하여 주며 생산에서 새로운 창안과 우수한 경험을 지지 찬양하는 동시에 그가 그와 같은 모범을 발휘하게 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전체 민청원들로 하여금 그를 본받게 하도록 보고가 준비되여야 한다.

회의 준비를 이와 같이 잘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초급 단체 위원장이나 몇몇 간부들의 협소한 견해만 가지고서는 보고가 잘 될 수 없다. 생산에서 모범적인 광범한 열성 맹원들의 의견을 종합하며 기사, 기술자들과 행정 관리 간부들과 협의하여 그들의 방조를 받아서 보고 자료를 종합하여야 하며 종합된 것을 당 단체의 지도 하에 완성하여야 한다. 례하면 민청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한 문제라든가 어느 민청원이 새로운 창의를 하였을 때 이 문제를 회의에서 토의하려면 기술자들의 기술적 조언과 방조를 받아야 하며 행정 관리 간부들과 사전에 토의하여 해당한 조건들을 보장 받는 방향에서 회의가 준비되는 때에라야만 토의되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 동시에 총회에서 토의될 문제의 내용을 사전에 매개 민청원들에 전달하여 그들이 회의에서 토의될 문제에 대하여 각자가 연구케 하며 또한 자기의 생산 활동에서 발로되는 제 결함의 원인을 스스로 밝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시정 방법까지 연구하여 회의에서 옳게 토론하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이와 같이 회의의 준비를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전체 민청원들의 우수한 경험과 창조적 의견을 회의가 목적한 방향에로 유도할 수 있으며 민청원들을 생산 활동에 힘차게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풍부한 교양적 내용과 조직적 및 동원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세째로는 총회의 진행에 관한 문제이다. 총회의 주인은 어데까지나 그 총회에 참가한 민청원들이 되여야 한다. 즉 전체 민청원들이 토의되는 문제에 대하여 높은 열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토의에 참가하며 자기들 앞에 부과된 국가의 생산 계획을 초과 완수하기 위하여 좋은 의견과 구체적인 대책

을 제기하도록 조건을 지어 주어야 한다. 또한 회의는 날카로운 비판과 자아 비판의 정신이 충만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여야 한다. 생산 과제의 미달성, 오작품의 생산, 기계의 사고, 로동 규률을 위반하는 현상에 대하여서는 사소한 것일찌라도, 융화함이 없이 비판하며 그 원인을 규명하며 책임을 추궁하는 대중적인 투쟁이 회의에서 전개되여야 한다. 회의가 이렇게 진행됨으로써 매개 민청원들이 총회에서 자기의 생산 활동을 정확하게 평가 받도록 하며 총회에서 결정된 과업의 실천에서 자각성과 책임성을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이리하여 총회는 전체 민청원들의 적극적인 토론과 창발적 의견에 기초하여 자기의 결정을 채택할 것인바 결정은 매개 과업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생산 직장 내 민청 초급 단체 총회의 정치 교양적 수준을 일층 높임으로써 민청원들을 三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완수 및 초과 완수를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로력적 위훈을 세우도록 고무할 것이다.

생산혁신자들의 작업방법

최명찬의 무사고 주행 운동은 어떤 것인가?

젊은 기관사 최명찬은 쏘련의 선진적 기관사인 무넌의 자검 자수 운동을 우리 나라 현실에 적합하게 적용시켰다.

그는 一九五三년 一월부터 一一월 一四일까지 어간에 三만 키로를 무사고 주행하였으며 一二월 一七일 一二시에는 四만 키로 무사고 주행을 완수하였다. 년말까지는 六六一차량을 더 초과 견인하였다.

그는 이와 같은 경험에 기초하여 一九五四년도에는 五만 키로 무사고 주행을 목표로 하고 힘찬 로력 투쟁을 하고 있다.

그의 증송 경쟁의 투쟁 목표는 다음과 같다.

견인 초과 운동은 一매개 렬차마다 二五〇—三〇〇톤을 더 견인하며 기관차의 소수리 부문은 자체로 하며 운전 방법에 있어서는 평단에서 리바를 五〇—六〇%, 상구배선 운전시는 탄력 운전으로 리바를 三〇—四〇%로 조절하여 기관차의 공전을 없이하고 다이야 마모률을 감소시킨다. 한편 증기 압력 보장에 있어서는 一二키로 이상 一三—一四키로 보장할 것 등이다.

그는 무사고 주행 뿐만 아니라 견인 정수 초과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기 위하여 렬차 출발 사전에 렬차 조성 여부을 승무원들과 협의하여 공기가 새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한다. 이리하여 그는 금년 상반년 기간에 실로 三九、一〇〇톤을 초과 견인하였다.

자검 자수 운동에서도 그는 빛나는 업적을 쌓아 올리고 있다. 그는 수리 공구 五三종을 비치하고 자검 자수를 훌륭히 보장하고 있는바 금년 상반년도 기간만 하여도 一八五건의 수리 사업을 자체로 보장하여 각종 부속품의 수명을 연장시켰으며 기관차의 운용률을 제고시켰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행 계획 六만키로에 대하여 七월 五일 현재 三五、六二〇•八키로를 주행하고도 앞으로 四만키로를 더 주파할 것이 예견되고 있다.

최명찬은 당과 수령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석탄 절약을 위한 투쟁에서도 모범이 되고 있다. 그는 세삽 투탄법을 철저히 실시하여 二〇분 이상 정차시에는 반드시 열통을 막는 창의적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결과 금년 상반년 기간만 하여도 석탄 소비 계획을 八五•八%로 저하시킴으로써 一二二톤의 석탄을 절약하였다.

그의 이와 같은 선진 작업 방법은 금년도 주행 계획을 六월 一〇일에 一〇七%로 완수하였다. 최명찬의 이와같은 애국적 운동은 젊은 수송 전사들을 증송 투쟁에로 고무하고 있다.

청년 군무자들 속에서의 독서 사업

조선 인민군 우편함 제 三二〇三호
민청 분 초급 단체 위원장
민 영 철

우리 분 초급 단체 청년 군무자들 속에서 책을 읽는 것은 생활화 되고 있다。

지난 七월 한달 동안만 하여도 우리 분 초급 단체의 민청원들은 二〇七권의 각종 정치、경제、문화 서적들을 읽었다。

생활화 된 독서 사업은 청년 군무자들의 정치 문화적 수준을 높여 주며 고상한 도덕적 품성을 배양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 우리 분 초급 단체 민청원들의 독서 의욕이 제고되였는가?

종전 우리 분 초급 단체의 일부 민청원들은 책을 잘 읽으려 하지 않았으며 또 어떤 동지들은 책을 장식물처럼 끼고만 다녔다。

이것은 분 초급 단체 위원회가 청년 군무자들의 독서 사업을 잘 지도하지 않은 결과였다。

분 초급 단체 위원회는 청년 군무자들의 독서 의욕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서적은 청년들의 가장 친근한 벗이며 교양자이다』라는 제목으로 총회를 진행하였다。

이 총회는 민청원들의 독서 의욕을 높여 주는 계기로 되였다。

그후 분 초급 단체 위원회는 청년 군무자들 속에서 신간 서적들을 소개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정치 상학이 끝난 시간、작업중 휴식 시간、각종 회의의 시작 전과 끝난 후를 리용하여 신간 서적에 대하여 제목과 내용을 소개하는 한편 〃신간 서적 소개판〃을 만들어 효과 있게 리용하였다。

〃신간 서적 소개판〃에는 책 이름과 작자명과 책의 간단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분 초급 단체 위원회는 신간 서적을 소개한 다음 민청원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그들의 개별적 취미、성격、생활 감정、지식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서적을 읽도록 지도하였다。

례를 들어 부대에 새로 입대하여 독서에 취미를 붙이지 못하고 있던 손대선 동지에게는 〃조야와 수라〃를、수준이 어린 유종조、김공열 동지에게는 〃전우를 도와〃、〃나따샤〃를、군무 생활에 불성실하던 김석철 동지에게는 〃전우 및 쏘베트 청년들의 우정과 동지애〃를、언제나 유쾌하고 명랑하며 감수성이 풍부한 김형욱、리성찬 동지들에게는 〃게오르기 쏘로낀의 생활기〃 등을 읽게 하였다。

한편 분 초급 단체 위원회는 『도서 구독 그라프』를 만들어 민청원들의 독서 정형을 표시하였다。

다음으로 분 초급 단체 위원회는 독서 지도에 있어서 민청원들이 서적의 내용을 깊이 리해하도록 하는데 주의를 돌렸다。

분 초급 단체 위원회는 민청원들이 자기가 읽은 책의 내용을 발표케 하는 한편 〃독후감 기록부〃를 만들어 읽은 책에 대한 감상을 기입하게 하였다。

분 초급단체 위원들은 정치 부중대장의 방조를 받아 민청원들이 책을 읽은 정형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주는 사업도 수시로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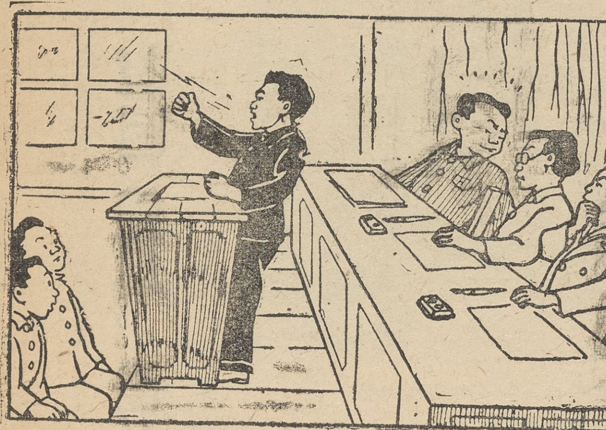
이리하여 청년 군무자들의 독서 사업은 활발히 진행되였으며 생활화되기 시작하였다

다음으로 우리 분 초급 단체는 독서 사업을 부대 전투 과업과 밀접히 결부시켜 성과 있게 진행하고 있다。

〃공병삽〃、〃전사의 량심〃、〃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였는가〃、〃새 언덕으로〃 등의 독서는 청년 군무자들로 하여금 부대의 전투 임무 수행에서 충실성과 자각성을 더욱 높이여 주었다。

우리 분 초급 단체는 앞으로 청년 군무자들 속에서 독서 사업 지도를 더욱 효과 있게 진행하며 서적에서 배운 지식을 실지 생활과 련결시켜 조국과 인민을 위한 투쟁에 헌신 복무하도록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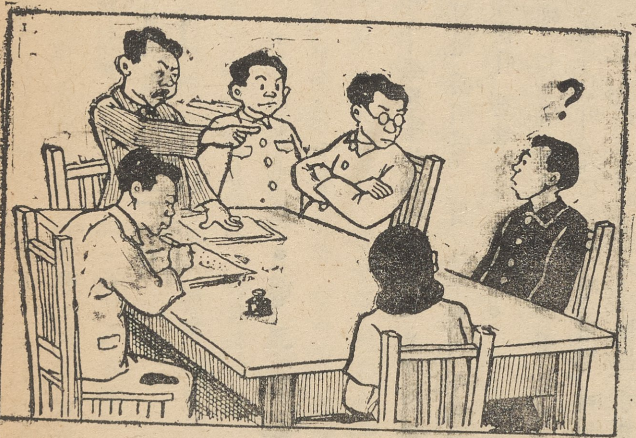
무엇이 밑으로부터의 비판을 억제하는가?



어느 열성자 회의에서 리 민청 위원장은 시민청 지도기관 사업에 대하여 정당하게 비판하였다

집행부에 앉은 민청 위원장은 기분이 상했다 그는『복수』를 결의했다

며칠후 민청 위원장은『검열원』을 파견하여 리



민청 사업을 검열하게 한 후 상무 위원회에서 리 민청 위원장에게『책벌』을 주었다

강원도 어느 민청 단체에서는 밑으로 부터의 비판이 이렇게 억제되고 있다

청년 도시 꼼쏘몰쓰끄•나•아무레

프•벨르호쓰또브

『멀리 떠러진 인간 미도의 산림속 장엄한 아무르 강변에 공청원들이 자가 이름의 도시 꼼쏘몰쓰끄를 건설하였다는 것은 후대의 기억에 남아 있을 것이다』

므•이•깔리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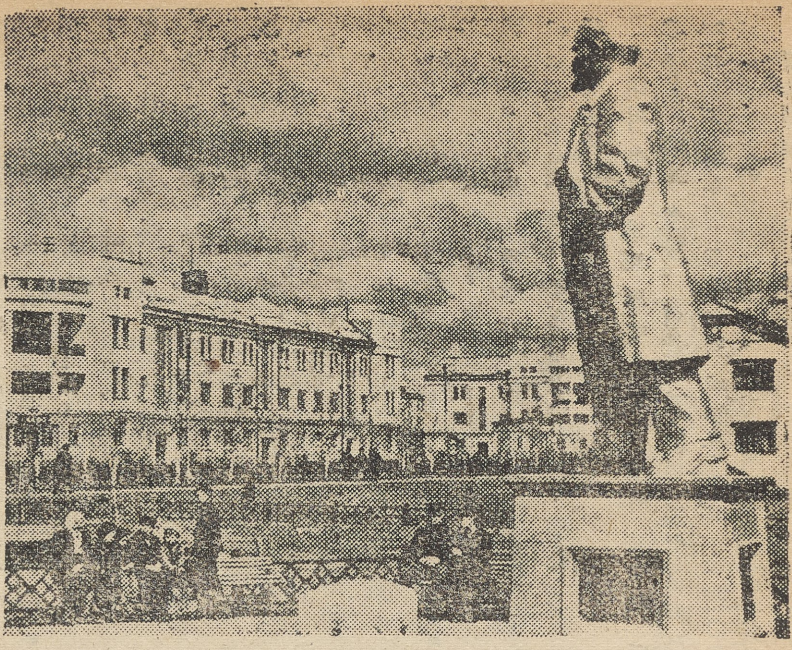
그것은 一九三二년의 일이였다. 공산당에 의하여 지도되는 쏘베트 인민은 사회주의 건설의 거대한 계획을 실현하였다. 국내에서는 도처에 새로운 공장들과 제작소들이 건설되고 이미 있던 것들은 확장되였으며 발전소들이 건설되고 새 도시의 집터들이 닦아졌다. 그때 당과 정부는 아무르 강변에 새로운 사회주의적 도시를 건설할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쏘베트 사람들과 특히 청년들은 당과 정부의 결정을 열렬히 지지하여 나섰다. 一九三二년 三월 첫 공청원 대표들이 깊숙한 원동 밀림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모쓰크바와 레닌그라드에서、 쓰몰렌쓰끄와 하리꼬브에서 및 기타 국내 여러 도시에서 왔던 것이다. 첫 그루빠에 뒤이여서 수 천명의 젊은 애국자들이 건설장에로 왔다.

역시 그해 七월에 건설장에서는 첫 공청 대표 회의가 개최되였다. 건설자들의 九〇%가 전 련맹 레닌 공산 청년 동맹원이였던 까닭에 회의 참가자들은 건설되고 있는 도시에게 『꼼쏘몰쓰끄』의 명칭을 부여할 것을 정부와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회의 참가자들의 요청은 충족되였다. 지도 위에는 새로운 도시—꼼쏘몰쓰끄•나•아무레가 나타났다. 그러나 그때에는 그것이 지도 위에 표식되여 있을 다름이였다. 일찌기 없었던 곤난한 조건에서 그것을 건설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것이다.

첫 건설자들은 특히 힘들었다. 겨울엔 살을 베여내는 듯한 추위가 계속되였으며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천막 혹은 토굴 속에 살지 않으면 안되였으며 때로는 식료품까지도 부족하였다. 그러나 젊은 애국자들은 이러한 난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당의 과업을 실행하고 도시를 건설하려는 결의에 가득차 있었다. 누구나 다 자기들은 림시로 천막 혹은 토굴 속에 살고 있으며 이 자리에는 오래지 않아 새로 정비된 집들이 일어서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 꼼쏘볼쓰크•나•아무레시 레닌 구역내 주택들 ☆

휴식을 모르면서 꼼쏘몰쓰끄•나•아무레의 건설자들은 수세기를 내려온 나무를 찍었으며 뿌리를 캐였으며 도로를 부설하고 장래의 주택 및 공업 기업소의 기반을 팠으며 건축자료들을 제작하였다.

가로와 광장을 위한 자리를 남겨 가면서 밀림은 점점 멀리 밀려 들어갔다. 건설장에는 자주 정량 이상의 짐을 실은 짐배를 끌고 증기선들이 찾아왔다. 빨리 짐을 부리우고는 또다시 건설장을 위하여 필요한 짐을 실으려 떠나갔다.

선박들은 아무리 늦은 밤중이라 할찌라도 강안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를 않았다. 이 열성 속에는 규률과 환경에 대한 리해가 잘 표현되여 있었다. 누구나 다 자기를 도시의 단순한 건설자가 아니라 그의 장래의 주인으로 생각하였다. 참으로 진정하고 영웅적이고 헌신적인 로동은 건설자들을 결합시켰다. 그들 사이에서의 공산당원들은 단결자의 역할을 놀았다.

건설자들의 힘—에네르기 및 불요불굴성은 난관과의 투쟁에서 발생하고 발전한 그들의 명쾌한 친선 속에서 소생하였다. 청년 남녀들은 용감해졌으며 공산주의의 적극적인 건설자로 되였다. 아무르 강변에 건설되기 시작한 도시는 위대한 조국 전쟁 전야에도 전 속도로써 계속 건설되였다.

전쟁의 어려운 시기에도 여기서는 건설 사업이 계속되였다. 도시의 첫 건설자들의 훌륭한 전통으로 교양된 꼼쏘몰쓰끄의 근로자들은 적에 대한 승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였다. 그들 중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조국의 영예와 독립을 고수하면서 전선에서 싸웠다.

전후 시기에 시내에서는 건설 사업이 특히 광범한 범위에서 전개되였다.

짧은 기간에 꼼쏘몰쓰끄•나•아무레는 쏘베트 원동의 대공업 및 문화 중심지로 되였다. 지금 시내에는 백여개의 공업 및 문화 건물、예술 극장들、수一〇개의 문화궁전、기사

기수 공전, 학교, 영화관, 六一개의 도서관, 정비된 많은 주택들이 있다. 화력 발전소는 벌써 오래 전에 조업을 개시하였다. 시내에는 전력에 대한 부족이 없다. 공업 기업소들의 굴뚝은 밤낮으로 연기를 뿜고 있다.

정연하게 나무를 심근 아스팔트로 포장된 곧고 넓은 대통로는 몇키로의 거리로 뻗쳐 있다. 공원, 가두 공원, 경기장들도 많다. 시내에는 약 一백 헥타의 과수원이 있다.

시 부근에는 아스팔트 대로로써 도시 중앙과 련결되여 있는 정비된 로동자 부락들이 있다. 극히 최근까지도 이 쓰또민 명칭 촌락 끝은 비여 있었다. 지금 여기에는 또 하나의 二층 주택 소도시가 생겨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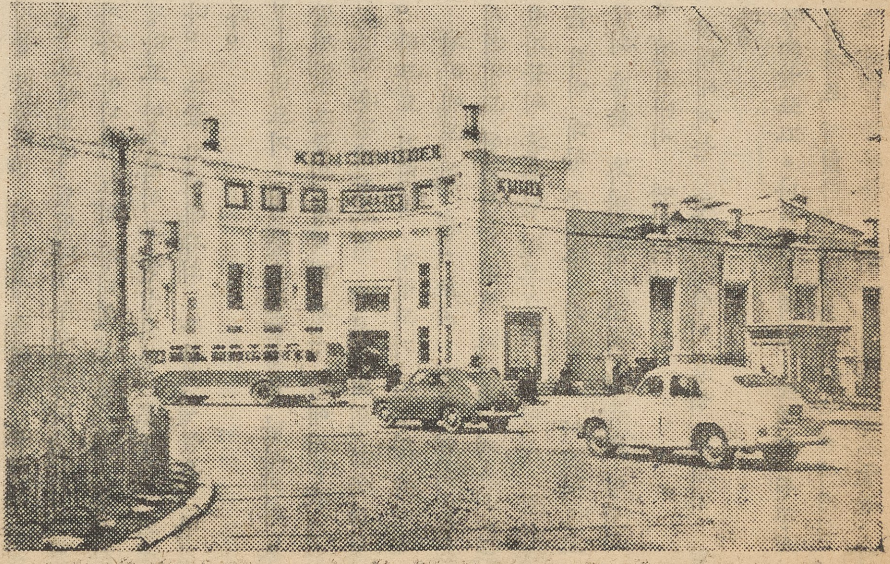
꼼쏘몰쓰끄·나·아무레는 확장되며 또 더욱 정비되고 있다. 一九五三년에는 이곳 주민들이 五만평방 메터 이상의 주택 면적을 받았다. 작년에 시내의 쓰딸린 지구에서만 하여도 몇개의 다층 주택, 세개의 학교, 세개의 유치원과 두개의 탁아소가 건설되였으며 八개의 새로운 상점이 개점되였다. 까까운 시기에 一〇만 평방 메터 이상의 주택을 받을 것이다. 즉 소도시를 이루는 六동의 건물로 된 새 병원이 준공될 것이며 一五개의 상점, 몇개의 학교, 구락부들이 개설될 것이다. 제봉 공장과 가구 공장, 빵 공장, 여러가지 칼을 만드는 공장, 수육 꼼비나트 및 기타 공업 기업소들의 건설이 시작되고 있다.

시내의 중앙 가로 뿐만 아니라 그의 교외도 확장되며 또 훌륭해 지고 있다. 이를테면 四년 전에 마이쓰끄 촌락에는 三六호의 가옥이 있었는데 지금은 벌써 一三〇호가 있다. 여기에는 학교, 구락부, 상점들이 개설되여 있다.

꼼쏘몰쓰끄·나·아무레의 주민들은 자기 도시를 사랑하고 있다. 그들은 정성껏 록지를 보호하며 그것을 더욱 정비하기 위한 커다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넓은 가로, 아름다운 건물, 록지가 많은 도시 꼼쏘몰쓰끄·나·아무레는 아무르강이 구불어진 산등턱에 자리 잡고 있다. 살기 좋은 가옥들이 있는 촌락들이 몇키로나 면 교외에까지 자리 잡고 있다. 하바로브쓰끄에로, 태양에로, 나나이 끌호즈에로, 각 방향에로 철로 대도로들이 뻗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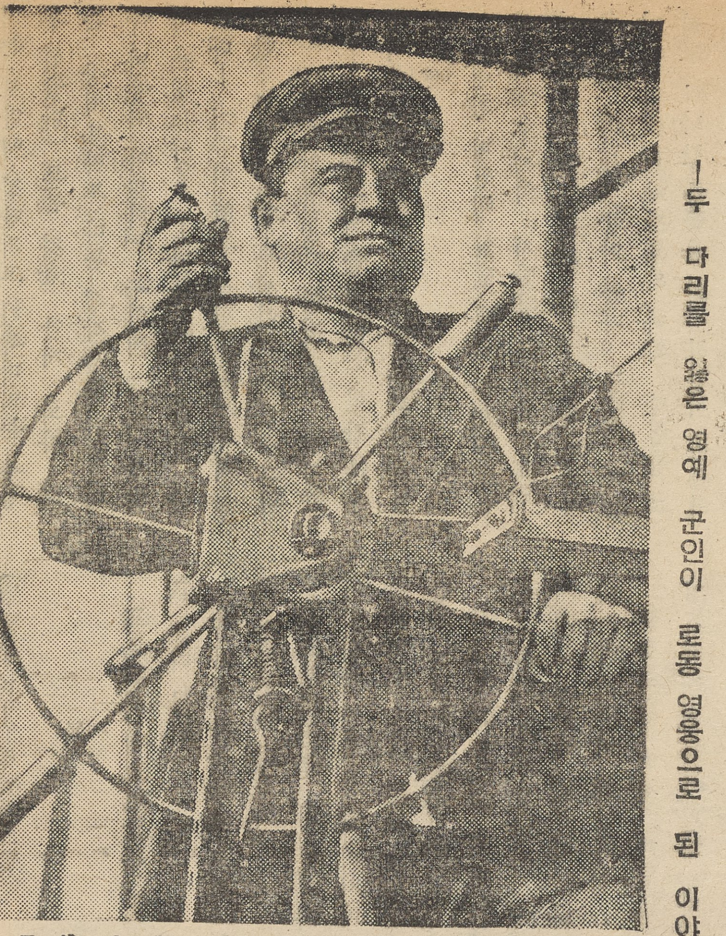
청년 도시의 주민들은 공장, 제조소, 끌호즈와 쏩호즈에서 화기 애애한 가운데서 일하고 있다. 그들은 전체 쏘베트 인민들과 함께 장엄한 공산주의의 건물을 건설하고 있다.



☆ 꼼쏘몰쓰끄·나·아무레시 "꼼쏘몰레쯔" 영화관 ☆

사회주의 로동영웅 프로꼬피 네끄또브

—두 다리를 잃은 영예 군인이 로동 영웅으로 된 이야기—



프로꼬피 네끄또브는 원래 뜨락또르 운전수였다. 그는 쏘베트 조국의 아름다운 래일과 행복을 위하여 자기에게 있는 지혜와 창조적 열성을 다하여 로력하였다.

그의 생활은 날이 갈쑤록 행복하고 풍족하여 졌다.

一九四〇년 파시스트 독일놈들은 아름다운 쏘련 강토에 침략의 검은 마수를 뻗치기 시작하였다.

쏘련 인민들과 함께 프로꼬피 네끄또브도 쏘베트 조국을 원쑤들의 침략으로부터 수호하며 자기들이 향유하고 있는 모든 행복을 수호하기 위하여 전선으로 달려 갔다.

그가 부대에 입대한 후 얼마 안되여 그의 부대는 전선으로 나갔다.

그는 적과의 싸움마다에서 언제나 용감하고 대담하였다.

一九四三년 三월 어느날 밤 전투에서 그는 부상 당하였다.

그후에 쓴 네끄또브의 수기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 있다.

—그날 밤 첫 새벽이 채 밝기 전에 우리 해병대는 로바뜨로 돌격해 올라가 적을 격퇴하였다. 나는 개울가 깊은 곳에 쓰러져 있었다. 이틀째 되던 날 사람들은 겨우 나를 찾아 냈다.

『나는 병원에서 정신이 들었다. 처음에는 안개 낀 것처럼 모든 것이 몽롱하였다. 내가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차릴 수가 없었다. 왜 살추리와 허리 허벅지… 특히 허리가 참을 수 없이 아픈지 알 수가 없었다. 살을 어이고 대

우는 듯한 아픔으로 하여 처음에는 량 다리를 절단한 것도 몰랐다 (한쪽 다리는 포탄에 절단되고 한쪽다리는 부상후 없었다) 모든 것을 알게 되자 나는 상처보다도 다른 생각으로 하여 더욱 마음이 아팠다』『이제 너를 무엇에 쓰겠느냐? ㅡ나는 혼자 말을 하였다ㅡ 기쁨이 없는 생활… 가족에게는 짐만 되고! 오ㅡ두찌아 두찌아 (그의 처) 젊고 아름답고 터질듯이 건강한 너! 너는 아모짝 쓸데 없는 인간 않은뱅이를 맞아들이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내가 병원에 있던 때는 一九四三년의 파종투쟁이 시작될 무렵이였다。창 넘어로 봄 갈이에 나선 뜨락또르의 굴리는 소리가 들려 왔다。그러자 나는 나의 힘센 뜨락또르와 나의 작업반 그리고 지나간 봄들을 회상하면서 마음이 몹시 뒤 흔들리였다。추억들이 꼬리를 물고 떠 올랐다…』『그런데 현재는? 참외발 직이가 될 것인가? 마구 수리공이 될 것인가?광우리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같은 부문에서 딴 작업에 몸을 바치겠는가?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기여서라도 기계에 올라갈 수 있다。나는 단념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 ×

프로꼬피 네꼬또브는 퇴원하여 집으로 도라 왔다。

온 마을 사람들은 프로꼬피 네꼬또브를 환영하여 나섰다。

꼴호즈에서는 대 연회가 벌어졌다。연회에는 꼴호즈 당 비서며 꼴호즈 위원장이며 뜨락또르 지정소 책임 일군들과 꼴호즈원들이 모였다。

사람들은 농장의 개변에 대하여… 생산 계획의 초과 실행에 대하여… 전쟁 시기 녀성들이 달성한 빛나는 업적들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

꼴호즈 당 비서 다닐로브는 마을의 전기화에 대하여 말하였다。一九四一년부터 이것은 계획되였으나 전쟁으로 인하여 실현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때문에 그는 프로꼬피 네꼬또브에게 방향을 바꾸어 앞으로 전기 기술자가 될 것을 권고하였다。

네꼬또브는 당 비서의 말을 채 듣기도 전에 『나는 다시 내 기계를 타며 합니다』라고 자기의 결심을 이야기하였다。네꼬또브는 집에서 휴양하게 되였다。

꼴호즈 사람들은 네꼬또브의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백방으로 배려하였다。

네꼬또브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ㅡ내가 불행을 당하자 전체 꼴호즈가 나를 도와 주었습니다。내가 언제든지 잊지못할 것은 나의 고향 사람들이 부상된 전사인 나를 치료하게 하여 따뜻이 입혀 주며 외롭게 있지 않게 배려해 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책을 구해 가지고 "네꼬또브가 읽어보게 그에게 가져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새 손풍금을 사가지고 "네꼬또브가 풍금을 치도록 그에게 가져 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네꼬또브의 집이 낡았으니까 그를 도와 새 집을 지여 주자"고 농촌에서 결정하였습니다ㅡ

一九四四년 봄이였다。

첫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꼴호즈 사람들은 모두 전야 작업을 하고 있었

다。 다만 네꼬또브만이 작업에서 빠졌다。 참을 수 없이 서글픈 생각이 그의 머리를 감돌아쳤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 즐거운 공동 작업에 참가하고 싶은 욕망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전야에 나가 보려고 애썼다。그리하여 의족을 두 다리에 끼고 벽을 짚어 가면서 몇발작 걸어 보았다。그러나 아직 완전한 의족이 아니여서 네꼬또브는 넘어지군 또 일어서고 몇 발짝 걷다가는 다시 당굴었다。

그는 의족을 산산히 부스려 버릴듯이 두드렸다。

이와 같은 생활이 몇달 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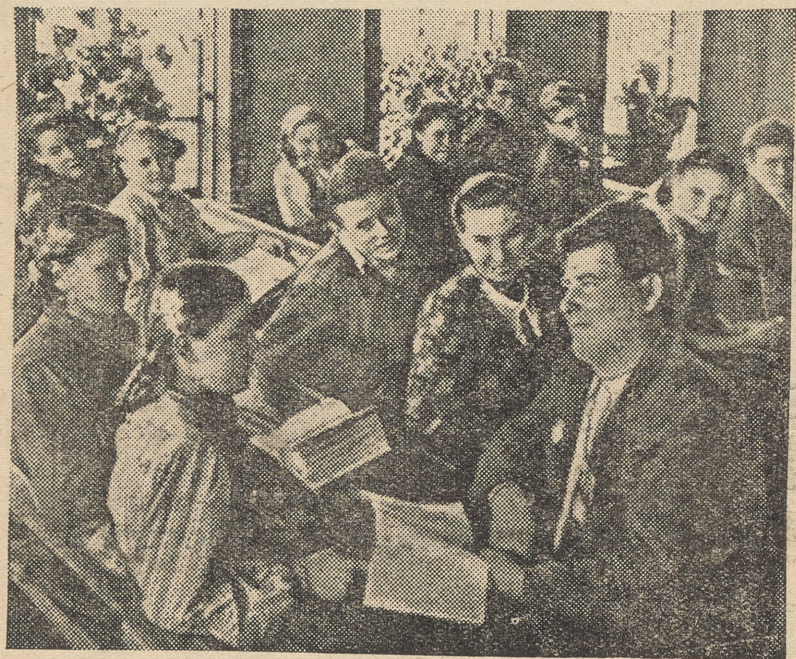
황금빛 물결 치는 꼴호즈의 전야는 그를 더욱 다정스럽게 불렀다。

프로꼬피 네꼬또브는 억지로 마차에 몸을 얹고 꼴호즈의 전야에 겨우 나갈 수 있게 되였다。

농장의 한 꼼바인은 기계 고장으로서 수확을 멈추고 있었다。

이 기계는 대단히 낡았으므로 하루에 불과 三헥타도 수확 못하는 기계였다。

프로꼬피 네꼬또브는 익숙한 솜씨로 꼼바인을 수리하여 운전하였다。



☆ 고향마을 까잔까에 개설된 중학교 9학년 학생들과 담화하는 프로꼬피 네꼬또브 ☆

이것이 그의 작업의 첫 시작이였다。

그는 꼴호즈에서 제일 낡았다고 나무래든 기계를 수리하기 시작하였다。

그의 인내성 있는 로력은 계속되였다。

그는 성공하였다。

페품으로 된 이 꼼바인은 수리하여 프로꼬피 네꼬또브는 하루에 三四二〇 헥타를 수확하는 기적을 나타냈다。

그는 그후 계속하여 하루에 一、〇〇〇—二、〇〇〇헥타를 넘어 수확하였다。

그의 이와 같은 성과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는 온갖 곤난과 싸워 이겼다。원쑤들의 흉탄에 의하여 부상 당한 후 네꼬또브의 가슴은 더욱 원쑤에 대한 적개심으로 불타 올랐다。

어떻게 하여서든지 원쑤를 보복하며 쏘베트 조국이 자기에게 베풀어준 따뜻

한 배려에 보답할 열의— 이것이 그의 성공을 담보하였다。

쏘베트 조국은 네끄또브의 헌신적 로력을 찬양하여 一九五三년 一○월에 사회주의 로동 영웅 칭호를 수여하였다。

그는 이후 곧 영광스러운 쏘련 공산당에 입당할 영예를 지니였다。

× ×

네끄또브의 이와 같은 애국적 모범은 전국에 물결처럼 파급되였다。

전 쏘련의 방방 곡곡에서는 이를 따르는 대중적 운동이 일어났다。

쏘련의 각 지방들에서는 네끄또브의 성공을 축하하여 하루에도 수십통의 편지들이 왔다。

그에게 온 한 편지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글이 담겨져 있었다。

『친애하는 프로꼬피 네끄또브、위대한 조국 전쟁의 전상자인 동무와 마찬가지로 나는 전선에서 공병으로 있었는데 지뢰 폭발로 량 다리를 잃었습니다。 나는 최근 동무가 단야공 와씨리 마리쮸니끄브와 공청 비서 와냐 체모노브의 방조를 받으면서 파철로 꼼바인을 만들어 一천 헥타 이상의 밀을 수확하였다는 보도를 읽었습니다…

나는 이 보도를 읽고 얼마나 감격하였는지요… 나는 낡은 꼼바인을 수리하여 오늘 二천 헥타의 수확을 완료하고 三천의 단위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나의 형제이며 스승이며 친우인 네끄또브! 나는 수천 키로 떠러진 이곳에서 우리들을 베를린까지 이끌어 주신 그이의 건강을 위하여 축배를 듭니다。 나는 오늘 사회주의 로동 영웅의 칭호를 수여 받았습니다…』

오늘 쏘련 사람들은 네끄또브를 사랑하며 존경하며 그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 주고 있다。

전쟁에서 두 다리를 잃고
마음에 도라온 용사
『로력 없는 생활은 죽엄』 이라고
쏘베트 사람인 그는 말했다。

황금빛 물결 치는 무연한 벌을
손수 수리한 꼼바인을 달리며
차대에서 그의 영채로운 눈은
조국의 땅에 대한 사랑으로 빛난다。

그는 다리 없는 전상 군인
그러나 로씨야 사람의 용기가
가슴에 불타는 전사
그는 영예로운 로력의 전사

하늘에서 죽엄을 이긴 마레씨예브
쏘베트 비행사의 열정을 보였고
들판에서 꼼바인 달리는 네끄또브
쏘베트 근로자의 힘을 보였다

위대한 쓰딸린의 광명한 세기에
고난을 극복하는 쏘베트 사람들
가슴마다 붉은 피가 고동쳐 올라
쏘베트 사람들은 영웅이 되였다

네끄또브는 자기의 성공에 대하여 이렇게 썼다。

『솔직하게 말한다면 당과 공산 청년동맹이 길러낸 나의 성격이 모든 난관을 물리치도록 하였고 개인적 불행을 초월하여 매진하게 하였습니다』

문예

참된 예술

—八·一五 해방 九주년 경축 전국 예술 축전 참가 조선 인민군 써클 종합 예술단 공연을 보고—

최 영 화

진실하고 슬기로운 생활은 그 자체가 시며 노래며 춤이다。

조국을 지켜 용감하고 당과 수령의 명령을 받들어 충성을 다하는 영웅적 조선 인민 군대의 자랑찬 군무 생활은 그 자체가 오늘 찬란한 예술을 꽃 피우고 있다。

금번 八·一五 해방 九주년 경축 전국 예술 축전에 참가한 조선 인민군 써클 종합 예술단의 프로들은 우리 인민군 장병들의 정치—도덕적 품격들이 참으로 고상하며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 투쟁 속에서 그들이 한층 더 풍부한 인간 정서와 품성을 가진 강철의 인간으로 장성 발전되여 가고 있다는 것을 뵈여 주었다。

우리들은 이 공연을 통하여 어떻게 군무자들의 예술이 인민군 병사들의 생활 속에서 죽순처럼 자라나고 있으며 그들의 예술 수준이 얼마나 높은 경지에서 꽃피고 있는가를 감명 깊게 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군대 내 대중 정치 문화 예술 사업이 얼마나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가 하는 성장 모습까지도 력력히 알 수 있었다。

오늘 조선 인민군 써클종합 공연은 자기들의 애국적인 군무 생활을 한 없는 영예로 마음 껏 즐기고 목청 껏 노래부른 바로 그것으로 하여 인민들의 절대한 환영을 받고 있는 것이다。

다채롭게 선택된 레파또리의 정치—사상적 내용과 젊은 군무자들의 생기 발발한 출연 태도는 천리 방선을 지키여 선 그들의 씩씩하고 왕성한 전투 사기와 기개를 인민들 앞에 훌륭히 과시하였다。

전반적인 레파또리와 연주 면에서 우리의 용감한 전사들은 생생하고 약동적인 자기들의 생활 감정을 잘 표현하였다。 그들은 예술 작품 속에 담겨 있는 고상한 사상 감정을 소박하게 대담하게 진실감이 넘치도록 무대 위에서 사실주의적으로 형상화 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들의 레파또리는 모두가 다 생동하는 군무 생활을 그 예술적 소재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레파또리를 일관하여 맥맥히 흐르고 있는 기본 정신은 애국주의와 혁명적 락관주의이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당과 수령에 대한 한없



☆ 스켓취 "전투 명령이다"의 한장면

는 충성, 조국 통일에 대한 승리의 신심, 형제적 인민들과의 친선, 원쑤에 대한 불붙는증오, 바다와 같이 무진장한 인민 무력의 힘 등 이 모든것은 레파또리의 중심적인 테마를 이루고 있다.

생생한 군무 생활 속에서 엮어진 전형적인 예술적 소재와 생활 감정을 담았으며 풍부한 사상성과 인민성을 내포한 많은 작품들은 박력 있고 락천적인 무대 형상과 연주를 통하여 강한 예술적 영향력으로써 관람자들의 감정에 육박하며 고조된 공감을 자아 내였다.

특히 그 중에서도 중사 박철산 작 스켓취 『전투 명령이다』(특무 상사 박창국 연출)는 특출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그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서 스켓취라기보다는 오히려 앞서 있는 단막 희곡에 가까운 작품이다. 이 작품은 관중들에게 열렬한 반향과 환호를 일으켰으며 오래도록 지울 수 없는 감명과 인상을 남겨 놓았다. 이 작품이 이같이 관중들의 절찬을 받게 된 것은 위선 그 원작이 가지는 높은 사상성과 예술성에 기인한다.

이 스켓취는 평양 제八중학교 건설 공사를 담당한 인민군 어느 건설 부대의 한개 소대 내 전사들의 불꽃 튀는 건설 투쟁 모습을 묘사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오늘 복구 건설 협조에 궐기하고 있는 인민 군대의 아름다운 정신적 면모와 강의한 투지를 진실하게 반영하였으며 건설 투쟁 과정에서 제기되는 가장 현실적인 주제를 취급한 것으로 거대한 교양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제二분대 박병렬은 전선에서 무기를 손에 잡고 싸우는 것만을 인민 군대의 보람찬 임무로 생각하고 항상 고지와 전투만을 그리는 나머지 복구 건설의 의의를 파악치 못한채 작업에서 락후해진다. 그에 대한 같은 분대원 손식의 과격한 비판으로부터 극적 사건은 발단된다.

이렇게 시작된 작품의 내용은 훌륭한 지도 작풍을 가진 제二분대장 리영규를 비롯한 여러 동무들과 제二분대원 염유철을 비롯하여 제三분대 여러 동무들의 간곡한 동지적 비판과 교양의 결과로 박병렬은 자기의 락후성을, 제三분대원 석기수는 자기의 날림식 작업 태도를 시정하고 자기의 그릇된 견해를 빼저리게 뉘우치면서 앞으로 한걸음 군세게 내 드디는 것으로 끝난다.

작품의 이야기 줄거리는 이렇듯 간단하다.

그러나 작자는 갈등의 제기와 발전, 그의 옳바른 해결을 통하여 실로 많은 심각한 현실적 문제들을 제기하고 그를 솜씨 있게 해결하였다. 작품을 시종 관통하고 있는 이같은 예리한 정치성은 이 스켓취를 성공케한 첫째 요소로 되는 것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과 경모심, 아름다운 조국의 미래에 대한 신념과 락관, 그리고 인민군 전사들의 고상한 풍모―원칙성, 동지에 대한 존경과 사랑, 높고 옳은 비판의 정신과 태도, 로동에 대한 자각, 경쟁에서의 협조 정신 등은 실로 이 작품의 기본 파포스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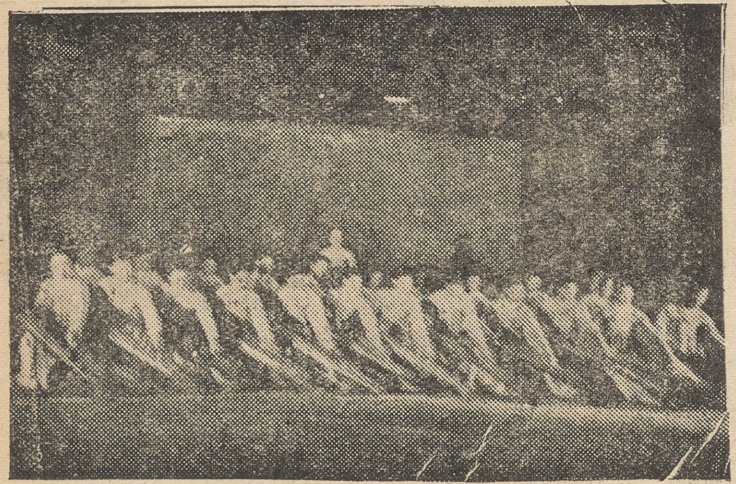
이 작품은 비단 그 내용이 가지는 생활의 진실성과 사상성과 교양성에서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작품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높은 경지의 예술성으로써도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에 나오는 매개 전사들의 생동한 개성들은 폭넓은 집단 성격을 이루면서 하나의 커다란 강철의 군상으로 우리와 심장을 감동시킨다.

박병렬을 둘러싼 제二분대원 간의 갈등, 휴식 시간을 작업에 리용하는 제二분대와 제三분대 간의 충돌, 염유철을 중심으로한 제一분대원들의 모범적 역할, 염유철의 아들로부터의 편지, 자기들이 건설한 학교에서 공부할 어린이들에 대한 사랑, 머지 않을 앞날 자동차를 타고 쓰딸린 거리를 달리면서 복구된 수도를 바라 볼 때를 꿈꾸고 그것을 지금 눈 앞에 내다보고 있는 전사들의 벅찬 희망―이 모든 것은 다양한 복선과 긴박한 극적 구성의 기복을 이루고 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때로는 대립과 웃음과 유모아 등 풍부한 뉴앙스로 하여 색채 맑은 화폭을 이루기도 한다.

특히 세련된 대화의 구사이며, 함축된 말마디에 인물의 성격과 사건의 발전을 압축시켜 표현하는 작자의 재능 있는 형상력은 높이 평가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스켓취―『전투 명령이다』를 보고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하였으며 우리의 무력인 인민군의 무진장한 위력과 그들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굳게 하였다.



☆ 특무상사 김석순외 24명이 출연한 가야금 병창

당과 수령이 가르키는 길에서 한없는 긍지를 가지고 우렁찬 현실에서 별써 닥쳐 올 빛나는 앞날을 내다보고 확신하는 청년들의 혁명적인 랑만―이 얼마나 아름다운 생활의 꿈이냐!

그들의 전망

을 가로막을 어떠한 힘도 없다。 그들은 다만 오늘의 지반위에 튼튼히 서서 모든 장해와 난관을 극복 타개하면서 벌써 래일을 창조하고 있다。 이것은 곧 우리 시대의 불요불굴의 젊은 힘이며 기백이며 맥박인 것이다。

틀림 없이 이 작품은 위대한 전투 속에서 건설되는 우리의 벅찬 생활을 노래 부른 참다운 노래이다! 틀림 없이 이 작자는 우리의 위대한 오늘과 래일을 노래 부른 참다운 가수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현재 도식주의와 기록주의의 지렘마에 빠지고 있는 작가들과 새것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가지지 못한 작가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때문에 우리 작가들은 이 작품에서 그리고 복잡한 현실 생활의 단순한 『포로』가 되지 않고 전형적인 환경에서 전형적인 성격을 창조할 줄 아는 신인 작자의 예리한 재능에서 허심하게 배워야 할 것이다。

다음 음악 부문에서도 역시 군무자들 속에서 새로운 인재와 기도들이 얼마든지 싹트고 있다는 것을 뵈여 주었다。

위선 합창에 있어서 『조선 인민군 전가』、『건설의 노래』『"용사의 강"중에서』의 세 곡목을 연주하였는데 이는 웅장한 남성 합창으로써 그 창법과 화성이 정확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개 곡이 가지는 심각한 곡상 표현들도 매우 좋았다。

관현악 반주로 된 이 남성 합창은 놀랄만큼 잘 째이고 조화된 안삼블, 씩씩하고 박력 있는 연주 태도、 그리고 거기에서 울려 나오는 웅장한 화음으로 하여 높은 수준의 연주와 효과를 보장하였으며 청중들에게 아주 통쾌하고 아름다운 감흥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음악 부문에서 특기 할 새로운 지향은 군무자들이 민족 고전 음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를 광범하게 섭취하여 옳게 계승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다는 그 점이다。

젊은 병사들은 고전 계승 발전에 대한 수령의 교시를 지침으로 고전 음악을 기계적으로가 아니라 고전 형식에다 새로운 세대의 젊은 감정들을 담아 연주함으로써 고전이 가지는 값 높은 알맹이를 발전시키고 있다。 그들은 민요 합창、민요 제창、민요 대창、가야금 병창、민족 기악 합주 등 고전 형식에다 자기들의 힘 있고 생신한 군무 생활을 내용으로 하는 가사를 붙여 평균률에 기초한 기본 화음들과 대선률들의 적용을 대담하게 시도하였다。 이 대담하고도 천백번 정당한 시도는 실지에 있어서 훌륭한 성과를 나타냈으며 자기들의 감정을 유감 없이 표현하였다。 민요 대창 『아이젠하워야 헛수작 말라』、 민요 제창『관무봉 타령』、 가야금 병창 『매봉산 타령』 등을 비롯한 많은 고전 프로들은 이를 확증하는 좋은 실례로 되는 것이다。

음악 부문에서 또하나 높이 평가하여야 할 것은 군무자들이 사용하는 양 악기 혹은 민족 악기가 거의 다 자기들의 창의적 수제품이라는 그것이다。

그들은 가야금、가현금、아쟁、행금、양금、퉁소、피리 등 수 많은 민족 악기들과 바이오린、첼로、비오라、코드라바스 등 각종 양 악기들을 직접 제작하여 二관 편성의 완전한 관현악으로써 민족 음악을 훌륭하게 연주하였다。

이같이 군무자들의 창의로 제작된 악기들은 그 음향、그 음정 등 질적면에 있어서도 기성 악기에 손색이 없는 음색을 가지고 있어 관중들을 대단히 경탄케하였다。 五〇여명으로 되는 대편성 기악 합주는 바로 이것을 반증하여 주는 좋은 실례인 것이다。

그러면 군무자들 속에서 이같이 고전 악기와 양 악기가 광범하게 창의적으로 제작되고 있는 원인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그것은 오직 예술을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예술을 생활화하려는 그들의 높은 의욕、무진장한 그들의 창조력으로써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음악 부문 전반에 걸쳐 출연자들의 무대 진행、연주 태도들도 매우 진지하였으며 무대 규률도 잘 보장되고 출연 종목들의 반주 음악도 훌륭하게 작곡 또는 편곡되여 관중들에게 인상 깊은 충동을 주었다。

군무자들 속에서의 우리 예술의 빛나는 발전과 재질 있는 신인들의 대중적 진출은 무용 부문에서도 볼 수 있었다。

군무『조선 인민군 병사의 춤』、『유쾌한 병사들』、『신대원을 맞으며』는 그 어느 것이나 우리 인민군 용사들의 군무 생활을 실감 있게 레알하게 형상화한 것이다。 이 작품들은 안무 구성상에 있어서도 생신하고 약동하는 선과 리즘을 옳게 포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출연에 있어서도 비교적 세련된 기법으로 훌륭한 무대 안삼블을 뵈여 주었다。

이 모든 훌륭한 무용들은 군무자 자신들의 손으로 안무 되였고 그들 자신이 출연하였다는 그것으로써 더욱 높이 평가된다。

무용의 구성과 안무에 있어서도 민족 무용의 고유한 기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비상한 노력을 기울인 자취들이 뚜렷이 보인다。

무용 부문에서 하나 더 높이 평가되여야할 것은 잔잔하고 정적인 조선 무용의 률동을 대담하게 억센 약동적인 새 형태의 아름다운 률동과 선으로 발전시킨 그것이다。 이것은 확실히 우리 무용에 있어서 새로이 움트는 하나의 희망찬 새싹이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 특히 말해야 할 것은 광범한 군무자들 속에서 간단하고도 풍자성이 농후한 만담 형식이 널리 발전 보급되여 가고 있는 사실이다。

만담『북진 발광병』(하사 김진현 작)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로 주구인 리승만이가 어떻게 『북진』『북진』을 떠벌이면서 전쟁 선동과 그 준비에 발광적으로 날뛰고 있는가를 신랄하게 폭로 풍자한 것으로써 청중들로 하여금 로 주구에 대한 증오의 웃음을 던지게 하였으며 군중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물론 조선 인민군 써클 종합 공연에서 전혀 결함들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우수한 성과들을 거둔 반면에 부분적인 결함들도 있었다。

그것은 위선 기술적인 세련에서 생경한 부분들이 있었으며 집단적인 출연에 비해 독창、독무、중창(남녀) 등이 거의 없는 그것이다。

또한 그 내용과 형식은 다소 달라졌다 할지언정 이미 지

난해 경연 대회에 내 놓은 것을 올해에도 계속 반복 출연시킨 흔적들이 있는 그것이다。

특히 그 경향에 있어서 너무 그를 강조한 나머지 자기의 특성과 기동성을 상실하고 전문화하는 경향이 엿보이는 것은 아주 경계하여야 할 위험한 현상이라고 본다。

이러한 점들은 확실히 시급한 시일 내에 고치지 않으면 안 된 결함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함들은 오늘 조선 인민군 써클 종합 예술단이 쟁취한 빛나는 성과들을 조금도 감소시킬 수는 없다。

조선 인민군 젊은 병사들의 예술— 이는 생활의 진리를 노래한 예술이다! 용감한 병사들에게서는 앞으로 보다 더 아름답고 보다 더 전진한 예술이 꽃피리라—

과학 지식 로켓트 비행기

우리가 『은색 제비』라고 부르는 비행기 는 보통 비행기와 다른 로켓트 비행기이다

이 비행기는 프로페라가 없다 이 비행기는 프로페라가 있는 비행기보다 비할바 없이 빠른 것이 특징이다

프로페라가 있는 비행기는 공기의 저항력 때문에 높은 속도를 낼 수 없다

이 애로를 타개 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였다

문제는 반동식 발동기를 만들어냄으로써 해결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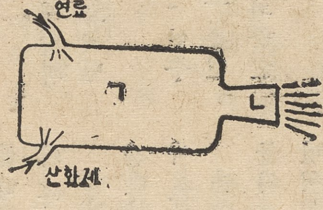
이 반동식 발동기(로켓트)란 어떤 것인가?

이 원리는 아주 간단하다

로켓트는 까스를 뿜고 그 반 작용에 의하여 비행기가 날게 된다

다음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용기(가) 안에서 연료가 연소하면 연소한 결과 가열된 까스는 높은 압력을 형성하여(나)로부터 나온다

이 까스가 분산하는 반 작용으로써 비행기는 날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프로페라는 필요 없게 되며 공기의 저항력도 적게 받을 수 있으므로 비행기는 빠른 속도로 날게 된다

이와 같은 로켓트식 비행기에는 두가지 형이 있다

첫째 형은 연소실 내에 연료와 특수한 산화제를 주입하면서 연소 작용을 일으켜 비행하는 방법이며

둘째 형은 연소에 필요한 산소를 공기 중에서 취하여 비행하는 방법이다

현재 로켓트 비행기는 대체적으로 두번째 형이 많이 씌여 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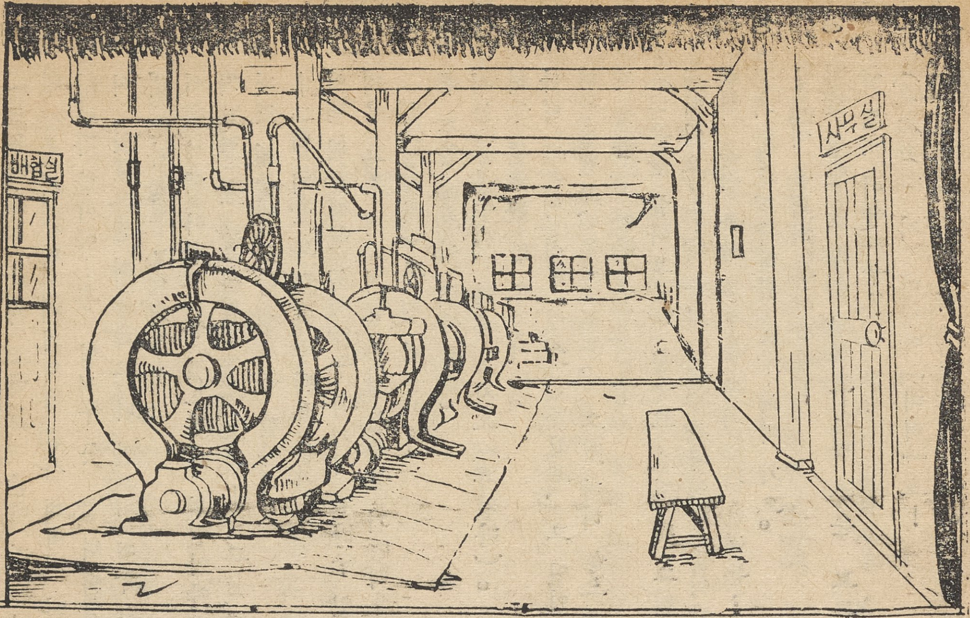
왜냐하면 첫째 형은 산화제로써 보통 액체와 산소를 싣고 다녀야 하며 비행 거리가 짧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형은 산화제를 따로 실을 필요 없이 공기 중에서 산소를 취하면 가능하다

오늘 우리의 하늘을 날고 있는 『제비』는 이 원리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제비』 비행기 뒷 꽁무니가 열린 원인도 역시 비행기 앞 머리에서 산소를 받아들여 이것이 연소되여 그 까스가 뒷 꽁무니로 나가게 하여 그 힘으로써 비행기를 날게 하기 위한 장치이다

쏘련에서 로켓트 과학의 연구는 날이 갈수록 더욱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민청 창립 八주년 기념 현상 문예 희곡 一등 수상 작품

가열 장치 (二막 三장)

김일성 종합 대학 어문학부 강 진

제 二 막

때·一막에서 며칠 후

곳·로루 작업장

무 대

상수편에 치우쳐 로루 작업 현장 『로루기』 한대가 뚜렷이 보이며 그뒤로 로루기들이 련이여 있는듯… 하수편으로 현장 사무실 문이 보이며 중앙은 복도로 되어 있어 긴 의자 하나가 적당히 자리 잡고 있다。 하수편 후면으로는 제화 현장으로 통하고 상수편 후편으로는 『배합실』로 통한다。

—막이 오르면

—로루기 운전하는 소리

—작업장에선 지금 박창민、송봉、조 동무가 고무 압연 작업에 여념이 없다。

—직맹 위원장、부지배인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밖에서 민인식 엿듣고 섰다—

인식 (두리번거리며 시계를 본다) 응、이제 곧 라바가 나올테지、됐어! 이번에 실패하면 알아 보겠지…

송봉 (밖을 향해) 자! 운철 아바이! 세벌째 내려가요—(소리)

인석 —어느새 리상태도 로루 기대 옆에 섰다— (로루장을 눈 여겨 보며)아, 글쎄 저 창민이는 왜 칠첩 반상기의 장종재기처럼 혼자 삐여져 나려구 저 야단인가 말이야…흥 먹지두 못 할 버섯들이…아 가만이 있었으면 저 잘되고 나 잘되지 결국 참견 끝에 손해 본다는걸 모르거든—

부장 이젠 일이 이렇게 쯤 됐으면 다 된일이야(이리 저리 거닐며) 그 참 생각할쑤록 분해! 그 시세 좋은 때를 저것 때문에 그냥 놓치구 말다니…

—그때 기술 부장 하수에서 등장—

인석 아니 배합실엔 있지않구 여기서 뭘하구 있소?

부장 네? 그저 저 기술 부장 동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석 (좀 점잖게) 또 뭐 때문이여

부장 좀 드랄 말씀이 있어서요。

인석 지금은 분주해, 이따 오시요(가련다)。 오늘은 아무래두 불쾌한 일 투성이야。

부장 아니 그 저 시험 결과 말씀입죠, 그 일이야 실패하기 마련인걸요, 부장 동무, 그건 념려 놓으시라구요。

인석 제 말씀을 믿어 주십시요。

부장 (마음을 뚫어보듯) 동무도 요샌 왜 그래 이 일엔 열성적이요?—왜 남의 일에 참견이나 말이여?

인석 제야 그저 부장 동무를 돕자는거 밖에는…

부장 듣기 싫소, 여러말 말구 저리 가오。

—인석 불쾌히 돌아선다—

부장 정말 열길 물 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르겠는데…저 놈 밑이 어둡다구?

창민 (안에서) 자 마지막『내리』요!

부장 (돌아서며 그러나 저 싹싹한 놈이 그렇게까지야 …작업장으로 들어가면) 제발 풍설이기를 바라는데

창민 (고무를 로루 가락에서 뽑아낸다)

직위 옹, 一○분! 굉장한 속도로군。

부장 빠르긴 해두 질을 보아야지。

부지 이제 저 라동무가 끝나면 비교해 봅시다。

직위 저기 압연한게 있으면 그걸루 비교해 봅시다。

부지 자 거기 압연한 것 아무거나 한장 가져오우(상태에게 라바 한장을 준다) 자 이것과 비교해보오— 속박기에다 시험해 본다(긴장된 사이)。

부장 보시요, 질은 단연 떠려집니다。

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이 쳐진다) 아니 이건 배합에서 잘 못했습니다。 이거 보시요。 이『라바』를—이렇게 되건 꼭 배합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부장 동무는 밤 낮『증부 가마』나『배합』이니 왕청 같은 곳으로 일을 끌구만 다녀!

로 좋습니다。 내 실험해 보고 오지요(내퇴)。

—상태 뒤 따른다。 창민이 못이 박힌듯 섰다。 그때 라운철 압연을 끝내고 라바를 들구 옆에서 등장—

부장 이것 보시요、 이건 이렇게 훌륭합니다。

직위 가만! 우리 원인을 알아 보기 전엔 속단하지 맙시다。

부장 벌써 두번째입니다。

창민 아닙니다。 전번과 이번과는 다릅니다。

직위 부지배인 동무、 좀 기다려 봅시다。 자 박동무、 념려 말구 일을 계속하시요。

부지 좋소、 그럼 우린 저 현장 사무실에서 로기자 동무를 기다립시다。

—『직위』나가련다。 부지배인、 기술 부장 뒤 따르며—

부지 직맹 위원장 동무! 로동자들의 뒤꼬리만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사업이 아닐거요。

직위 그렇게 일방적으로만 생각하지 맙시다。 문제를 심각히 놓고 토론해 봅시다。

부장 심각하게 따지면 따질쑤록 점점 결론은 더 엄중해질

뿐입니다。 두번이나 거듭되는 결과를 보시요。 명백한 일이요。

직위 『조급하면 코 깬다』는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장 원 저런! 삐뚜루 뻗은 가지는 질배가지 되기전에 사정없이 짤라 버려야 합니다。

직위 그렇소! 그러나 어느게 짤라 버릴 가진가 로기자가 도라온 다음 결정합시다。

—일동 현장 사무실로 퇴장—

—창민이 생각에 잠겨 앉아있다—

조 창민 동무! 제가 잘못했습니다。

송봉 아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까 창민 동무가 그렇게 주의한 배합 문제를 그만 소홀히 해서…

창민 아니요、 그런데 누가 배합통을 타왔소?

조 제가 타왔습니다。

—그때 상태 급히 등장—

상태 아니 이번 배합은 누가 했어?

조 민동무가 했어요。

상태 음、 틀림없군 또 그놈의 책동이군。

창민 (벌떡 일어나며) 응? 그럼 분석해본 결과가…

상태 이봐 창민이! 요전번 증부 가마의 열을 와짝 올린 것두 누구 책동인 줄 아나。

창민 뭐? 그럼 왜 여태 가만 있었어。

—창민이 급히 내퇴—

상태 창민이! 서둘면 독안에 든 쥐도 놓친다네—(송봉이에게) 그날 증부 가마엔 우리 로루공의 그녀석만이 있었으니까。

송봉 그럼 당장 그 놈을 못 잡어 내?

상태 『빨프』만 틀면 되는걸—그건 잡시간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곤난하지。

송봉 망할 자식…그러나 배합기까지…

상태 아냐、 이것 보라구、 이번에 알아보니 그 자식 전쟁 전만 해도 사창 장마당에서 생 고무 밀매자였대 그래 전쟁이 일어나자 후지 부지 공장에 들어온 물건이래。

상태 그래 생 고무 절취 사건이 빈번한게 다 어디서 생기는 줄 알아?

송봉 글쎄

상태 생 고무 만지는 직장이라구는 배합실과 우리 밖에 없지 않나。

송봉 그러나 우리에겐 단연 없지。

상태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자식은 로루공에 책임이 있다는거야。

송봉 그놈 당장 없애치우자(달려갈 기세다)。

상태 그래、 난 이걸 알아 채리구 창민 동무와 같이 날카로운 시선을 돌리구 있어。

송봉 시선만 돌려 뭘 해、 당장!

상태 가만!

—그때 로기자와 창민이『실험기』를 가지구 안에서 등장—

로 (나오며) 아첨하구 다니는 놈의 밑이 깨끗한게 없다우。

송봉 아니、 원인은 역시 배합에 있지요?

조 만일 그렇다면 모든건 제 잘못입니다。

로 아니 안심하오、 이번엔 우리 시험이 꼭 성공할 수 있소、 창민 동무! 로루기 작속 준비나 잘 해두오。 자 상태 동무는 나하구 같이 갑시다。

—로기자、 상태 복도에 나온다—

로 상태 동무! 동무는 그 민가 놈을 빨리 여기로 끌고 오우。

—상태 배합실 쪽으로、 로기자 현장 사무실로 퇴장—

—로루 현장에는 파운혜가 나타났다—

송봉 아바이 한번 터 해 봅세。

운철 정말 질만 좋으면 오죽 좋겠수。

창민 이제 질두 좋아집니다。

운철 (기계를 돌아보며) 그런데 어째서 그럴까、나두 요며칠 잘 생각해 보았는데 빠르다구 질이 나빠진다는게 생각할쑤록 모를 일이우。

송봉 이제 두구 보세요。원인은 결코 빠른데 있지 않습니다。

운철 여보게 창민이! 면적을 넓혀도 확실히 기계엔 탈이 없군。

창민 네! 가열한 생 고무는 념려 없어요。

운철 사실은 이제 막 나두 가열한 고무가 배합통에 들어 있었어、그래서 로루 면적을 보통 때보다 두배나 넓히구 했으니 그만큼이나 빨랐다우。

송봉 그래. 생짜 고무보다 어때요?

운철 설설 엿가락 넘어가듯 하는데 와짝 받히개를 넓혀 보았수다。

창민 배합통은 아바이가 타왔어요?

운철 그 민동무가 꼭 나더러 오라기에 갔댔수。

송봉 망할 자식!

—그때 리상태 민인식이를 데리고 등장—

인식 아니 대체 어더로 가잔 말이요。

상태 자 우선 현장부터 가 보지。

인식 아 참、시험이 끝났겠소 네?

상태 (들어서며) 아니 기사 동무는 아직 안들어 왔군。

인식 (얄밉게) 창민 동무! 시험은 성공했습지?

창민 (배알듯이) 현장 사무실에 가 알아 보오、덕택에 성공할게요。

송봉 저걸 당장! (달려들 기세다)

—상태 데리고 나간다—

인식 (나오며) 아니 정말 어떻게 됐소?

상태 어떻게 되긴 뭐이 어떻게 돼、관심이 대단하군。

인식 아니 그 성공여부가 공장 운영을 좌우한다지 않아요。

장태 그건 동무 알바 아니야、잔말 말구 어서 들어가! (현장 사무실에 밀쳐 들여보낸다。돌아서며) 망할 것 잘두 놀구 있다。

—이욱고 현장 사무실에서 로기사 나온다—

로 상태 동무! 수구했소。이제 내 배합해 올테니 다시 시험해 보기요。

상태 그럼 조 동무를 보내지요。(들어 간다) 자 꼬마 동무、기사 동무와 같이 가서 배합통을 타 오라구、새 시험 준비야。

조 네 (복도에 나온다)。
기사 동무、이번엔 꼭 성공해야지요。

로 (웃으며) 그래 념려없어 (같이 퇴장)。

상태 허、내 그 자식 우서워서。

송봉 우숩긴 뭐이 우서워 난 화부터 치밀어 오르는데 겨우 참았어。

운철 (어리둥절해 있다가) 아니 무슨 곡절이 있었군 그래。

상태 이제 저 녀석만 없어지면 우리 공장에서 생고무 절취 사건도 없어질게구、고무의 질두 좋아집니다。

운철 아니 그 놈이 암해 분자였구나、음 그래 그렇지、아까 배합통을 타레 갔드니만『잘 해야 합니다』、『정성껏 배합한거니까 꼭 이겨야 합니다』、『그럼 오늘 저녁 한턱 내지요』그저 귓등이 간지럽게 이 야단이더니 모든게 다 그 놈의 수작이였구나。

상태 망할 자식! 장사치의 수판알 굴리기엔 눈이 밝은데。

운철 아니、저 놈을 그대루 두우 (나가련다) 상태 그를 붙어 잡고。

장태 저런걸 처단하는 기관이 따로 있지 않소。

운철 나두 이젠 창민이와 같은 배합통으로 같이 해 볼테다。젊은이 나두 새 배합통을 타와야 겠수 (바쁜 걸음으로 나간다)。

—로루기 작속 준비에 분망한 창면이에게—

상태 창민이 자 이번엔 꼭 성공하세。

창민 념려 놓으라구、래일부터 가열 장치를 확대할 생각부터 앞서네。

—그때 하수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 이옥고 제화공들 등장—

미화 후군 다는데、또 실패하다니…

명숙 이번에야 성공하겠지—

미화 이번까지 성공 못했다간 봐라、내가 단단히 혼 떼워 놓겠어。

—일동 웃음—

명숙 누굴 또 혼 내우겠는 모양이군。

송봉 (인기척을 알고 문을 연다) 교대 시간이 아직 멀었는데 동무들은 뭐야。

미화 교대 받을 시간까지『로루 면적 작업 방법』견학이예요。

송봉 동무네들 기술 전습이나 하라구。

미화 그건 념려 말아요。그보다 이번엔 자신 있어요?

송봉 자신만 있겠소。

미화 또 뭐이 있어요?

송봉 그건 있다 말하지 (문을 닫는다)。

명숙 송봉 동무는 미화 동무 앞에선 그저 고양이 앞에 쥐로군。

—그때 조동무 배합통을 불쑥 나온 배 위에 얹어 가지고 온다—

순옥 아이 이배 좀 봐요。

조 가뜬 있어、안에 귀한 목숨이 계신다。

순옥 아이 정말 어쩌면

미화 그게 뭐이요?

조 (싱글 벙글 웃기만 한다)

명숙 (배합통을 들여다 보고) 아니 생 고무 없는 배합통을 타와요?

조 바루 여기 생 고무가 계시우 (생고무 한 토막을 끄낸다)

순옥 아이! 따스하네、이렇게 말랑 말랑도 하구。

미화 (아래 위 훑어 보며) 차렷! (짧은 사이) 그 배를 보니 웃음이 터진다。호…호 정말 이전… (허리를 쥐고 웃는다)

조 우리에겐 이게 귀한 목숨처럼 중하지요。

미화 아이 깜찍해!

명숙 호호…그건 뭐때메 그래요?

조 이렇게 해야 가열한 생 고무 열이 빨리 식지 않지요。(불쑥한 배에 뒤짐을 짚고) 이렇게 서면 위신두 나지 않우。

순옥 야이 망칙해、벌써부터 배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때 로기사와 영실이、운철이 이야기하며 등장、제화공들 로기사에게 모여든다。

순옥 언니、이 배 좀 봐요?

—조동무 뛰여 들어가 버린다—

로 안에선 고무를 뺨에 대여도 보고 그래 이젠 이 운철 아바이까지 그 방법을 시험해 보게 됐소。

미화 정말? 운철 아바이도

운철 처녀 동무들 이젠 나보구 늙었다구 그러지 마우、내가 이래두 마음은 아직 청춘이유…(현장으로 들어 간다)

송봉 자、아바이 한번 해 봅시다。

순옥 (매여 달리듯) 기사 동무…

— 만져도 본다 — 작업 준비에 분망하다 —

미화 기사 동무, 어떻게 되나요?

순옥 (매여 달리듯) 기사 동무!

로 자 이건 놓구, 그래 그렇게 간절하우?

영실 그럼요, 수령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전쟁때 긴장된 기분으로 생산에 들어 가라구, 그런데 지금 우리 형편은 이렇습니다. 탄약 공급처에서 탄약이 떠러지는 격이지요, 남쪽엔 아직두 미국놈이 남아 있구, 리승만이가 날뛰구 있는데 생산에서 싸우는 것도 곧 놈들에게 타격 주는 길의 하나가 아니겠어요.

로 옳소 옳아, 참 많이들 공부했는데。

미화 이제 보세요, 우리두 쏘련 녀성들처럼 굉장한 연구를 하지 않나요。

명숙 기사 동무, 이번엔 우리두 도와 주어야 해요。

로 응, 이번엔 제화공들의 창안이라…

미화 그럼요, 기사 동무두 선진적인 줄 알았드니 아직 우리 녀성들의 력량을 믿지 않으시는 군요。

명숙 우리 녀성들이 아니면 고무 공장은 운영 못해, 그렇지 미화?

미화 그것뿐인가

로 그만 그만, 왜 내가 모르겠소, 우리 공장에서두 이제 당운실, 고영숙과 같은 동무들이 계속 속출할걸 난 믿구있소。

미화 (영실이를 떠 밀며) 벌써 여기 있지 않아요。

로 모두가 다 돼야지。

영실 애들아! 우리 모두 한꺼번에 고무 혁신자가 되자。

명숙 그래 그래, 집단적으로 말이야。

순옥 기사 동무, 요전번 그 쏘련의 집단적 쓰따하노브 얘기 또 해 주어요 네?

로 자 이려지들 말구!

— 그때 현장 사무실에서 기술 부장, 직맹 위원장, 부지배인, 민인식 나온다 —

부장 정말 내가 이 녀석을 잘못봤군 — 등잔 밑이 어둡다고 네가 그렇게 음침한 놈인줄은 몰랐어! 위원장 동무! 정말 저는 저의 하찮은 경험주의가 이 따위의 책동으로 유지되여 온걸 모르고 있었소。

직위 더 정확히 말하면 그걸 알려구두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부지 내 관료주의도 낡은 경험주의가 조장시켰소。

인식 위원장 동무… 죽을 죄를…

직위 이 장소를 모면하려고 사교만 부리지 마오。 동무가 범한 과오의 엄중성으로 보아 응당 인민들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하오。 여서 경비실로 나가오。

인식 네 (당황하여 벌벌 떨면서 퇴장)。

직위 기술 부장 동무도 과오는 자체에서 찾고 성과는 객관에서 찾는 것이 좋다구 생각 합니다。

부지 모든게 내 잘못이였소。

— 그때 안에서 소리 —

창민 자! 마지막 넘어간다。

직위 자, 우선 새 시험 결과를 들어가 봅시다。

— 로기사, 직위, 부지배인 로루 현장으로 들어 가나 기술 부장은 현장 사무실로 들어가 버린다 —

— 로동자들도 안에서 로루 기대 앞으로 모여 든다。

미화 애이 분해, 그 미물 같은것! (흉을 내며) 기술 부장이나 부지배인에게 가서는 『네 그렇습죠, 헤 헤 네 그렇습죠』 이 지랄이란다。 애이 생각하면 삼년 전에 먹은 쉬떡이 기여 올라 와。

명숙 정말 졸장부야。

미화 (순옥이에게) 얘, 순옥아 저런거 한텐 경각성을 와짝 높여야 한다。

— 일동 웃음 (안에서) 자 라바요 —

영실 찟!

창민 (로루 가락에서 라바를 쭉 뽑아낸다)

— 라바를 로기사에게 주고

창민 꼭 九분이 걸렸어요, 위원장 동무! 제대루 가열하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부지 음, 꼭 三배나 빠르군。

— 라바 질을 검사하던 로기사 라바를 들고 정면에 나오며 —

로 (희열에 차) 자 이것 보세요。 번질합니다。

— 로기사와 창민이 얼싸 안는다 — (사이)

직위 (두 사람의 어깨를 치며) 정말 수고들 했소。

창민 이게 모두 당부와 직맹에서 직접적 지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 그때 라운철이도 『라바』를 뽑아 들고 등장 —

운철 자 기사 동무, 내것두 보시우。

— 모두들 다른 라바와 비교들 한다 —

창민 이렇게 말랑 말랑하면 다음 『혼연』 과정에서도, 『압연』 과정에서도 작업이 빠르며 제화공들이 가위질하기에도, 재단하는데두 훨씬 빠르지요。

직위 그럼 생산 촉진은 문제 없군。

미화 (기다렸다는듯 문을 열고) 축하합니다。

송동 (선듯 나서며) 나에겐 축하 안하오?

미화 그래 그래 축하해요。

상태 이젠 제화공들이 눈코 뜰새 없게 됐지 —

명숙 바쁜게 더 좋아요, 누가 떠러지나 해 보기요。

직위 자 경쟁은 있다 하구。

로 우선 당장 지금부터 가열 장치의 확대 완비를 해야겠습니다。

부지 그거야 념려 없소。

운철 그리구 또 로루기에 안정 장치도 필요하우다。

상태 그거야 안전 스윗치만 넣으면 될테니까。

부지 그것두 합시다。

직위 창민 동무! 밖에서 제화공들이 기다리구 있소。 그 첫 라바를 영실 동무에게 주오。

— 창민이 만이 복도로 나온다 —

직위 자, 우린 자업 로의좀 합시다。

영실 창민 동무, 기여히 성공했군요, 수고했어요。

창민 (말없이 손에 든 라바를 영실이에게 준다)

미화 (의미 있게) 내가 제화공 처녀, 로루공 총각 그리구 우리 공장 지도부를 총 대표하여 두 동무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 그때 교대 종소리 울린다 —

미화 자 얘들아! 교대 시간이다。 우린 제화공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알려야지 (명숙이 순옥이를 데리고 퇴장) —

— 복도에는 영실이, 창민이만이 남는다 —

창민 영실동무, 고맙소。 자 성공한 그 첫장의 『라바』로 정성껏 고무신을 지여 수령에게 보냅시다。

— 둘이 가까이 다가서는데 직맹 위원장 문을 연다。

— 그들은 모르고 굳게 포옹한다 —

로 위원장 동무! 저들을 잘 돌봐 주어야 하겠습니다。

직위 로기사 동무! 저들의 사랑에도 가열 장치를 했군 하…

— 로루 현장에서, 또 제화 현장에서 환호성 소…

— 막 —

똘쓰또이의 생애와 예술

박 영 근

레브 니꼬라예위츠 똘쓰또이는 그 시대의 인민 생활을 묘사한 위대한 예술가이며 사회적 억압과 허위를 폭로한 위대한 인도주의자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목소리가 온 세계에 울리고 있는 불멸의 작가이며 조국의 충실한 아들이였다. 브·이·레닌은 똘쓰또이를 세계에서 그와 비등할 사람이 없는 위대한 예술가라고 말하였다 쓰딸린은 똘쓰또이의 이름을 위대한 로씨야 민족의 대표자의 한 사람으로 들었다

똘쓰또이의 창작은 불멸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똘쓰또이의 예술적 천재와 압제자에 대한 폭풍 같은 항거는 광명한 미래를 위하여 투쟁하는 진보적 인류를 고무하고 있다

레브 니꼬라예위츠의 생애와 창작의 길은 길고 영광스러운 길이였다. 그는 一八二八년 九월 九일에 똘라에서 가까운 야스나야 뽈랴나에서 귀족 가정에 탄생하였다 일찌기 부모를 여위고 친척 집에서 자라났으며 로씨야의 평민들 특히 농노들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게 되였다 어린 시절로부터 조국의 자연과 조국의 말과 노래, 풍습을 지극히 사랑하였다

一八四四년에 똘쓰또이는 까잔 종합 대학에 입학하였으나 학업에 만족지 못하여 대학을 버리게 되였다 그러나 미래의 위대한 작가 똘쓰또이는 어린 때부터 만년에 이르기까지 항상 자습에 열성을 기울이고 있었다 인민의 생활이며 진리와 정의에 대한 념원이 온 생애를 두고 이 작가의 마음을 들끓게 하였다

똘쓰또이는 一八五一년에 까브까즈에 가서 군무에 복무하였고 전투에도 참가하였다 까브까즈에서 비로소 문학 활동을 시작하여 처녀작 『유년 시대』를 썼으며 계속하여 『도망』, 『삼림 채벌』 등 단편을 창작하였다

三년간 까브까즈에 있은 후 토이기와 전투한 두나이군에 파송되였으며 一八五四년에는 애국심에 못이겨 세바쓰또뽈 전투에 달려갔다 그는 一개월 이상이나 가장 위험한 진지에서 비상한 용감성을 가지고 싸웠다 세바쓰또뽈 전투의 참가자이며 목격자인 똘쓰또이는 『세바쓰또뽈 이야기』를 통하여 로씨야 인민이 조국을 위하여 어떻게 용감하게 싸웠는가를 보여 주었다

똘쓰또이는 一八五五년 군대에서 나와 저명한 로씨야 작가들인 뜨루게네브, 네끄라쏘브, 체르늬쎕쓰끼들과 친하게 되였다

그는 이미 자기의 작품을 거쳐 이 시대 작가들의 첫 대렬에 서 있었다

그는 一八五七년과 一八六〇년—六一년에 외국 려행을 떠나 불란서, 서서, 독일, 이태리, 영국, 벨기 등을 다녔으며 자본주의적 착취에 대한 심각한 인상을 받고 증오와 분노를 금하지 못하였다 그는 외국에서 학교를 많이 방문하고 교육가들과 자주 담화하였다 야쓰나야 뽈랴나에 도라오자 그는 교육 사업에 종사하였다 똘쓰또이는 二六개의 학교를 세웠고 아동 九,〇〇〇명을 수용하여 그들의 창발성을 발전시키는 새 교육 방법을 적용하였다 그후 七〇년대에 이르러 많은 아동 작품들을 썼으며 아동들을 위한 독본까지도 편찬하였다 제二차 외국 려행에서 도라온 것은 一八六一년 농노제 폐지 직후였다 위대한 예술가는 그가 집심히 동정하던 농민의 소위 『해방』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았다

그는 농민들의 공정한 요구를 옹호하기 위하여 지주와 농민 사이의 분쟁 문제를 해결하는 중재역 직책에서 일하였다 중재 사업과 학교 사업은 똘쓰또이를 농민과 접근시켰으며 그들의 생활이며 성격이며 사회에 있어서의 그들의 역할에 대하여 심각한 고려를 돌리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민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 한다는 사상에 도달케하였다

그러나 똘쓰또이는 지주와 짜리를 반대하여 무장 폭동을 호소하던 체르늬쎕쓰끼를 선두로 하는 선진 인사들의 혁명적 학설과는 떠러져 있었다 인민은 정당하고 귀족들은 정당치 못하다는 데서 똘쓰또이는 인민과의 정신적 합류, 농민에 대한 존경, 귀족에 대한 농민의 성실한 태도를 요구하였다

인민에 대한 념원이 똘쓰또이의 예술 작품들을 일관하고 있다 세계 문학에서 가장 위대한 자리를 차지하는 장편 소설 『전쟁과 평화』는 인민에 대한 념원이 그 기본으로 되고 있다 이 작품에서 똘쓰또이는 탁월한 예술적 필치로서 一八一二년의 조국 전쟁을 그려 냈다 소설에는 로씨야 사회의 모든 계급과 계층, 농민, 지주, 상인, 병사, 장군, 관리, 알렉싼들 一세, 불란서군 장병과 나뽈레온 등의 진상을 보여 주었다 똘쓰또이는 궁전 측근자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면서 로씨야의 애국적 인민들인 병사, 빨찌산, 장군인 꾸뚜조브를 그려냈다



☆ 창작중에 있는 똘쓰또이(레삔 그림 1891)

똘쓰또이는 『전쟁과 평화』를 위하여 六년이란 세월을 소비하였다

『전쟁과 평화』를 쓰던 시기가 이 위대한 작가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안정된 시기였다 그는 一八六二년에 의사의 딸 쏘피야 안드레브나 베르쓰와 결혼하였으며 농사에 종사하였다

그러나 로씨야의 사회 생활은 천재적 작가를 격분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똘쓰또이는 장편 소설 『안나 까레니나』에서 로씨야 생활의 광활한 화폭을 그려냈다 지주와 관리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수백만 농민들의 투쟁이 똘쓰또이의 많은 작품에서 반영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인민과 그 운명, 무권리한 그들의 처지에 대한 문제, 다른 한편으로는 지배 계급, 경찰과 재판, 감옥의 힘으로 인민들을 강압하는 짜리 정부에 대한 문제— 이것이 똘쓰또이의 가슴을 흥분케 하였다

一九〇五년 혁명의 전야인 一八九〇년—一九〇〇년에 쓴 장편 소설 『부활』과 중편 『하지 무라트』, 단편 『무엇 때문에』 등

에서 똘쓰또이는 인민을 착취하여 살고 있는 귀족과 상인들이며 인민을 억압하는 경찰, 재판, 짜리와 짜리 정부를 분노에 차서 폭로하였다

똘쓰또이 작품 중의 종교, 순종, 온화의 설교는 반동적이며 해롭다 이 설교는 의식적인 혁명 투쟁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나 똘쓰또이 창작의 강한 점은 생활에 대한 심각한 묘사와 폭압, 허위, 전제 정치에 대한 폭로에 있으며 이것이 현대 문학과 인류 문화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되는 것이다 똘쓰또이의 긴장한 창작 활동은 반세기 이상 계속되였다 똘쓰또이는 만년에 와서 그가 인민들의 빈궁 속에서 귀족 저택에 살며 그의 생활이 자기의 교리와 모순된다는 의식으로 해서 더욱 고민에 빠지게 되였다 그는 자기 집에서 떠나 평민들과 같이 마지막 생애를 보내려 결심하였다 그는 一九一〇년 一一월 一〇일 비밀리에 야쓰나야 뽈라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는 一一월 二〇일 로상에서 병에 걸려 八二세의 고상한 생애를 마치였다

똘쓰또이는 위대한 예술가이다 그러면 똘쓰또이 예술의 특정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작가 자신이 대답을 주고 있다 단편 『오월의 세바쓰또뽈』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훌륭한 말로 이야기를 마감하였다

『내가 온 정신을 기울여 사랑하고 그 아름다운 것을 죄다 남김 없이 재현하려고 힘을 아끼지 않았으며 또 언제나 아름다웠고 앞으로도 아름다울 내 이야기의 주인공은 ―진실이다』 사실에 있어서 똘쓰또이의 작품들은 생활을 깊이 또 옳게 묘사하고 있다

똘쓰또이는 현실을 사실주의적으로 묘사함에 있어서 위대한 선행자들인 뿌쉬낀, 레르몬또브, 고골리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똘쓰또이의 재능의 특성은 그 주인공들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가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가를 관찰하고 묘사하는데 있다

똘쓰또이의 매개 작중 인물은 그것이 비록 중요치 않은 인물이라 할찌라도 산 인물로서 독자 앞에 등장한다 작가는 인물의 외모와 얼굴, 체구, 옷차림 등을 그리면서 가장 중요한 그의 사상, 견해를 전달한다

인물과 사건에 대한 활기 있는 화폭을 더 한층 선명하게 해주는 것은 똘쓰또이에 의한 생동하는 환경의 묘사이다 까브까즈의 자연과 중부 로씨야의 풍경은 똘쓰또이의 작품들에서 아주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단편 『삼림 채벌』에서의 까브까즈의 자연 묘사는 인물들의 행동 및 사건 발전과 혼연 일치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똘쓰또이의 작품들은 또한 로씨야 말의 보물고로 되여 있다 똘쓰또이는 문학 활동의 전 기간을 통하여 조국의 언어를 깊이 연구하였다 『다른 자람이 자기와 같이 잘 알도록 아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다』고 똘쓰또이는 쓰고 있다 위대한 문호의 언어는 정확하고 간명하다 똘쓰또이가 가진 어휘의 풍부성과 표현성, 문장 구조의 다양성은 그 작품의 풍부한 내용과 유기적으로 련관되여 있다

이와 아울러 똘쓰또이는 로씨야 인민의 민족적 특성들을 충분히 구현하고 있다

인민의 교살자인 짜리 정부의 대신 쓰똘리삔이 수 없이 인민을 사형에 처하던 一九〇八년에 똘쓰또이는 유명한 론문 『침묵할 수 없다』를 썼다 그는 귀족의 장원을 습격한 농민 열두 사람의 교살에 대하여 이렇게 썼다 『열두 사람은… 그들이 먹여 주고 입혀 주고 또한 집을 지어 준 바로 그자들에 의하여 올가미로 교살당하였다…』

현대에 있어서도 똘쓰또이의 목소리는 자본주의의 철쇄에서 신음하는 인간의 권리를 옹호하며 류혈적 인간 도살을 반대하며 사회적 허위와 억압을 반대하여 우렁차게 울리고 있다

지금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전후 복구 건설에 매진하는 우리는 똘쓰또이의 작품을 통하여 인민의 무궁 무진한 힘을 확신하며 자본주의 사회의 죄악에 대한 증오심을 새롭게 한다 위대한 인도주의자 똘쓰또이의 작품은 인민들의 애국적 열정과 예술적 희열을 용솟게 하고 있다

독자문예

나의 따발총

조선 인민군 리 환 주

먼동이 휘연히 터오는 새벽
솟아 오를 눈부신 태양을 기다리며
구름바다를 발밑에 바라보는
높은 고지 나의 초소에
따발총 가슴에 안고 섰다

눈뜰 순간도 없이
휘휘 감도는 포연 속에서도
화선마다 한몸되여 이겨낸
따발총
나의 전우여

한결 보람 큰 결전에서
너를 닦다가도 격발기를 어루만졌다
원쑤에게 무리 죽음을 준
자랑스런 너에게 새 힘을 돋아 주는 마음으로

저기 바라다 보이는
낯 익은 산마루마다엔
겪어온 싸움의 길에서 승리한 자취
곳곳마다 별같이 새겨졌구나

나는 기억한다
적탄이 우박치는 화선
원쑤 섬멸의 싸움에서
이리떼마냥 기어드는 원쑤들을
한놈도 남김 없이 눕히던 그순간을

그리고 나는 영원토록 이야기하리라
검은 바윗돌마저 부서져
가루되는 준엄한 싸움에서도
죽음을 맞받아 뿜은 불길에
원쑤를 모조리 까부시고야 멎은
용감한 전우 나의 따발총

또 그 어데에서나 자랑하리라
너와 함께 있어
물러선 전호가 없었고
너와 함께 싸워
빼앗지 못한 고지가 없었다

하기에 양캐들 너를 무서워 떨었고
따발총!
네 이름만 불러도
양캐들은 뒷걸음쳤다

열아홉살 나에게
너는 첫 사랑인양 정다워
첩첩 숨가쁜 싸움에서도
가슴 아프도록 껴안고 밤을 새웠고
칼바람 사나운 겨울 밤에도
외투 벗어 너를 가리워 주었다

따발총!
너는 나의 사랑
용감한 전우여

껴안으면 더욱 새 힘이 솟구친다
사랑스런 나의 따발총
평화의 방선을 철벽으로 지키며
더욱 굳세인 우리의 힘을 다지자

단평 ☆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에서 인민군대는 류례 없는 영웅성을 발휘하였다 시 『나의 따발총』의 작자는 따발총을 통하여 미제 침공자들에게 섬멸적 패배를 준 조선 인민군대의 영웅성과 무기에 대한 사랑을 소박한 감정으로 비교적 잘 노래하였다

이 시의 제七련에서 독자들은 인민군 전투원들의 무한한 궁지와 따발총에 대한 두터운 신뢰감을 여실히 엿보게 된다 또한 작자는 제九련에서 『칼바람 사나운 겨울 밤에도 외투 벗어 너를 가리워 주었다』라고 노래하였다 독자들은 이 구절에서 자기 무기에 대한 인민군 전투원들의 끓어 넘치는 애정을 보게 된다 작자는 이와 같은 인민군 전투원들의 고상한 감정을 형상화하는 면에서 기본적으로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 시에는 이러한 우점이 있는 반면에 적지 않은 결함도 있다 특히 작자의 솟구치는 시정을 충분히 정리하지 않고 동일한 감정을 중복시킴으로써 산만성을 초래하였으며 그 결과는 수법은 독자들의 감흥을 감소시킨다 서정시란 특히 시인이 느낀바 시상을 함축하며 감동적인 시어를 통하여 자기가 노래하려는 것을 집중적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이 시의 작자는 풍부한 서정과 장래 시인으로서의 소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서 앞으로 좀 더 지적된 결함을 시정하는 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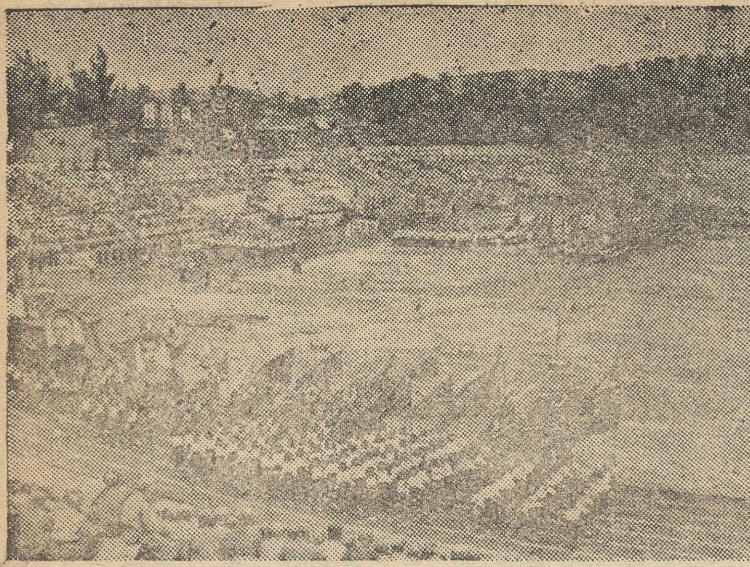
(편 집 부)

체육

八·一五해방 九주년경축

전국 체육 축전

교육성 체육처 김 문 관



☆ 8·15 해방 9주년 기념 경축 전국 체육 축전 입장식 ☆

八·一五 해방 九주년 경축 전국 체육 축전은 평양 시민들과 청년들의 창조적 로력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모란봉 경기장에서 八월 一二일부터 一七일까지 기간에 진행되였다。 금번 전국 체육 축전에서는 각도와 평양시、개성시를 비롯하여 민족 보위성、내무성、교통성을 대표한 단체들을 포함한 一二개 단체의 대항전을 실시하였다。 여기에는 一、〇九七명의 우수한 남녀 체육 선수들이 참가하였다。 축전은 일기가 불순하여 경기장 조건이 완전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공화국 기록들이 수립되였으며 적지않은 기술적 발전들을 보여 주었다。 대회의 성적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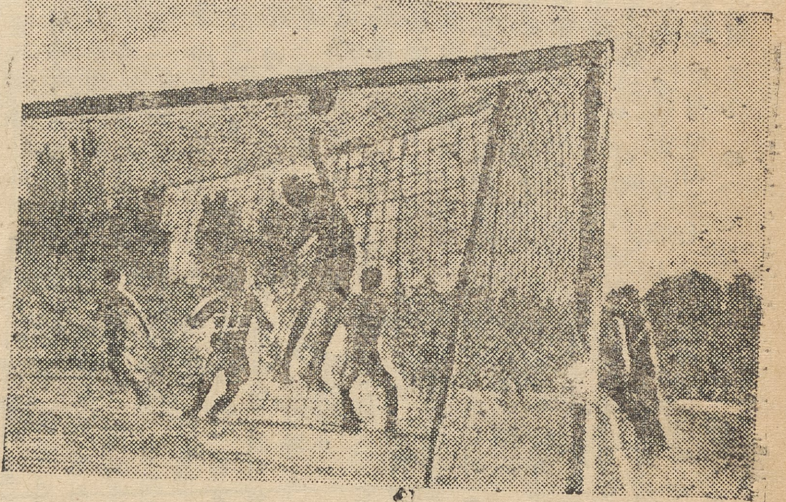
	륙상 남자	륙상 녀자	축구	롱구 남자	롱구 녀자	배구 남자	배구 녀자	씨름	그네	점수	순위
평양	二	五	二			三				一九	二
개성					二		一			六	八
함북	五	二								一九	二
함남		四								三	九
강원					三					三	九
황해										〇	一二
평남								二	三	七	七
평북	四	三					三		二	一四	五
자강									一	三	九
보위성	一	一	一	一	一	一	二	一		七五	一
내무성				二				三		九	六
교통성	三		三	三		二				一八	四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족 보위성 선수들은 전 종목에 걸쳐 일상적인 체육 훈련에서 얻은 성과들을 유감 없이 발휘함으로써 공화국의 성벽으로서의 믿음직한 준비성을 보이여 주었다。 특히 금번 대회에서 남자 一〇〇M 질주에서는 종전의 공화국 기록 一一초 五를 단축하여 一一초三의 공화국 신 기록을 수립하였으며 二〇〇M 장애물 경주에서도 신 기록을 수립하였다。

또한 녀성들의 기술 수준들이 현저히 제고되였음을 보이여 주었다。 배구 경기에서 민족 보위성을 이겨 우승한 함북도와 녀자 롱구에서 결승전에 참가한 민족보위성 단체와 개성시 단체는 각각 훌륭한 시합들을 진행함으로써 군중을 감탄시켰다。 녀성들이 흔히 체육은 학교 시절이나 할 수 있고 사회나 가정에 들어가면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던 낡은 잔재들을 씻어 버리고 함북도의 륙상 경기 선수 김명옥 동무와 같이 인민군 후방 가족이며 세살나는 어린이의 어머니로서 금번 대회에 참가하여 녀자 주고도에서 제一위를 차지하였고 단봉 던지기에서 제二위를 쟁취하는 등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자기의 체력을 유감 없이 발휘함으로써 녀성들의 모범이 되였으며 앞으로도 더욱 자기의 기록을 갱진하기 위한 로력을 계속 기울일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개성시의 녀자 롱구 선수인 김하정 동무도 가정을 가진 녀성으로서 금번 대회에 참가하여 개성시 녀자 롱구단의 핵심으로서 훌륭한 경기 기술들을 발휘하였다。

다음으로 금번 대회를 통하여 오랫동안 전쟁으로 인하여 중앙 대회가 중단된 조건 하에서 통일적인 경기 규칙과 새로운 경기 용어 및 심판법들이 적용되지 못하던 것이 새로운 경기 규칙과 용어 및 심판법들을 통일 지음으로써 각종 경기 리론 및 기술적 수준이 급속히 향상 발전될 수 있는 조건들을 조성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전쟁 기간에 적들의 만행에 의하여 체육 간부들이 손상되였으며 이로 인하여 지도자들과 심판원들이 부족하였다。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도자와 심판원들을 강습과 실습 및 연구 토론회들을 통하여 교양 훈련함으로써 새로운 체육 간부들을 양성하였다。

八·一五 해방 九주년 기념 전국 체육 축전은 적지 않은 성과들을 거두고 폐막되였다。 그러나 이 대회를 통하여 우리의 체육은 아직도 적지 않은 부문에서 국가의 실제적 요구 수준에서 발전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 축구 결승전 (보위성 대 평양)

첫째로、금번 대회의 각종 경기에서 몇몇 단체를 제외하고는 다수 단체들이 일정한 자기 단체들의 작전 계획들을 소유하지 않고 있었다。 대다수 단체들이 선수들의 소질과 체력에만 의거하면서 계획성 없이 대전하며 상대 단체들의 단체 구성과 개별적 선수들의 특기들에 대처하는 전술들을 가지지 않고 시합에 참가하는 경향들이 일반적인 결함들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합에서나 한번 패하기 시작하면 도저히 회복하지 못하는 사실들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는 특히 각도 단체들에 있는 공통적 결함은 기본적으로 주력들이 부족한 점이다。 각종 경기의 기초는 주력이다。 선수들이 자유 자재로 자기 기술을 발휘하려며는 기본적으로 주력을 소유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축구와 롱구 경기 부면에서 이러한 사실들은 공통적이였다。 또한 선수들 자체가 경기 규칙들을 연구 파악하지 못하고 다만 규칙에 대하여 상식적인 부문만을 리해하고 있는 관계로 실제 경기에 들어가서 규칙에 의거하여 최대한으로 규칙에서 허용된 유리한 조건들과 방법적 문제들을 리용하지 않고 있다。 례를 들어 배구에서 공격과 수비에 대한 선수들의 개별적 특기를 고려하여 위치에 따라 선수 교대를 제때에 진행하며 휴식 시간을 정당히 리용하여 선수들에게 시합에 대한 비판을 가지며 새로운 정세에 따르는 대책들을 제우지 못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번 대회는 적지 않은 성과들이 있는 반면에 부분적인 대회 조직상 또는 각 경기 진행상 결함들이 산생되였다。 시급히 이러한 결함들을 시정하고 새로운 인민 체육의 강화 발전을 위한 체육 지도자들과 전체 체육인들 앞에 제기되는 국가적 책임은 실로 중대한 것이다。

학교에서 육체 교양 사업을 일층 강화함과 아울러 공장、 직장、 농촌들에서 체조 보급 사업과 각종 경기별 써클 사업들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체육을 생활화 하며 정상화 하는 습성들을 배양하여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적지않게 체육 사업이 어면 국가적 명절이나 기념일에 깜빠니야적으로 조직 진행되였다。 이러한 사정은 대회나 있어야 체육 사업을 준비하며 끝나면 즉시로 중단하며 심지어는 대회를 조직하여 주지 않기 때문에 체육 사업이 잘 되지 않는 것처럼 인식하는 옳지 않은 태도까지 발로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결함을 퇴치하고 인민 보건 체조들을 대중적으로 보급하며 학교、 직장、 공장、 광산들에서、 숙소 에서、 도시의 소공원들에서、 학교 부근의 구락부들에서 五분내지 一○분 간의 간단한 시간을 리용하여 체조하는 것을 생활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인민 체력 검정 사업에 합격함은 청년들의 고상한 의무이다。 인민 체력 검정은 청년들이 자기의 신체적 준비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며 신체의 조화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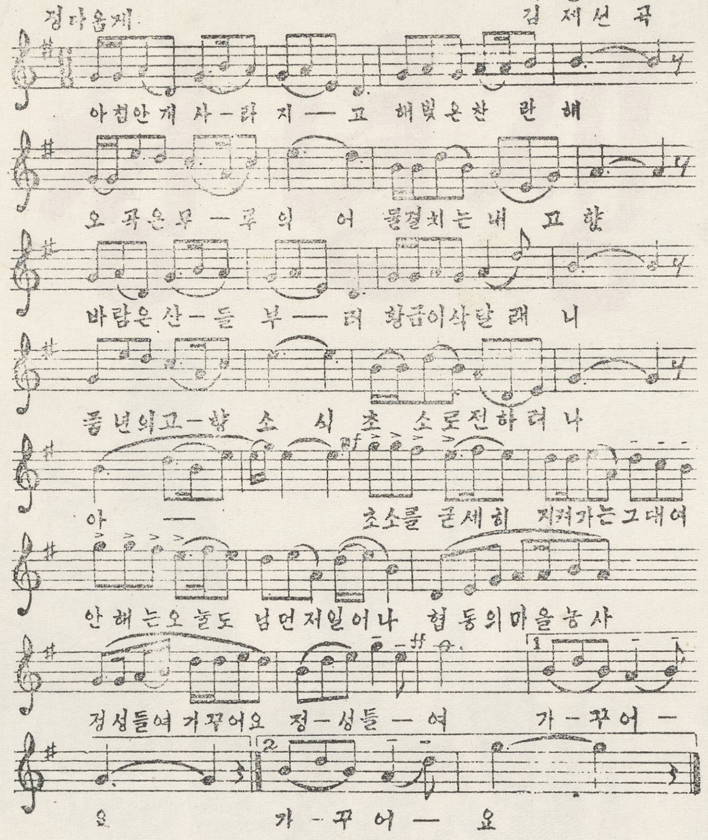
이 사업에서 체육 지도 일꾼들과 민청 단체들은 청년들을 적극 지도 방조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여야 할 것이다。 금번 체육 지도 위원회의 결정에는 매월 제二 일요일을 체육적인 휴식일로 광범히 리용할 것이 지적되여 있다。 그러므로 이 날은 린접한 직장、 학교、 농촌 간의 친선적 운동 경기 시합들을 조직 진행할 것이며 등산、 교외 산보、 원족、 행군 등 인민들의 건강 증진과 육체적 단련을 위한 체육적인 휴식일로 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공장、 광산、 직장、 학교、 농촌、 어촌、 도시、 어느 곳을 물론하고 청소년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체육 시설을 강화할 것이다。 각 도 시 군의 경기장들과 학교、 직장、 공장들에 경기장을 설치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공지와 공원 및 집회장소 부근들에 배구장、 롱구장、 목봉、 철봉、 탁구、 그네、 널뛰기、 평행대、 단봉 등 기구를 설치하여 수시로 간단한 시간을 리용하여 운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건을 보장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취미와 소질에 따라 체육을 생활화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각급 체육 지도 위원회와 민청 단체들은 청년들속에서 체육 사업의 리론적 및 기술적 실무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구 토론회와 기술 토론회 및 좌담회와 강연회들을 광범히 조직 진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번 八·一五 해방 九주년 기념 전국 체육 축전을 조직 진행한 경험들에 기초하여 체육인들의 명절인 체육절을 의의 깊게 경축하기 위한 준비 사업들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각급 학교들에서는 교내 체육 대회 등을 조직하여 一년간의 학교 내 체육 사업을 총화하는 계기로 되여야 할 것이며 생산 직장 및 사무 직장들과 농촌들에서 인민 체력 검정을 체육절을 전후로 광범히 실시하며 특히 각종 경기회 및 친선 시합 및 강연회와 좌담회、 체육 영화 감상회 등 다채로운 사업 계획으로 이날을 기념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이 날을 계기로 각도 시 군 단위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친선 시합들이 조직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집단 체조와 군중이 다수 참가할 수 있는 종목들을 중심적으로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청년들의 심신이 건장할제 우리 조국은 건장할 것이며 우리는 또 다시 남의 수모를 받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신 김일성 원수의 교시 실천을 위하여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더욱 꾸준한 투쟁이 있어야 할 것이다。

풍년의고향소식

리원근 시
김제선 곡



(2) 새들은 무리지어 풍년을 노래하고
시냇물도 속삭이며 흘러가는 내 고향
황금의 이삭들을 포기포기 헤이며
정성껏 가을하여 현물세도 바치리라
(후렴)

1954년 9월 23일 인쇄 책임주필 리 두 진
1954년 9월 25일 발행 발행소 민 주 청 년 사
조선민주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인 쇄 소 민주 청년 출판인쇄소
기관잡지 『청년생활』 총배포처 체신성 출판물 관리국
1954년 제9호 값60원

ㄱ-20115 20,000부